

동양학박사학위논문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

2018년 2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명리미래예측전공

박 재 범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

지도교수 소 재 학

이 논문을 동양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명리미래예측전공

박 재 범

박 재 범 의
동양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심 사 위 원 장

조 남 호



심 사 위 원

최 남 석



심 사 위 원

박 영 창

심 사 위 원

박 성 희

심 사 위 원

소 재 학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의 用神論 比較

研究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명리학의 이론은 연구, 발전, 계승되어 왔다. 사주명리학에서 운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용신(用神)이다. 용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길흉판단이 가능하다. 명리학에는 용신을 중심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설명한 이론서는 대표적으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이 있다. 『적천수』에서는 억부용신을 논하고 있고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용신을 논하고 있으며 『궁통보감』에서는 조후용신을 논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나름의 이치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용신론에 대한 비교분석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서 본연구에서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 대한 연원 및 중요이론을 고찰하고 각 용신론을 비교분석한 후 실제 사주감정 사례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사주감명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첫 번째 과정으로 격국용신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사주명리학의 연원 및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그 다음 연구의 두 번째 과정으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과 중요이론을 고찰한 후에 3대 이론서의 용신이론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들 용신론의 각기 다른 부분을 자세히 살폈으며 각 용신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3대 고전의 각기 다른 용신이론 체계에 따라 사주를 보는 관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을 통합 정리하여 개인생활의 미래예측 도구로서 명리학의 실생활에서의 활용가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실제 감명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주명조를 제시하여 3대 용신론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사주감명방법을 제안하였다.

하나의 사주에서 격국과 용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주의 기본적 스타일과 성공의 핵심 키포인트를 말한다. 격국이란 일간과 월지와와의 십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주

의 근본적인 체질을 말하는 것이며 용신은 그 사주의 체질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음양오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신을 통하여 하나의 사주에서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가를 알 수 있다. 사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격국과 용신의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하고도 복잡한 용신의 상태에 따라 사주 주인공의 인생 길흉과 성패, 행불행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각각의 용신 이론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을 통하여서는 주로 개인이 원하는 것이나 사생활, 즉 재물이나 가족관계 등 육친에 대한 길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억부용신이 좋은 사주와 억부용신 운에는 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비롯한 주변의 인간관계가 편안하였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을 통하여서는 주로 사주 주인공의 대외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활동반경의 크기 등을 판단하여 인생의 성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상신이 좋아 성격이 잘 된 사주나 상신운에는 주로 사회적 성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을 통하여서는 출생 계절에 따른 체질과 그로 인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희노애락의 감정 등을 파악하여 각 개인의 인생전반에 대한 체감행복지수와 인생의 행불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후용신이 잘 갖춰진 사주나 조후용신 운에는 체감행복지수가 높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반면에 조후가 맞지 않는 사주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억부용신과 격국용신, 조후용신은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잘 구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용신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주를 감명하여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이며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이론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최초이다. 그러므로 다소 연구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 명리학의 꽃이라 비유할 수 있는 용신이론이 더욱 체계화 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명리학, 사주, 용신, 격국,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목 차

국문초록	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용어의 정의	4
3. 선행연구 고찰	5
4.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II.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 및 이론 고찰	11
1. 격국용신이론 변천과정	11
2. 적천수의 연원 및 중요이론	15
3. 자평진전의 연원 및 중요이론	29
4. 궁통보감의 연원 및 중요이론	46
III.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 비교분석	57
1. 적천수 용신이론	58
2. 자평진전 용신이론	86
3. 궁통보감 용신이론	94
4. 3대 용신론의 차이점 비교분석	103

IV. 사주명조 사례분석	109
1. 적천수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109
2. 자평진전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112
3. 궁통보감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117
4. 3대 용신법을 적용한 유명한 사주명조 분석	123
5. 용신론별 차이점 분석 및 소결논의	129
V. 결론 및 제언	133
1. 결론	133
2. 제언	136
참고문헌	137
ABSTRACT	143

표 목 차

<표 I -1> 선행연구 요약	8
<표Ⅲ-1> 억부용신청법 우선순위 도표	61
<표Ⅲ-2> 1차成格表	92
<표Ⅲ-3> 2차成格表	92
<표Ⅲ-4> 1차敗格表	93
<표Ⅲ-5> 2차敗格表	93
<표Ⅲ-6> 십간의 월별 조후용신표	102

그림목차

<그림 I -1> 연구의 절차	10
------------------------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인류는 개인이나 부족 또는 국가의 길흉화복과 미래를 알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미래예측술은 우주자연운행의 일정한 규칙에 의한 방법, 자연관찰에 의한 방법, 직관이나 영감, 또는 신의 존재에 의지하는 방법 등으로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미래예측술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피흉취길하고 인생의 성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 활용방법의 일환으로 삼아 왔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들은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을 비롯하여 점성술(占星術)이나 주역(周易), 육효(六爻), 육임(六壬), 기문둔갑(奇門遁甲), 구성학(九星學), 철판신수(鐵板身數), 관상학(觀相學), 풍수학(風水學), 자미두수(紫薇斗數)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현재 사주명리학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사전에 알아내어 피흉취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천지(天地)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서 사시변화(四時變化)의 규율에 따라 생존하는 존재이다. 천지의 기운은 선천(先天)이고 생명(生命)이며 이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가 바로 후천(後天)이고 인생이다. 그리고 이에 근원하여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의한 사주팔자 또는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에서 운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른 운명추론이 가능하다. 용신이란 하나의 사주에서 가장 필요하고 쓰임새가 있는 오행이나 십성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신이란 하나의 사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오행인데 사주 전체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과정을 가장 적절하고 조화롭게 해주어 사주의 주인공에게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주감정(四柱鑑定)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용신인 것이다.¹⁾ 사주명리학은 바로 이 용신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사주명리학에는 이러한 용신을 중심으로 운명을 추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설명한 고전(古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전통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히 숙독(熟讀)해야 할 이론서로 『적천수(滴天髓)』, 『자평진전(子平眞詮)』, 『궁통보감(窮通寶鑑)』을 꼽는다.²⁾ 그런데 이 3대 이론서들에서 사주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길흉판단의 핵심이 되는 용신의 이론이 각기 다르다. 첫째, 명대(明代)의 유백온(劉伯溫)이 저술한 『적천수』는 변격(變格)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용신론에서 오행의 변화를 논하였고³⁾ 둘째, 청대(清代)의 심효침(沈孝瞻)이 저술한 『자평진전』은 용신론과 정격(定格)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격국용신(格局用神)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으로 오행의 상생을 논하였으며⁴⁾ 셋째, 시대와 저자가 미상인 『궁통보감』은 계절과 기후가 중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용신론에서 조후론(調候論)을 주장하였다.⁵⁾ 이처럼 사주명리학은 통변방법에서 용신론(用神論)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 저서들에서는 각기 독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이론과 용신법을 주장하고 있다. 사주해석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이론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나름의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면에 상호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중에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용신론(用神論)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미래예측을 위한 학문과 학설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하여 왔는데 사주명리학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제도권의 학문으로 인정받아 4년제 학부와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서 체계적인 연구로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동양학분야에서 1987년부터 2016년 사이의 사주명리학부분의 연구현황은 사주명리학 관련논문이 학위논문 252편과 그 외 학술지논문 70편이 조사되었다. 그중에는 박현구의 「『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⁶⁾

1) 송유성(2012), 『四柱命理學의 調候論適用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19~123.

2) 김승진(2008), 『精說窮通寶鑑』, 암암문화사, p. 5.

3) 심효침원저, 서락오평주, 박영창역(1998), 『子平眞詮坪註』, 신지평, p. 11.

4) 심효침원저, 서락오평주, 박영창역(1998), 『子平眞詮坪註』, 신지평, p. 11.

5) 송유성(2012), 『四柱命理學의 調候論適用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24.

6) 박현구(2013), 「『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외에 17편의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위 세 권의 책에 있는 용신론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과 용신법은 각기 독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면이 있다. 각각의 이론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커다란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각기 다른 용신론을 비교분석하여 이 이론들의 차이점과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논리적 효용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 대한 연원 및 중요이론 고찰과 각 용신론에 대한 비교분석 및 실제 사주분석사례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사주감명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으로 한다. 명리학고전에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이 외에도 동주대(東周代) 낙낙자(洛洛子)의 『낙낙자삼명소식부주(洛洛子三命消息賦注)』, 한대(漢代) 유안(劉安)의 『회남자(淮南子)』, 당대(唐代) 이허중(李虛中)의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오대(五代) 서자평(徐子平)의 『명통부(明通賦)』, 송대(宋代) 서대승(徐大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 명대(明代) 만민영(萬民英)의 『삼명통회(三命通會)』, 명대(明代) 장신봉(張神峯)의 『명리정종(命理正宗)』, 청대(清代) 진소암(陳素庵)의 『명리약언(命理約言)』 등이 있는데 이들을 통한 고문(古文)의 이해와 명리의 제반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연구도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명리학의 역사와 배경, 개괄적 전개과정과 주요 고전들의 용신법과 사주해석체계, 그리고 용신의 이론이 각기 다름을 설명하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서 각기 주장하는 용신이론을 각 저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주 명조와 함께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고전이 편찬되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현대사회에서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옛날 중국사람들의 사주감명(四柱監命) 방식을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고전의 전통적인 용신이론을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맞게 재해석하여 사주를 분석하고 운명을 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첫째, 사주명리학의 연원 및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고 둘째,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중요이론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해석체계가 다름을 밝히고 셋째, 용신론에 대한 논의와 정리를 거쳐 현대사회에 맞는 명리학의 활용가치성을 확보하며 넷째, 삼서(三書)의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자가 실제 감

명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주명조를 제시하여 용신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끝으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사주감명의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하였던 사주명리학 이론서들의 각각의 용신이론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사주감명방법의 합리적 논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의 한계점은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을 고증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문헌들도 출처가 모호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연구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격국(格局)

사주명리학은 타고난 선천적성과 특기를 분석할 수 있고 운명의 길흉을 분석하여 자신의 앞날에 대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사람도 출생하면 부모의 성씨를 통하여 합당한 이름이 붙여지듯 사주의 구조를 통하여 격명(格名)을 정하고 그 격에 알맞는 용신(用神)이 설정되면 명(命)을 정확하게 추명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된다. 격국(格局)이라는 말은 사주학적 술어(術語)로 사주의 구조적 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격국의 명칭은 사주를 구성한 후에 일간에 월지(月支)의 지장간(地藏干) 중에서 유력한 십성을 대입하여 정하는데 이에 따라 고유의 격(格)을 정하여 격국이라 하는데 각각의 십성에 따라 그 명칭을 표현한다. 즉 격국이란 사주의 포괄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격을 통하여 사주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과 기질, 사회성 및 부귀빈천의 깊이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짜임새가 되는 것이다. 7)

2) 용신(用神)

7) 김기승(2013), 『격국용신정해』, 다산글방, p. 47.

용신(用神)이란 사주의 길흉과 성패, 행불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하나의 사주에서 제일 긴요한 오행이나 십성을 말한다. 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할 때 우선되는 조건으로 사주의 강약이나 격국의 상태 그리고 출생계절에 따른 조후를 통하여 용신을 정하는데 용신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운명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용신을 설정하는 것은 생각 보다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각각의 사주가 음양오행의 구성과 분포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신강신약이나 격국의 상태와 조후가 다르며 더하여 합충(合沖) 등에 의한 변화로 사주의 작용력이 무수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용신은 사주에서 일간(日干)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일간을 떠나서는 결정할 수 없다. 용신은 일주, 격국과 더불어 사주의 삼위일체적 요소로 사주감명의 요체가 된다.

3. 선행연구 고찰

본연구에서는 사주명리학의 연원 및 역사에 대하여 고찰하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 중 용신론을 중심으로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용신 해석체계가 다름을 밝히고 각각의 용신론에 대한 논의와 정리를 거쳐 개인의 미래 예측 도구로서 현대적 명리학의 실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사주사례를 제시하여 명리학 용신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며 각각의 용신이론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사주감명의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주명리학 관련 학위논문 252편, 그 외 학술지 논문 70여 편을 조사하여 보니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에 대하여 연구한 선행 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헌구의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 외 5편의 논문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들 중에는 위 3대 고전에 있는 용신론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박헌구(2012)는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에서 청대(清代) 임철초(1763~1847)의 중화사상을 고찰하고 적천수천미는 신살(神殺), 공망(空亡), 납음(納音), 기격(奇格) 등의 미신적 요소를 부정하고 오로지 중화용신만을 사용함을 밝혔다. 이 중화용신은 궁극적으로 일간이 약하면 부조하고 일간이 강하면 억제하는 억부용신

이고 또 억부용신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만큼 기세가 어느 한 오행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오행이 합화하여 변한 경우는 각각 종격과 화기격이라 부르는데 연해자평에 이미 있던 이론을 임철초(任鐵樵)가 더욱 심도있고 정교하게 체계화시켰다고 하였다.

신기주(2015)는 「命理學의 中和的 해석에 관한 研究」에서 명리학이란 십간 십이지로 구성된 사주와 12절기의 기운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전제하에 중화를 바탕으로 흠을 피하고 길을 취하고자 하는 학문이라 하며 중화란 사주팔자의 오행들이 명리적으로 조화가 안 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 운명을 바로잡아 인생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론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주명리학에서 중화의 요체는 천부적이라 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사주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운명적 조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력을 찾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유경진(2008)은 「命理學 用神 導出의 方法論에 관한 研究」에서 용신도출과 관련된 제반이론을 살펴보고 격국용신은 격국론과 월건의 중요성이 있고 억부용신은 중화, 절기의 심천, 12개월의 오행왕약, 포태법, 월건의 중요성, 생극의 회기, 통근론, 일주회기론, 강약론, 육신론, 개두설, 동정설과 관련이 있으며 조후용신은 한난조습론, 일주회기론, 중화론과 연관이 있고 병약용신은 병약설이 그 내용을 이루고, 통관용신은 통관론이 그 내용을 이루며 변격의 용신은 중하는 오행 또는 육신이 용신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용신론의 분석고찰 결과를 토대로 정격은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을 적용하여 사주의 강약과 한열(寒熱)의 균형점에 해당하는 오행이나 육신을 용신으로 삼고 변격에서는 중하는 오행이나 육신을 용신으로 삼으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용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대붕(2013)은 「명리학에서 월지중심의 간명법과 격국운용에 관한 연구」에서 월지간명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제시하고 월지와 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월지중심 간명법과 격국운용법을 정리하고 고전명조와 현대인의 사주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하게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행불행, 길흉화복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귀천이 더 중요해지므로 과거 개인의 행불행, 길흉화복을 다루는 자평명리에서 사회적 지위나 귀천을 다루는 격국위주의 월지간명법이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자평명리학은 격국을 설정하고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들이 각기 달라 사주감명에 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월지간명법은 격국을 취

하는 방법과 상신을 선출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어 있어 사주감명 시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준(2004)은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에서 사주학의 역사를 통사적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중요한 사주학의 고전을 출현시기별로 나열하고 저자와 저술년도 등을 중국과 한국의 문헌고증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논문에서 사주학 발전원류 요약표를 만들어 각 시대 별로 중요한 저서와 저자, 그리고 이론적 특징을 정리하고 년도 별 사주학 역사 요약표, 사주학의 주요저서 및 인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송유성(2012)은 「四柱命理學의 調候論 適用에 관한 研究」에서 조후론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 및 격국용신론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특히 궁통보감을 주요 참고자료로 삼았다. 조후론 적용의 실재를 십간 별로 각기 그 성격을 나타내주는 계절에 대비하여 10개의 천간을 열두 달에 적용한 20개의 사주에 대하여 궁통보감 및 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4절기를 통한 해당 월별의 조후를 알아보고 격국과 용신을 살피고 천간의 힘을 측정하는 12운성과 왕상휴수사를 적용하여 각 천간의 역량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후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임철초(任鐵樵)가 완성한 적천수천미의 용신론인 중화사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찰하였고 적천수의 용신론인 중화는 유가나 도가의 중화, 즉 ‘균형을 갖춘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명리학 고전에 나타난 용신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격의 사주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을 적용하고 변격의 사주는 중하는 것으로 용신을 한다고 하였으며, 자평진전 이론에 기초하여 월지와 상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월지간명법에 관련된 이론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주학의 시원과 역사를 개괄하고 사주학의 핵심이론인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으며 궁통보감의 12운성과 왕상휴수사를 적용하여 조후용신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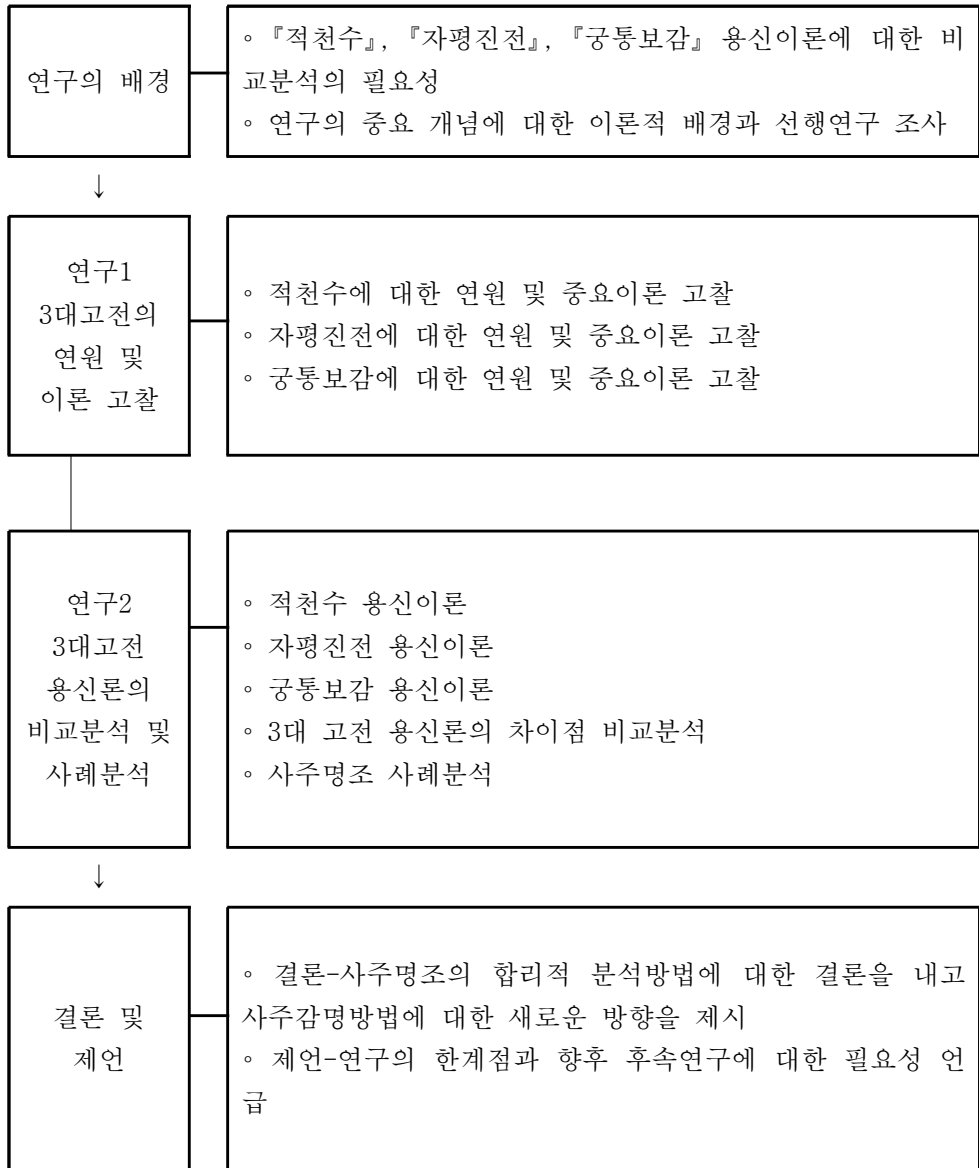
<표 I -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년도)	논문제목 및 중요결과	출 처
박헌구 (2012)	「『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 *임철초가 완성한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은 적천수의 용신론인 중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찰, 중화론은 자연계의 평형원리에 따른 것임을 검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기주 (2015)	「命理學의 中和的 해석에 관한 研究」 *적천수의 용신론인 중화는 유가나 도가의 중화, 즉 ‘균형을 갖춘 이상적인 상태’ 라는 것을 검증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경진 (2008)	「命理學 用神 導出의 方法論에 관한 研究」 *명리학 고전에 나타난 용신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격의 사주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을 적용하고 변격의 사주는 중하는 것으로 「용신 도출의 방법론」을 제시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대봉 (2013)	「명리학에서 월지중심의 간명법과 격국운용에 관한 연구」 *월지와 상신의 의미를 살펴보고 월지와 상신의 중요성을 강조, 월지간명법에 관련된 이론 주장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준 (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사주학의 시원과 역사를 개괄하면서 사주학의 핵심 이론인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을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송유성 (2012)	「四柱命理學의 調候論 適用에 관한 研究」 *궁통보감의 12운성과 왕상휴수사를 적용하여 조후용신론의 타당성을 검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용신론의 각기 다른 점을 비교분석하여 각 이론들의 차이점과 상호연관성을 밝히고 용신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랜 세월의 역사속에서 연구발전되어온 격국용신 변천사를 중심으로 한 사주명리학의 연원 및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다음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과 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중 용신론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이론들이 각기 해석체계가 다름을 밝히고 각 용신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 볼 것이다. 또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을 통합 정리하여 개인생활의 미래예측도구로서 명리학의 실용적 활용가치성을 확보할 것이며 끝으로 연구자가 실제 감명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주명조를 제시하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롭고 합리적인 사주감명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본논문의 연구전개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1>와 같다.



<그림 1-1> 연구의 절차

II.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 및 이론

고찰

1. 격국용신이론(格局用神理論) 변천과정

명리학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사주명리학의 역사 및 발달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대별 순서는 하(夏 약 BC21세기~BC16세기)-은(殷 약BC16세기~BC1066년)-주(周BC 1066~BC 256)-춘추시대(春秋時代 진, 제, 초, 월, 오 BC770~476)-전국시대(戰國時代 초, 제, 진, 연, 한, 위, 조 BC475~221)-진(秦 BC221~206)-한(漢 BC202~AD220)-삼국(三國 위, 촉, 오 AD220~280)-진(晉 AD265~420)-남북조(南北朝 AD420~581)-수(隨 AD581~618)-당(唐 AD618~907)-5대10국(五代十國 AD907~979)-송(宋 AD960~1127)-남송(南宋 AD1127~1279)-원(元 AD1260~1370)-명(明 AD1368~1644)-청(淸 AD1616~1911)-중화민국(中華民國 AD1912~)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고대 중국에는 주역에 의한 음양설이 먼저 있었고 춘추전국시대에 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 오행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연, 월, 일, 시의 간지(干支)로 시간을 기록한 것은 동한순제(東漢順帝 서기126년) 이후이다.⁸⁾ 그 이전까지는 년지(年支)를 기록하지 않았다.

중국의 역사를 통하여 명리학자들을 살펴보면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귀곡자(鬼谷子)와 낙록자(洛瑤子)가 유명하였고 한대(漢代)에는 사마계주(司馬季主), 동중서(董仲舒), 동방삭(東方朔), 엄군평(嚴君平)이 있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관로(管輅)와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이름을 떨쳤으며 진대(晉代)에는 갈홍(葛洪), 곽박(郭璞)이 유명하였고 남북조(南北朝)시대에는 위령(魏寧), 도홍경(陶弘景)이 있었다. 당대(唐代)에 와서는 원천강(袁天罡), 일행(一行), 이필(李泌)과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⁹⁾를 저술한 이허중(李虛中) 등이 있었고 오대(五代)에는 『마의상서(麻衣相書)』¹⁰⁾를 저

8)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9) 귀곡자유문(鬼谷子遺文)에 이허중이 주를 달은 책으로 자평명리 이전의 고법사주학 책이다.

10) 마의선사(麻衣禪師)가 진희이(陳希夷)에게 전수한 상법(相法)에 관한 내용으로 「麻衣先生

술한 진희이(陳希夷)와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의 시조인 서자평(徐子平)이 있었다. 서자평 이전의 고법사주에서는 년주를 위주로 하고 일주와 월주는 보조로 삼아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단했었는데 서자평이 일간 위주의 자평명리학을 창안함으로써 사주명리학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송대(宋代)에는 주렴계(周濂溪), 소강절(邵康節), 서대승(徐大升) 등이 있었다. 서자평의 이론을 계승한 서대승은 일간을 중심으로 타 간지 오행을 대조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사람의 운명을 감정했는데 연해(淵海)와 연원(淵原)을 합본하여 『연해자평(淵海子平)』을 편찬하였다.¹¹⁾ 명대(明代)에는 유백온(劉伯溫), 만민영(萬民英), 장남(張楠) 등이 있었다. 유백온은 『적천수(滴天髓)』를 저술하였는데 현대의 거의 모든 명리서는 유백온의 적천수 이론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고 있다. 장남은 『명리정종(命理正宗)』을 저술하여 서대승이 지은 『연해자평』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충하였으며 만민영은 기존 명리학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삼명통회(三命通會)』를 저술했다.¹²⁾ 청대(清代)에는 진소암(陳素菴), 심효침(沈孝瞻), 임철초(任鐵樵) 등이 유명하다. 청나라 초기에는 여춘대가 『궁통보감(窮通寶鑑)』을 편찬했으며 진소암은 『적천수』 원본을 주해한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와 『명리약언(命理約言)』을 저술했다. 청나라 중엽에는 심효침이 『자평진전(子平真詮)』을 저술하였는데 1747년에 호공보가 이를 발행했다. 임철초는 유백온의 『적천수(滴天髓)』에 주석을 달아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저술했다. 근대(近代)에 들어와 서락오(徐樂吾), 원수산(袁樹珊), 위천리(韋千里), 오준민(吳俊民), 양상윤(梁湘潤), 화계관주(花堤館主), 하건충(何建忠) 등이 명리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서락오는 많은 저서와 평주를 남겼는데 『난강망(欄江網)』을 『궁통보감(窮通寶鑑)』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으며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 『적천수보주(滴天髓補註)』, 『자평진전평주(子平真詮評註)』를 내었고 『자평수언(子平粹言)』을 저술했다. 원수산은 『명리심원(命理探源)』과 『명보(命普)』를 저술했으며 위천리는 『고고집(呱呱集)』과 『명학강의(命學講義)』와 『팔자제요(八字提要)』를 저술했다. 그리고 1933년에 원수

石室神異賦」, 「金鎖賦銀匙歌」를 바탕으로 후대에 여러 내용이 침삭되어 오늘날 여러 가지의 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11)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1.

12)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산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를 간행 하였는데 여기에 진소암의 주석도 함께 수록했다. 화제관주(花堤館主)는 『명학신의(命學新義)』라는 책에서 최초로 칼 융의 심리학이론을 대입하였으며 하건충(何建忠)은 화제관주의 『명학신의』를 바탕으로 『팔자심리학(八字心理學)』 전 후편 2권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오준민(吳俊民)은 『명리신론(命理新論)』을 저술했다. 한국의 박재완은 위천리의 『명학강의』를 번역하여 『명리요강(命理要綱)』을 출간하였고 위천리의 『팔자제요』를 번역하고 거기에 일지론을 첨가하여 『명리사전』을 만들었으며 이석영(李錫映)은 『사주첩경(四柱捷徑)』을 저술하였다. 이렇듯 오랜 세월과 역사를 두고 명리학은 계승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오랜 세월의 역사속에서 명리학자들은 격국과 용신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면면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왔다. 현재도 많은 학자들이 격국과 용신의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니 사주명리학에서 격국과 용신에 대한 이론은 가장 중요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¹³⁾ 이 연구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그러므로 명리학의 가장 기본핵심이론인 격국, 용신 이론의 정립 및 변천과정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명리학의 격국용신론은 시대를 따라 여러 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변화발전하여 왔는데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자평은 과거 년주 위주의 고법 사주학에서 일간 위주의 신법사주학을 창안한 후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옥조신응진경주』, 『명통부』 등을 저술하여 격국론을 주창하면서 격국에 따른 사주그릇의 크기와 운의 성패를 예단하였다. 정통사주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연해자평』에서는 서자평의 이론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사주의 실례를 넣고 격국론을 더욱 체계있게 발전시켰다. 『연해자평』에서 처음으로 종격을 주창했는데 『연해자평』은 사주학의 모든 격국론과 용신론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리정종』의 격국의 명칭은 『연해자평』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용신론에서 동정설, 개두설, 병약설 등 독창적인 여러 학설이 주창되었다. 『삼명통회』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이론들을 집대성하여 사주학의 각종 이론과 비결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러다보니 아주 방대한 체계를 갖추기는 했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난해한 면도 있다. 『명리약언』에서는 명리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격국용신론을 요약하면서 잡격을 배격하고 억부용신 한 가지만을 강

13) 김기승(2013), 『격국용신정해』, 다산글방, p. 19.

조하였는데 10정격과 중격, 화기격 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자평진전』은 『연해자평』의 육신론을 수용하여 순역용신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길신과 사흉신의 격을 구별하여 그에 따른 격국과 용신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적천수』에서는 『명리약언』의 이론을 수용하여 잡격을 배제(排除)하고 억부용신을 중시하였는데 특징적으로 종왕격, 종강격, 중기격, 종세격 등의 4종격을 주창하여 격국용신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궁통보감』에서는 열 개의 천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필요한 오행을 배정하여 설명하며 일간별로 기후의 배합에 따른 득실을 따진다. 『적천수』 이후에 서락오는 『자평수언』에서 억부(抑扶), 조후(調候), 병약(病弱), 통관(通關), 전왕(專旺)의 용신을 정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립하였다.¹⁴⁾ 위 고전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신의 활용은 사주를 운용하는 이론과 격국의 변천에 따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시대별로 사회적 가치관과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용신을 정하는 법이 변화를 해왔으며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격국용신 등을 설정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전에서의 격국용신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바 사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길흉판단의 핵심이 되는 용신의 이론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그중에 특히 『적천수』는 변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용신론에서 오행의 변화를 논하였고 『자평진전』은 용신론과 정격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오행의 상괰를 논하여 격국용신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궁통보감』은 계절과 기후가 중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조후론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서는 각기 독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이론과 용신법을 주장하고 있다. 사주해석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이론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나름의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면에 상호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현 시대에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서 각기 주장하는 용신론중의 하나만을 적용하여 사주를 감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고전의 전통적인 용신이론을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맞게 복합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주를 분석하고 운명을 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에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용신론을 중심으로 사주 해석

14)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3.

방법을 집중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적천수』의 연원 및 중요이론

1) 『적천수』의 연원

『적천수』는 『자평진전』, 『궁통보감』과 함께 명리학서 중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적천수』라는 제목은 최초로 『명사(明史)』 「예문지오행류(藝文志五行類)」에 「유기삼명기담적천수(劉基三命奇談滴天髓)」라는 서목(書目)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적천수』는 경도(京圖)가 찬(撰)하고 유기(劉基)가 주(註)했다는 의견과¹⁵⁾ 유기가 원문을 쓰고 경도라는 이름으로 가탁한 것이라는 의견이¹⁶⁾ 분분하다. 유백온은 휘(諱)가 기(基)이고 자(字)는 백온(伯溫)인데 1311년 절강성에서 출생하여 1333년 원(元)나라 순제(順帝) 원년(元年)에 진사에 급제하였다. 유백온은 처주부(處州府) 청전현(靑田縣) 사람으로 14세부터 부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매우 총명하여 특히 천문과 병법에 능통하였다. 원나라 말 여러 지방에서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나고 권신들은 정쟁에 여념이 없을 때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을 도와 명(明)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1368년 주원장이 황제에 오르고 1370년 홍문관 학사로 제수되고 11월에 성의백(誠意伯)으로 봉해졌으나 1371년 고향으로 낙향한 후 1376년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¹⁷⁾

『적천수』에는 여러 판본과 저자들이 있다.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는 경도(京圖)의 원문(原文)과 유백온(劉伯溫)의 원주(原註:古註)가 수록되었는데 1658년 청(淸)의 상국(相國) 진소암(陳素庵)이 편찬하였다.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는 경도(京圖)의 원문(原文), 유백온의 원주(原註:古註)와 임철초(任鐵樵)가 새로이 주석한 증주(增註:新註)로 이루어졌는데 1933년 원수산(袁樹珊)과 형원주인(衡園主人) 손씨(孫氏)가 간행하면서 천미(闡微)라는 제목을 붙였다. 『적천수정의(滴天髓徵義)』는 『적천수천미(滴

15) 임철초 증주, 원수산 편집(2006), 『적천수천미』, 대만 무릉출판유한공사, p. 7.

16) 서락오(1997), 『적천수보주』. 대만 무릉출판유한공사, p. 1.

17) 박헌구(2012), 「『滴天髓闡微』의 中和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3~25.

天髓闡微』의 내용 가운데 유백온의 원주(原註:古註)가 빠진 것인데 1935년(중화민국 24년) 서락오(徐樂吾)가 간행하면서 정의(徵義)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정의(徵義)에는 천미(闡微)에 없는 임철초(任鐵樵)의 증주가 일부 들어있다. 『적천수보주(滴天髓補註)』는 서락오(徐樂吾)가 적천수를 해설한 책이다.

『적천수』는 『명리약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잡격(雜格)을 배격하고 억부용신(抑扶用神)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육친(六親)에 있어서는 육효(六爻)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풍부한 실례와 통변(通辯)의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 특징이다.

2) 적천수의 중요이론

『적천수』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4종격(四從格)이다. 4종격은 종왕격(從旺格), 종강격(從強格), 종기격(從氣格), 종세격(從勢格)을 말한다.

종왕격(從旺格)은 사주가 거의 비겁(比劫)으로 구성되고 관살의 제화가 없어 왕성함이 극에 이르면 비겁을 따르는 격을 말한다. 종강격(從強格)은 사주에 인성(印星)이 가득하고 일주(日主)가 당령(當令)하면서 식재(食財)가 전혀 없을 때 인성을 따르는 격을 말한다. 종기격(從氣格)은 식, 재, 관, 인수를 막론하고 사주의 오행이 금수(金水)에 치우쳐 있거나 목화(木火)에 치우쳐 있을 때 그 치우친 오행에 따르는 격을 말한다. 종세격(從勢格)은 일주가 뿌리가 없고 사주에 식, 재, 관이 모두 왕성하면 그 왕성한 식, 재, 관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4종격의 이론은 격국론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천수』의 내용중에서 격국에 관계되는 핵심이론을 정리하여 보면 내격은 편인, 정인,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의 8개의 격으로 구분하고 외격은 종왕(從旺), 종강(從強), 종아(從兒), 종재(從財), 종살(從殺)의 5개의 종격(從格)과 곡직(曲直), 염상(炎上), 가색(稼穡), 종혁(從革), 윤하(潤下)의 5종류의 일행득기격(日行得氣格) 그리고 갑기합(甲己合), 을경합(乙庚合), 병신합(丙辛合), 정임합(丁壬合), 무계합(戊癸合)의 다섯 종류의 화기격(化氣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양신성상격(兩神成相格)이나 신살양정격(身殺兩停格) 그리고 양인격(羊刃格)과 건록격(建祿格) 등을 들을 수 있다. 아래에 『적천수』의 핵심 이론들을 적천수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격국론(論格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財官印綬分偏正，兼論食傷格局定.(재관인수분편정, 겸론식상격국정)

影響遙繫既爲虛，雜氣財官不可拘.(영향요계기위허, 잡기재관불가구)

官殺相混來問我，有可有不可.(관살상혼래문아, 유가유불가)

傷官見官果難弁，可見不可見.(상관견관과난변, 가견불가견)¹⁸⁾

이는 격국을 정함에는 재성과 관성, 인성은 편, 정으로 나누고 식신, 상관을 구별 하니 편인, 정인,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의 8개로 격국을 정한다. 또한 격국을 정하는데 천간이든 지지든 바로 옆에 나란히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 원합, 원충은 모두 작용력이 없으니 취하지 않으며 월지는 그 계절을 취해야만 하고 잡기재관 같은 것에 구애되어 격을 잡아서서는 안 된다. 관살혼잡의 명이나 상관견관의 사주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관살혼잡(官殺混雜)은 대부분 나쁘지만 가을과 겨울의 庚金일주는 아닐 수도 있다. 특히 庚金일주가 신왕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럴 경우는 丁火로 제련하고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모두 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甲 庚 丁 丙

申 申 酉 戌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卯 寅 丑 子 亥 戌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酉월에 출생하여 군겁쟁재(群劫爭財)가 심한데 일간이 뿌리가 없다. 재(財)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살이 꼭 필요하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하여 당대에 커다란 부(富)를 이룬 사람이다.

또한 상관견관도 보통 매우 꺼린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니 甲日의 丁火 상관은 반

18)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64.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p. 235~279.

드시 庚金이 필요하고, 丙日의 己土 상관은 반드시 癸水가 필요하며 壬日의 乙木 상관
은 반드시 戊土가 필요하고 癸日의 甲木 상관은 반드시 己土가 필요한 경우 등이 그러
하다

時 日 月 年
庚 甲 丁 甲
午 寅 卯 申

甲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戊 酉 申 未 午 巳 辰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卯月에 출생하여 비겁이 태과하다. 월상 丁火로 목화통명
(木火通明)을 이루는데 庚金으로 벽갑인화(劈甲引火)를 시키니 묘용(妙用)이 있는 경
우이다.¹⁹⁾

둘째, 종화론(論從化)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從得眞者只論從, 從神又有吉和凶.(종득진자지론종, 종신우유길화흉)
化得眞者只論化, 化神還有幾般話.(화득진자지론화, 화신환유기반설)
眞從之象有幾人, 假從亦可發其身.(진종지상유기인, 가종역가발기신)
假化之人亦可貴, 孤兒異性能出類.(가화지인역가귀, 고아이성능출유)²⁰⁾

이는 종격(從格)을 이룬 사주는 종하는 오행을 논하고 종신(從神)에 의하여 길과
흉이 나타나니 종한 오행을 따라야 한다. 화기격(化氣格)을 이룬 사주는 화(化)한 오
행만을 논하고 화신(化神)에 기반을 뒀야 한다. 가종격(假從格)이라 해도 종하는 운에
는 귀명이 될 수 있다. 가화격(假化格)의 사주 또한 귀할 수 있으며 진화격이라도 고
아이성(孤兒異性)이 능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67~69.

20)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p. 304~327.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71.

時 日 月 年
甲 辛 乙 戊
午 亥 卯 寅

戊 己 庚 辛 壬 癸 甲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從하는 운에 발복하고 逆하는 운에 패망한 경우로 일간 辛金이 뿌리가 없고 인성 戊土도 뿌리가 없는데 지지에 寅卯亥로 채성이 삼합, 방합, 육합으로 재국(財局)을 이루니 종재격으로 水, 木, 火가 길하고 土, 金은 대흉하다. 대만의 유명한 기생출신으로 거부(巨富)의 정실부인이 된 사람이다. 甲寅, 癸丑 대운 20세까지 의사 집안의 딸로 잘 살았으나 丑대운 庚子년에 부친이 사망하고 집안이 망하여 辛丑년에 기원(妓院)으로 들어갔다. 壬대운 癸卯년에 재벌의 정실부인이 되어 팔자를 고쳤으나 庚戌대운에 집안이 다시 망하고 己 대운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의 사주이다.²¹⁾

그리고 화기격(化氣格)의 사주를 아래와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甲 壬 丁 甲
辰 辰 卯 戊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大운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卯월에 출생하여 丁壬합을 하였다. 월지가 卯월이고 사주에 木의 기운을 거스르는 金의 기운이 없어 丁壬合化木格이 된다. 辰중의 癸수가 일간 壬水의 뿌리가 될 수도 있었으나 卯辰합, 辰戌沖으로 뿌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甲木의 뿌리가 되니 진화격(眞化格)이 된다.

또한 화기격이 안 되는 사주의 예는 아래와 같다.

21)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76~77.

時 日 月 年

辛 丙 戊 庚

卯 寅 子 戌

壬 癸 甲 乙 丙 丁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丙辛합을 하였는데 월지가 子월이므로 화 기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천간에서 戊土가 土剋水하고 戊중의 丁火가 일간 丙火의 뿌리가 되며 일지에서 寅木이 木生火를 하니 합변(合變)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격에 기준하여 취용하면 된다.²²⁾

셋째, 체용론(體用論)과 정신론(精神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道有體用 不可以一端論也, 要在扶之抑之得其宜.(도유체용 불가이일단논야, 요재부지억지득기의)²³⁾

人有精神 不可以一偏求也, 要在損之益之得其中.(인유정신 불가이일편구야, 요재손지익지득기중)²⁴⁾

‘도(道)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어 한 가지만을 논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돕고 억제하여 마땅함을 얻음에 있다’ 는 체용론을 해석하면 사주의 성패를 결정하는 데는 사주원명과 행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으로 운명을 논해서는 안되는데 그 요체는 행운에서 사주의 용신을 부조하고 기신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또 ‘사람에게는 정신(精神)이 있어 어느 하나 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덜어내고 보태주어 중화를 얻는데 있다’ 는 정신론을 해석하면 사주에서는 음양과 오행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며 木, 火 또는 金, 水로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나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보태주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사주도 대운이 나쁘면 고생과 실패로 일관하고 나쁜 사주

22)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76~80.

23)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85.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 369.

24)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p. 371~372.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90.

도 행운이 좋으면 편안하고 발복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선은 사주 원명이 좋고 봐야 하니 사주의 격국에 의해 이미 부귀빈천의 심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체용론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주가 있다.

時 日 月 年
丁 乙 辛 癸
亥 酉 酉 未

乙 丙 丁 戊 己 庚 대운
卯 辰 巳 午 未 申

위 사주는 대만의 염석산의 사주로 乙木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여 편관격의 신약한 命으로 年干의 癸水로 억부용신하여 살인상생(殺印相生)을 시키고 時干의 丁火로 조후용신하여 식신제살(食神制殺)을 하고 있다. 癸水와 丁火 때문에 종살격(從殺格)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편관격으로 아주 성격(成格)이 잘된 대귀한 명이다. 20세부터 일생 대운이 木, 火운으로 흘러 대만의 행정부장관을 역임하며 번영할 수 있었다.²⁵⁾

정신론(精神論)에서 음양과 억부의 배합이 안 맞는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辛 乙 丁 甲
巳 卯 卯 辰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卯月에 출생하여 신강한데 이 사주 또한 전체적으로 사주에

25)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85~86.

木, 火가 많고 金, 水가 약하다. 억부용신으로 辛金을 써야 하는데 월간의 丁火에 극제 당하고 지지의 巳, 卯, 辰에 사(死), 절(絶), 묘(墓) 되어 용신이 무력하게 되었다. 수운(水運)은 음양의 배합은 되나 억부가 틀어진다. 결국 음양과 억부의 배합이 안맞는 사주이다. 남편과 이혼 후 미모를 자랑하며 여러 남자와 염문을 뿌리고 다니는 여자이다.

정신론에서 음양과 억부의 배합이 안 맞는 사주를 하나 더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庚 壬 甲 癸
戊 子 子 卯

庚 己 戊 丁 丙 乙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매우 신강한 양인격(羊刃格)의 사주로 전체적으로 사주에 金, 水와 木, 火의 균형이 안 맞는다. 월간의 甲木 식신으로 설기할 수도 있고 시지의 관성 戊土로 억제할 수도 있으나 사주에 火오행이 없어 모두 무력(無力)하게 되었다. 무속을 하며 상담업을 하는 여자의 사주이다.

넷째, 중화론(論中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能識中和之正理，而於五行之妙，有全能焉(능식중화지정리, 이어오행지묘, 유전능언)²⁶⁾

이는 중화의 올바른 이치를 알게 되면 오행의 묘리를 터득함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체용(體用), 정신(精神), 쇠왕(衰旺), 중화(中和) 등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오행에 대한 억부의 회기(喜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화를 잘 이룬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26)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96.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p. 389~390.

時 日 月 年
戊 甲 甲 甲
辰 子 戌 戌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戌月에 출생하였다. 편재격의 사주가 비견(比肩)이 강하게 투간하여 매우 흥한 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木 오행과 土 오행이 중화(中和)를 잘 이루어 신왕재왕(身旺財旺)한 사주가 되니 부유한 명이 되었다.

반대로 중화를 잘 이루지 못한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庚 庚 丁 乙
辰 戌 亥 丑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巳 午 未 申 酉 戌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亥月에 출생하여 한습하다. 천간에 庚金이 둘 있고 지지에 丑, 戌, 辰으로 인성이 강하니 신강(身強)하여 년간의 丁火로 억부 및 조후용신하고 乙木으로 丁火를 도우니 매우 좋은 사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亥月の 乙木은 무력하여 亥月の 丁火를 생조(生助)할 수 없으니 무력한 丁火가 일간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사람은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를 나다닐 수도 없던 사람이다.²⁷⁾

다섯째, 청탁론(論淸濁)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27)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96~99.

一清到底有精神，官取平生富貴真。(일청도저유정신, 관취평생부귀진)
 淸濁求淸淸得去，時來寒谷也生春。(청탁구청청득거, 시래한곡역회춘)
 滿盤濁氣令人苦，一局淸枯也苦人。(만반탁기령인고, 일국청고야고인)
 半濁半淸無去取，多成多敗度晨昏。(반탁반청무거취, 다성다패도신혼)²⁸⁾

‘사주의 청기(淸氣)가 깊은 곳에서 나와 정신(精神)이 조화로우면 관직에 올라 일생 부귀가 끊이지 안 는다.’ 는 말은 사주가 아주 청하고 金, 水와 木, 火가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면 평생 부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주에 청탁(淸濁)이 함께 있으나 청(淸)을 구하여 나아가면 좋은 대운에 추운 골짜기에 봄이 오리라’ 는 말은 사주에 청과 탁이 함께 있을 때 행운에서 간헐 등으로 탁함이 제거될 때 발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만반에 탁기(濁氣)가 가득하면 괴로운 사람이며 사주가 청(淸)하다 해도 마른즉 괴로운 사람이라’ 는 이야기는 사주명식 전부가 탁하면 일생 고생을 하고 사주가 청하여도 사주에 水오행이 너무 약하면 역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끝으로 ‘반은 탁하고 반은 청한데 탁함을 제거하지 못하면 수시로 흥하고 수시로 망하리라’ 는 말은 청탁이 혼잡 되어 있는 사주는 항상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 청탁론에서 적천수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에는 오행의 강약이라는 문제 외에 청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청탁이라는 것도 격국이나 조후의 희기를 무시하고 그것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淸)한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戊 甲 甲 甲
 辰 子 戌 戌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재다신약(財多身弱)으로 잘못하면 탐재괴인(貪財壞印)이 될 수도 있는

28)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p. 396~397.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36.

사주이니 비겁으로 과도한 재를 극제해야 된다. 그런데 사주에 관살이 없어 청(淸)하게 되었다. 지지에서는 戌중에 辛金과 丁火가 있고 子와 辰에는 水와 木이 있으니 사주가 매우 청하고 정신(精神)이 있는 사주가 되었다.²⁹⁾

여섯째, 중과론(衆寡論)에서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抑强扶弱者常理, 用强捨弱者元機.(억강부약자상리, 용강사약자원기)³⁰⁾

이는 강한 오행은 억제하고 약한 오행을 도와주는 것은 내격의 일반적인 이치이다. 하지만 너무 강한 오행을 중하여 용신으로 하고 너무 약한 오행을 버리는 것은 외격의 특별한 법칙이라는 것이다. 종재격의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壬 戊 甲 癸
子 子 子 酉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연지 酉金이 水를 생하고 전체 사주가 水局을 이루어 종재격(從財格)이 되었다. 庚申, 辛酉대운에 큰 부를 얻었으나 己未, 戊午대운에 패망하고 사망하였다. 金水木運은 길하고 火土운은 흉한 경우이다.

일곱째, 순역론(順逆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順逆不齊也 不可逆者, 順其氣勢而已矣.(순역부재아 불가역자, 순기기세이기의)³¹⁾

29)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p. 136~140.

30)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56.

31)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p. 438.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05.

이는 ‘순(順)함과 역(逆)함은 서로 다르니 그 기세를 거역할 수 없으면 순응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순이란 태강(太強)한 오행에 따라 가는 것, 즉 종격사주를 말함이고 역이란 강한 오행을 극(剋) 하던가 설기(洩氣)하는 것으로 내격사주를 말하는 것인데 종격사주와 내격사주의 조건이 각각 다르니 억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오행은 그 기세를 따라 종격으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순역론은 위의 종화론과 같은 이론이다. 종격의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壬 己 庚 辛
 申 未 寅 亥

甲 乙 丙 丁 戊 己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일지 未土에 통근했으나 인성의 생을 받지 못하고 申金에 설기되고 寅亥合木하여 木剋土가 심하므로 종세격(從勢格)이 된다.³²⁾

時 日 月 年
 丙 壬 丁 甲
 午 寅 卯 午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壬水 일주가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전체 사주가 木火로 이루어져 종재격의 사주이다. 木火운은吉하고 金水운은凶하다. 土운에는 회비가 교차한다. 2014년 4월 1일 12시에 출생한 신생아의 사주이다.

32)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08.

여덟째, 월령론(月令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月令提綱 譬之宅也 人元用事之神 宅之向也 不可以不卜.

(월령제강 비지택야, 인원용사지신 택지향야 불가이불복)³³⁾

이는 월령(月令)은 提綱(제강)으로 비유하건데 집과 같은 것이며 지장간은 집의 방향과 같다. 그러므로 월률분야에 따라 월지장간의 기운을 결정해야 하니 이를 따지지 않고는 좋고 나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주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戊 甲 甲 甲 절입 9일째 출생

辰 子 戌 戌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적천수』 천간론의 갑목참천 탈태요화 춘불용금 추불용토(甲木參天 脫胎要火 春不容金 秋不容土)와 같아 토가 기신(忌神)이 된다. 재다신약(財多身弱)으로 잘못하면 탐재괴인(貪財壞印)이 될 수도 있는 사주이다. 그러나 戌월의 절입일 9일째 출생하여 金의 기운이 사령(司令)할 때이므로 천간의 戊土가 비록 지지에 뿌리가 강할지라도 실령을 하게 되어 土剋水가 잘 안되니 일간 甲木이 지지에서 충분히 生扶를 받아 木剋土하여 기신을 제압 할 수 있다. 만약 같은 甲子일 生이라도 절입일 13일 이후에 출생하였더라면 월지의 기운 戊土가 사령하여 土의 힘이 3배 이상 강해지므로 탐재괴인(貪財壞印)이 되어 천명(賤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辰, 戌, 丑, 未월은 절입일 후 12일을 기준으로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³⁴⁾

이상 원문을 중심으로 『적천수』 중요이론들을 고찰해 보았는데 『적천수』에서는 억부, 조후, 통관, 병약, 중화용신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 『적천수』 용신론의 특징

33)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17.

34) 鮑黎明(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p. 120.

은 강중적과(强衆敵寡)에 있으니 강한 것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순(順)함과 역(逆)함은 다르니 그 기세를 거역할 수 없으면 순응해야 한다고 하여 중화(中和)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오히려 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천수천미』에 거론된 사주는 종격(從格)으로 논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화론(論從化)등을 통하여 그 원칙에 따라 용신을 정하고 있는데 그 취용법(取用法)은 다음과 같다.

사주가 거의 비겁(比劫)으로 이루어지고 관살(官殺)의 극제(剋制)가 없이 인수(印綬)가 생하면 종왕격(從旺格)인데 이는 왕성함이 극에 달했으므로 그 왕(旺)한 오행을 따라 용신은 비겁과 인수가 된다. 그리고 사주에 인수가 가득하고 일주가 당령(當令)하면서 재관(財官)이 전혀 없을 때는 종강격(從強格)인데 이 경우는 인수와 비겁이 용신이 된다. 또한 식(食), 재(財), 관(官)을 막론하고 사주의 기세가 한 오행에 치우쳐 있을 때는 종기격(從氣格)인데 그 치우친 오행을 따라 용신을 정한다. 그리고 일주가 뿌리가 없고 사주에 식재관(食財官)이 모두 왕성하면 종세격(從勢格)으로 그 왕성한 세 오행의 기운을 따라 용신을 정하는데 세 오행이 서로 상극되지 않아야 하므로 관(官)과 식(食)의 다툼을 해소하고 통관하는 재성(財星)이 용신이 된다.

또 하나 『적천수』 용신론 중에는 신강한 사주는 관살로 극제하기 보다는 식상으로 설기(洩氣)시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왕(旺)한 것은 설기(洩氣)를 해야 편하지 극해서는 안 된다는 왕자의설불의극(旺者宜洩不宜剋)의 원리이다. 이는 신강한 사주에서 일단 관살(官殺)의 극제(剋制)를 우선했던 『연해자평』의 이론과는 상반되는데 사주학의 용신론을 한층 발전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천수』에는 비견과 겁재가 태왕(太旺)하여 사주의 세력을 장악한 경우 식상(食傷)과 인성(印星) 중에서 무엇을 용신으로 할 것인가, 재관(財官)을 어떤 경우에 용신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큰 세력을 가진 것은 그 것이 비견이나 겁재, 식신이나 상관, 재성이나 관성, 또는 인성을 막론하고 그 왕(旺)한 오행을 설기(洩氣)하는 것으로 용신(用神)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천수』의 주장이다.³⁵⁾

궁극적으로 『적천수』의 중심사상은 중화(中和)에 있는데 운명의 부귀빈천(富貴貧賤)과 길흉수요(吉凶壽夭)도 중화에서 오는 것이니 중화는 명리학의 핵심사상이다. 일반적으로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부귀하고 순탄하며 중화를 잃으면 빈천하고 곤궁하다

35) 김기승(2013), 『적국용신정해』, 다산글방, pp. 41~43.

고 보는데 인체의 질병마저도 오행의 태과(太過)나 불급(不及)에 있다고 본다.³⁶⁾ 이와 같이 중화는 인명(人命)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 대상과 원리는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나 한난조습(寒暖燥濕)의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 간에 강한 것은 덜어내고 약한 것은 더해주니 억부이며 사주가 조열(燥熱)하거나 한습(寒濕)하면 중화를 잃으니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조후이고 또한 만약 水와 火가 서로 대치하여 다투고 있을 때는 木으로 소통 시키니 통관이며 사주에 어느 한 오행이 태과하여 병이 될 때 이를 극제하여 다스리니 약이 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화인 것이다. 하지만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이 지나치게 왕(旺)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중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그 왕한 오행의 기세를 따라 순응하는 방법이 있으니 종(從)함으로써 오히려 화평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³⁷⁾

3. 『자평진전』의 연원 및 중요이론

1) 『자평진전』의 연원

『자평진전』의 원래 이름은 『자평수록(子平手錄)』으로 청나라 건륭황제 4년(1739년)에 진사(進士) 급제한 심효첨(沈孝瞻)³⁸⁾이 수고(手稿)한 것을 건륭(乾隆) 41년(1776년) 호공보(胡空甫)라는 사람이 책으로 간행하고 『자평진전(子平眞詮)』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 후 여러 판본들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판본은 광서 21년(1895년)에 조전여(趙展如)라는 사람이 간행한 것이다. 1936년에 중화민국의 방중심(方重審)과 서락오(徐樂吾)가 조전여의 판본을 장절(章節)을 재조정하여 다시 출판하

36) 박헌구(2012),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8.

37) 박헌구(2012),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8~49.

38) 심효첨의 본명은 沈澤燾으로 자(字)는 효첨(孝瞻)이고 호(號)는 산음(山陰)이다. 심효첨에 대한 출몰연대나 가문, 출생지 기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자세히 알 수 없었고 1739년 청나라 건륭황제 4년에 진사에 급제한 유학자로만 알려져 있다.

었는데 이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평진전』이다. 한글번역본은 1996년에 박영창이 도서출판 달과 별에서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評註)』 초판을 발행하였다. 호공보(胡空甫)가 간행한 『자평진전』 서문에는 다음과 서술되어 있다.

“무자(戊子)년에 내가 부공충보관(副貢充補官)으로 있으면서 부성문우(阜城門右)에서 동리의 장군안(章君安)과 절친하게 사귀게 되어 업무가 끝난 후에 군안과 함께 삼명(三命)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피차 심오한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의 기간이 되어 완평심명부서(宛平沈明府署)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산음(山陰) 심효첨 선생이 지은 『자평수록(子平手錄)』 39편을 얻어 읽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진작 발견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 책을 가져가 군안에게 보여주었더니 군안은 감탄하며 이것이야 말로 자평가의 진전이라고 말하였다. 심효첨 선생은 1739년 건륭(乾隆) 기미(己未)년에 진사가 된 분으로 깨달음이 크고 학문이 깊어 이론이 정미하고 밝았으며 변화에 통달한 분이였다. 『자평수록(子平手錄)』 39편은 용신의 성패득실, 용신이 성(成)한 것이 패(敗)하게 되고 패한 것이 성하게 되는 이치, 용신이 투출하고 회합하는 이치, 유정무정(有情無情)과 유력무력(有力無力)의 분별 등 의문점을 상세하게 풀어 놓았으며 선생께서 일생동안 심혈을 기울인 바를 모조리 이 책에 기록한 것이였다. 그 책에 매료된 군안은 그것을 목판에 새겨 출판하여 천하의 명을 논하는 사람들이 심오한 이치를 알게 하고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성현의 뜻을 책으로 만들어 널리 퍼게 되었으니 이 어찌 명을 논하는 군자들과 동호인들에게 행운이 아니겠으며 군안의 공이 아니겠는가? 이에 즐거운 마음으로 서문을 쓰는 바이다.”³⁹⁾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호공보가 부공충보관(副貢充補官)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삼명통회』의 저자인 만민영이 1550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였고 『자평수록』의 저자인 심효첨(沈孝瞻)이 1739년 진사에 급제한 사람인 것을 참고한다면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를 오며 사대부(士大夫)층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평명리학이 광범위하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자평진전』은 『자평수록삼십구편』의 원제에서 보듯이 원래 39편으로 되어있던 것을 후일에 서락오가 『자평진전평주』에 삽입한 2, 4, 5장의 3편 이외에도 여러 곳이 첨가되고 편집되어 총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본 『자평진전』의 내격은 총 8격으로서

39) 『자평진전』(1985), 대만 서성서국, pp. 1~2.

40)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8.

편관격, 정관격, 편재격, 정재격, 편인격, 정인격, 식신격, 상관격이다. 그러나 서락 오는 『자평진전평주』에서 정인 편인을 나누지 않고 인수격이라 하였고 정재와 편재 역시 나누지 않고 재격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월령을 차지한 일주의 동기(同氣)인 양인격과 건록격까지 추가하여 정관격, 재격, 인수격, 식신격은 4길신, 편관격, 상관격, 양인격, 녹겁격은 4흉신으로 자평진전 원문과 다르게 내격을 8격으로 하였다.

2) 『자평진전』의 중요이론

현대 사주명리학의 대강(大綱)은 일간을 중심으로 강약을 구분하여 중화(中和)를 추구하는 억부론 위주의 『적천수』 이론과 일간과 월지를 대비하여 격국을 구분하고 그 성패를 조절하는 격국용신 위주의 이론인 『자평진전』 이론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속에 내재된 계절적 변화와 흐름으로 길흉을 찾고자 하는 자연법론인 조후론 위주의 『궁통보감』 이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중에 심효침의 『자평진전』은 사주에서 월령은 그 사주체의 선천적 특성이고 그것이 일간의 사회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용신 [현대적 의미의 격국] 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용신 [격국] 을 일간과 대비하여 조절하고 중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사주의 길흉을 관장하는 요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성패에만 중점을 두어 일간의 강약에 따른 억부의 중화작용을 애매하고 이해가 어렵게 만든 면이 있다. 일간의 강약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막연히 ‘일간이 약하지 않으면’ 혹은 ‘일간도 강하면’ 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간의 강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따라서 부득이 격국의 성패(成敗) 외에 일간의 강약에 따른 중화의 조절을 별도로 보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자평진전』은 격국론을 다룬 이론서로서 높이 평가 되며 명리학에서는 중요한 필독서이지만 본서의 내용에는 격국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사주원국에 대한 내용과 운을 보는 법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다. 하지만 월령 [格局] 의 용신인 상신(相神)을 두어 월령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법칙을 세운 『자평진전』은 사주명리학에 있어 격국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이론서로 순역용신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세웠다.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을 4길격(四吉格)과 4흉격(四凶格)으로 구별하고 그에 따라

격국과 상신을 정하는 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정관(正官), 재성(財星), 정인(正印), 식신(食神)은 4길신이고, 칠살(七殺), 상관(傷官), 양인(陽刃), 편인(偏印)은 4흉신이다. 4길신은 순용(順用)하고 4흉신은 역용(逆用)하는 원리가 『자평진전』의 핵심 이론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용신을 순역용신(順逆用神)이라고 하며 달리 격국용신(格局用神)이라고도 부른다. 『자평진전』에서는 월지 정기(正氣)를 위주로 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출(透出)된 월지 지장간(支藏干)이나 지지의 합국(合局)을 보조적으로 참고하여 격을 구분한다.

격국(格局)의 순용이란 오행의 관계에서 상생(相生)하는 것으로 상신(相神)을 쓰는 것이고 역용이란 오행의 관계상 상극하는 것을 상신으로 쓰는 것이다. 4길신의 격이 순용되거나 4흉신의 격이 역용되면 성격(成格)이 되고 그와 반대이면 파격(破格)이 된다. 『연해자평』에서는 정관(正官)은 좋고 칠살(七殺)은 나쁘다고 했을 뿐이지만 정관격(正官格)과 칠살격(七殺格)이 다른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운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자평진전』에 와서 격국과 상신의 관계를 밝혀 놓고 있다. 순용과 역용을 주장하고 있는 『자평진전』에서는 성격과 파격의 이론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평진전』의 핵심 이론은 격국에 따르는 순역용신(順逆用神)이다. 이에 아래에 『자평진전』의 핵심이론들을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용신(用神:格局)을 논함’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만 구하는데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여 생극관계에 따라 격국이 구분되는 것이다. 재성(財星), 정관(正官), 정인(正印), 식신(食神)은 4길신(吉神)이니 순용(順用)하고 칠살(七殺), 상관(傷官), 겁재(劫財), 양인(羊刃)은 4흉신이니 역용한다. 순용할 것은 순용하여 주고 역용할 것은 역용하여 주어 사주 구성이 좋으면 모두 귀격이 된다고 했다.⁴¹⁾

4길신은 순용을 하는데 재격이 좋아하는 것은 식신으로써 생재하거나 관성으로 재를 보호하는 것이며 정관격이 좋아하는 것은 투출된 재로써 관성을 생을 하여주는 것과 인성으로 관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다. 인수격이 좋아하는 것은 관으로 생을 받고 겁재로 인성을 보호해주는 것이며 식신격이 좋아하는 것은 신왕한 일간의 생을 받아 재

41) 이을로(2009), 『자평진전강해』, 동학사, p. 168. "八字用神은 專求月令, 以日干配月令地支, 而生剋不同. 格局分焉, 財官印食, 此用神之喜而順用之者也. 煞傷劫刃, 用神之不善而逆用之者也, 當順而順, 當逆而逆, 配合得宜, 皆爲貴格."

(財)를 생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4흉신은 역용을 한다. 즉 칠살격이 좋아하는 것은 식신제살 되는 것인데 재가 칠살을 생해주면 나쁘며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도 꺼린다. 상관격이 좋아하는 것은 인성으로써 제화하고 재성이 있어 상관이 재(財)로 화하는 것이다. 양인격이 좋아하는 것은 관살로 제복을 받는 것인데 관살이 없는 경우는 나쁘다. 월겁격은 투간이 된 관으로써 제복을 받는 것이 좋고 재성을 쓸 때는 투간이 된 식신으로 겁재의 기운을 설기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순용과 역용의 대략이다.⁴²⁾

사주를 볼 때는 먼저 용신 [격] 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순용도 하고 역용도 하는 것인데 연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면 부귀빈천을 알 수 있다.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잡되게 용신 [격] 을 구하는 것은 거짓을 취하고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로지 월령을 주로 보고 그 후에 사주 간지를 하나하나 모두 월령에 대입하여 회기를 보면 되는 것을 모른다. 그러니 정관격이 인수를 만난 경우를 보고 관인쌍전이라 여겨 인수격이 관성을 만난 것과 같이 보고, 재격에 식신이 있는 경우를 재격이 식신의 생조를 받았다고 보지 않고 식신격에 재가 있는 식신생재격과 같이 생각한다. 또 편인격에 식신이 있는 경우를 보고 식신으로 잘 설기하여 성격(成格)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식신격이 편인을 만난 것과 같이 여겨 편인도식(偏印倒食)이 되어 나쁘니 재성으로 편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하며 칠살격을 식신으로 제살할 때 인성이 투출한 경우를 식신을 제거하여 파격(破格)이 되어 나쁘다고 하지 않고 살인상생(殺印相生)이라 여겨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같이 본다. 또 칠살격에 양인(羊刃)이 있는 경우를 양인이 일간을 도와 칠살을 제거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칠살로 양인을 제재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와 같이 여긴다. 이것은 모두 월령을 기준하여 용신 [격] 을 잡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잡되게 용신 [격] 을 취하기 때문이다. ⁴³⁾

42) 김정혜·서소옥·안명순역(2011), 심효침저, 『자평진전:원전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59~60. "是以善而順用之. 則財喜食神以相生, 生官以護財, 官喜透財以相生, 生印以護官, 印喜官煞以相生, 劫財以護印, 食喜身旺以相生, 生財以護食. 不善而逆用之. 則七煞喜食神以制伏, 忌財印以資扶, 傷官喜佩印以制伏, 生財以化傷, 陽刃喜官煞以制伏, 忌官煞之俱無, 月劫喜透官以制伏, 利用財而透食以化劫. 此順逆之大略也."

43) 박영창譯(2007), 심효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27~128. "凡看命者, 先觀用神之何屬, 然後或順或逆. 以年月日時逐干逐支, 參配而權衡之, 則富貴貧賤自有一定之理也. 不向月令求用神, 而妄取用神者, 執假失真也. 今人不知專主提綱. 然後將四柱干支, 字字統歸月令以觀喜忌. 甚至見正官佩印, 則以爲官印雙全, 與印綬用官者同論. 見財透食

그러나 월령에 용신 [격] 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예를 들어 목(木)일간이 寅, 卯 월에 태어났으면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이니 자기 자신과 같은 겹재는 용신 [격] 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주에 재성, 관살, 식상이 천간에 투출 되었거나 지지에서 합국을 이루었는가의 유무를 살펴보고 별도로 용신 [격] 을 잡는다. 궁극적으로 월령에서 용신을 잡는데 만약 월령에서 용신을 못잡으면 그때 다른 용신을 잡는 것으로 건록격과 월겹격이 그러한 것이니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⁴⁴⁾

월령에서 용신을 잡고 4길신과 4흥신에 따라 순용한 사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時 日 月 年

乙 壬 壬 丙

巳 申 辰 子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戊 酉 申 未 午 巳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辰月에 출생하여 지지에 申子辰 水局을 이루고 비견 壬水가 월간에 투출하여 비견격으로 너무 신강하다. 비견격은 관성으로 극제 하거나 관성이 없을 때는 식상으로 설기하여 성격을 시키니 시간에 투출한 乙木을 상신으로 삼는다. 대만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왕극민의 사주다.⁴⁵⁾

월령에서 용신 [격] 을 잡고 4길신과 4흥신에 따라 역용한 사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神，不以爲財逢食生，而以爲食神生財．見偏印透食，不以爲洩身之秀，而以爲梟身奪食，宜用財制，與食神逢梟同論．見煞逢食制而露印者，不爲去食護煞，而以爲煞印相生，與印綬逢煞者同論．更有煞格逢刃，不以爲刃可幫身制煞，而以爲七煞制刃，與陽刃露煞者同論．此皆由不知月令而妄取用神論之故也．"

44)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29. "然亦有月令無用神者，將若之何．如木生寅卯，日與月同，本身不可爲用，必看四柱有無財官煞食透干會支，別取用神．然終以月令爲主，然後尋用，是建祿月劫之格，非用而即用神也．"

45)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19.

時 日 月 年

乙 癸 丁 己

卯 丑 丑 卯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未 酉 申 戌 亥 子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丑月에 출생하고 년간에 己土가 투출하여 편관격이다. 편관격은 4홍신이므로 乙木 식신을 상신으로 삼아 칠살을 억제하여야 한다. 월령의 살이 너무 강하여 역용하는 것을 상신으로 삼은 경우이다. 대만의 행정원장을 지낸 담연개의 사주이다.⁴⁶⁾

둘째, ‘용신(用神)의 성패(成敗)와 구응(救應)을 논함’에는 다음과 같이 성격과 파격의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여져 있다.

용신 [격]은 반드시 월령에서 구하는데 사주에는 반드시 성패(成敗)가 있다. 어떤 경우를 성격(成格)이 되었다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 정관격이 재성과 인성을 만나고 또 충(沖), 형(刑), 파(破), 해(害) 등이 사주에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成格)된 것이다. 그리고 월지가 재성이고 재가 관을 잘 생하거나 혹은 식신이 재를 잘 생하고 비견을 동반하여 신강하거나 혹은 재격인데 인성이 투간 하였으나 재와 인성이 서로 극하지 않도록 위치가 적절할 때는 재격이 이루어졌다 한다. 또한 월지가 인성이고 인성이 약한데 관살의 생조를 받거나 또는 관인쌍전(官印雙全)하거나 혹은 일간과 인성이 모두 왕(旺)해 식상으로 설기 하거나 또는 인성이 태과한데 재를 만났을 때나 재가 투간(投干)되었으나 뿌리가 약할 때 인수격(印綬格)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월령이 식신인데 식신격이 재(財)를 보거나 혹은 식신격이 칠살을 동반하고 있을 때 재성이 없거나 식신을 버리고 칠살을 취해야 하는데 이때 인성이 투간되어 있으면 식신격이 성립된다. 월령이 칠살인데 식신의 제복을 받으면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 월령이 상관인데 상관이 재를 보거나 혹은 상관이 왕하고 상관패인(傷官佩印)되었는데 인성이 통근 하였거나 또는 상관은 왕한데 일간이 신약할 때 투간된 칠살과 인수가 있거나 혹은 상관격이 칠

46)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19.

살을 동반하고 있는데 재가 없으면 상관격이 성격된다. 양인격에 관살이 투간 되거나 재성과 인수가 드러나 있으며 상관이 없으면 양인격이 성격된다. 월령이 일간의 건록이나 겁재일 경우에 관성이 투간 되고 재성과 인수를 만나거나 혹은 재성이 투간되고 식상을 만나거나 혹은 칠살이 투출하여 비겁이 제복이 된 경우는 건록격이나 월겁격이 성격이 된 것이다.⁴⁷⁾

무엇을 패(敗)라고 하는가? 정관격이 상관의 극을 받거나 刑沖이 되면 패하여 파격이 된다. 재격이 비겁(比劫)이 많은데 재성이 약하거나 재격에 칠살이 투출하고 있으면 파격이다. 인수격이 인수가 약한데 재를 만나거나 또는 신강하고 인수가 중(重)한데 칠살이 투간되면 파격이다.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거나 혹은 재와 칠살이 함께 드러나 있으면 파격이다. 칠살격이 재를 만나 재생살이 되고 식신의 제복함이 없으면 파격이다. 금수상관격(金水傷官擊)을 제외하고 상관격이 정관을 보거나 혹은 재를 생하고 칠살이 있거나 혹은 상관이 약한데 인수(印綬)를 동반하여 신왕하면 상관격의 파격이다. 양인격이 관살이 없으면 파격이다. 건록격이나 월겁격이 재관이 없거나 칠살 인수가 투출하면 파격이 된다. ⁴⁸⁾

성격(成格)이 파격(破格)으로 변하는 것은 반드시 기신(忌神: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것은 구응(救應)의 신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일러 꺼리는 것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정관격이 재성을 보아 성격이 되었지만 다시 상관을 만났거나 투출된 정관이 합이 되었거나, 재가 왕(旺)하게 정관을 생하지만 다시 상관을 만났거나 정관이 합을 당하는 경우, 인수격이 천간으로 투출된 식신으로 설기하여 성격

47) 김정혜·서소옥·안명순역(2011), 심효첨저, 『자평진전:원전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 64. “用神專尋月令，以四柱配之，必有成敗。何謂成。如官逢財印，又無刑沖破害，官格成也。財生官旺，或財逢食生而身強帶比，或財格透印而位置妥帖，兩不相剋，財格成也。印輕逢煞，或官印雙全，或身印兩旺而用食傷洩氣，或印多逢財而財透根輕，印格成也。食神生財，或食帶煞而無財，棄食就煞而透印，食格成也。身強七煞逢制，煞格成也。傷官生財，或傷官佩印而傷官旺，印有根，或傷官旺身主弱而透煞印，或傷官帶煞而無財，傷官格成也。陽刃透官煞而露財印，不見傷官，陽刃格成也。建祿月劫，透官而逢財印，透財而逢食傷，透煞而遇制伏，建祿月劫之格成也。”

48)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36~137. “何謂敗。官逢傷剋刑沖，官格敗也。財輕比重，財透七煞，財格敗也。印輕逢財，或身強印重而透煞，印格敗也。食神逢梟，或生財露煞，食神格敗也。七煞逢財無制，七煞格敗也。傷官非金水而見官，或生財而帶煞，或佩印而傷輕身旺，傷官格敗也。陽刃無官煞，刃格敗也。建祿月劫，無財官，透煞印，建祿月劫之格敗也。”

하려는데 다시 재가 투출되었을 경우, 투출된 칠살로 인수를 생하여 성격을 하는데 다시 재성이 있어 인수를 극제하여 칠살만 남게 되는 경우, 식신격에 인수와 칠살이 있는데 다시 재성을 만나는 경우, 칠살격을 식신으로 제살하여 성격하는데 인성을 만나는 경우, 상관생재격인데 재성이 합거(合去) 되는 경우, 인성이 용신인데 그 인성이 피상을 당하는 경우, 양인격에 정관이 투출하여 성격을 이루는데 그 정관이 피상을 당하는 경우, 양인격에 칠살이 투출했으나 투출된 칠살이 합거가 된 경우, 건록격이나 월겁격에 정관으로 성격하는데 투출된 정관이 다시 상관으로부터 피상을 당하는 경우나 투출된 재가 다시 칠살을 만나면 이 모두가 꺼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⁴⁹⁾

무엇을 구응(救應)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정관격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투출하여 상관을 극제해 주는 경우, 정관과 칠살이 혼잡한데 합살이 되어 사주가 청하게 된 경우, 정관이 형충이 되었어도 회합으로 형충을 풀어주는 경우, 재격이 겁재를 만나 파격이 되었는데 이 때 식신이 또 투출하여 겁재를 제화하거나 또는 정관이 투출하여 겁재를 극제하는 경우, 재격이 칠살을 만났을 때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생하거나 또는 재성만 남기고 합살을 하는 경우, 인수격이 재를 만나 파격이 되었는데 겁재가 그것을 해결해주거나 혹은 재성이 합거되고 인수만 남는 경우,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 파격이 되는데 살인상생이 되어 다시 성격이 되거나 또는 재성이 편인을 극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 칠살이 식신의 제압을 만났는데 인수가 와서 칠살을 보호하고 재성이 있어 그 인수를 조절하고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 상관생재격에 칠살이 투출되었는데 칠살이 합거가 되는 경우, 양인격에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하여 나쁠 때 인수가 식상을 극해주어 관살을 보호하는 경우, 건록격이나 월겁격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상관을 만나 파격이 될 때 상관이 합거가 되는 경우, 재를 용신 하는데 칠살이 투출하여 파격이 될 때 칠살이 합거 되는 경우들을 일컬어 구응이라 한다. 팔자의 묘용은 모두 성패와 구응에 있으니 그 가운데 경중을 잘 살펴서 활용해야 한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고 유념한다면 능히 수많은 변화 속에서 바른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⁵⁰⁾

49)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39~139. "成中有敗, 必是帶忌, 敗中而成, 全憑求應. 何謂帶忌. 如正官逢財而又逢傷, 透官而又逢合, 財旺生官而又逢傷逢合, 印透食以洩氣, 而又遇財露, 透煞以生印, 而又透財, 以去印存煞, 食神帶煞印而又逢財, 七煞逢食制而又逢印, 傷官生財而財又逢合, 佩印而印又遭傷, 陽刃透官而又被傷, 透煞而又被合, 建祿月劫透官而逢傷, 透財而逢煞, 是皆謂之帶忌也."

성중유패(成中有敗) 패중유성(敗中有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時 日 月 年

丙 丙 丙 己

申 寅 子 卯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午 未 酉 申 戌 亥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재성인 申金이 재생관을 하고 인성인 寅, 卯木이 관인상생으로 정관을 보필하니 정관격이 되었다. 그러나 지지에서 정관격의 성격(成格) 요소인 재와 인수가 인신충(寅申沖)이 되어 상신(相神)이 둘 다 상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관격의 사주가 년간에 기토가 투출하였으니 파격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성중유패가 되었다.⁵¹⁾

時 日 月 年

己 壬 丙 丁

酉 寅 午 亥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子 丑 寅 卯 辰 巳

위 사주는 지지에서 寅午火局을 이루고 丙, 丁火와 정관 己土가 천간에 투출하였는

50) 박영창譯(2007), 심효점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45~146. "何謂救應. 如官逢傷而透印以解之, 雜煞而合煞而清之, 刑沖而會合以解之, 財逢劫而透食以化之, 生官以制之, 逢煞而食神制煞以生財, 或存財而合煞, 印逢財而劫財以解之, 或合財而存印, 食逢梟而就煞以成格, 或生財以護食, 煞逢食制, 印來護煞, 而逢財以去印存食, 傷官生財透煞而煞逢合, 陽刃用官煞帶傷食而重印而護之, 建祿月劫用官, 遇傷而傷被合, 用財帶煞而煞被合, 是謂之求應也. 八字妙用, 全在成敗救應, 其中權輕權重, 甚是活潑. 學者從此留心, 能於萬變中融以一理, 則於命之一道, 其庶幾乎."

51) 박영창譯(2007), 심효점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42~143.

데 午月에는 일간 壬水가 휴수(休囚)하고 재관이 지나치게 왕성하니 신약한 일간이 재관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년지에 일간의 녹(祿)인 亥가 있고 시지에 酉金 인수가 있어서 일간을 도우니 이를 용신으로 삼아 패중유성이 되었다. 대만의 외무부장관을 지낸 오조추의 사주다.⁵²⁾

구응(救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時 日 月 年
丁 庚 己 丁
亥 子 酉 巳

癸 甲 乙 丙 丁 戊 대운
卯 辰 巳 午 未 申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여 양인격이므로 丁火 정관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정관이 좌우로 중첩되어 귀할 수 없다. 그런데 년간의 정관 丁火가 己土를 사이에 두고 일간과 떨어져 관인상생이 되어 정관의 중첩으로 인한 혼잡을 면하게 되었다. 고로 오직 시간의 丁火를 용신으로 삼는데 대운이 용신인 정관을 돕자 각료가 되었다. 이 사주에서는 己土가 구응지신(救應之神)이다.⁵³⁾

셋째, ‘용신(用神)의 변화(變化)를 논함’에서는 격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용신 [격국] 은 월지를 기준하여 정한다. 하지만 월지의 지장간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용신 [격국] 에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십이지지 가운데에는 卯午酉子를 제외하고는 지장간이 모두 둘 이상 있고 진(辰), 술(戌), 축(丑), 미(未)는 말할 것도 없다.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甲은 본기이니 군(郡)에 부(府, 지사, 군수)가 있는 것과 같고 丙은 그의 장생이니 군에 동지(同志, 부지사, 부군수)가 있는 것과 같으며

52)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44.

53)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49.

戊도 역시장생이니 군에 통판(通判, 감독관)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寅이 월령에 있을 지라도 甲이 투출하지 않고 丙이 투출하였다면 곧 지부(知府, 지사, 군수)가 군에 부임하지 않고 동지(同志, 부지사, 부군수)가 대신 지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리하여 용신 [격국] 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⁵⁴⁾

예를 들어 丁火 일간이 亥 월에 태어났으면 본래는 정관격이나 지지에 卯, 未가 있다면 亥卯未合木이 되어 인수격이 된다. 또 己土 일간이 申월에 출생하였으면 원래는 상관격인데 지장간 가운데 庚金은 투출하지 않고 壬水가 투출하였다면 상관격이 변해서 정재격이 된다. 이와 같이 지지의 회합이나 천간으로의 지장간 투출에 의하여 사주의 격이 변하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용신 [격국] 의 변화이다.⁵⁵⁾

좋게 변화하면 그 사주의 격은 더 좋아지고 나쁘게 변화하면 그 사주의 격은 더 나빠진다. 무엇을 일러 격이 변화하여 좋게 되었다고 하는가? 예를 들어 辛金 일간이 寅월에 출생하였는데 지장간 중에 丙火가 투출하였으면 정재격이 변하여 정관격이 된다. 壬水 일간이 戌월에 태어났는데 지장간 중에 辛金이 투출하였으면 칠살격이 변하여 인수격이 된다. 癸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甲목은 투출하지 않고 丙화가 투출하였거나 또는 지지에서 午戌을 만나 재국(財局)을 이루면 상관격이 재격으로 변한다. 이럴 때 설령 정관 戊土가 투간이 되었더라도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였다고 하지 상관견관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乙木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戊土가 투간이 되었으면 정재가 되는데 午戌火局을 이루면 곧 월령의 겁재가 변하여 식상격으로 된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매우 많으니 이런 경우를 격이 변하여 좋게 된 것이라 한다.⁵⁶⁾

54) 김정혜·서소옥·안명순역(2011), 심효첨저, 『자평진전:원전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 71. “用神既主月令矣。然月令所藏不一，而用神遂有變化。如十二支中除子午卯酉外，餘皆有藏，不必四庫也。卽以寅論，甲爲本主，如君之有知府，丙其長生，如君之有同知，戊亦長生，如君之有通判。假使寅月爲提，不透甲而透丙，則如知府不臨郡，而同知得以作主，此變化之由也。”

55)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53. “故若丁生亥月，本爲正官。支全卯未，則化爲印。己生申月，本屬傷官，藏庚透壬，則化爲財。凡此之類，皆用神之變化也。”

56)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53~154. “變之而善，其格愈美，變之不善，其格遂壞。何謂變之而善。如辛生寅月，逢丙而化財爲官。壬生戌月，逢辛而化煞爲印，癸生寅月，藏甲透丙，會午會戌，則化傷爲財。卽使透官，可作財旺生官論，不作傷官見官。乙生寅月，透戊爲財，會午會戌，則月劫化爲食傷。如此之類，不可勝數，皆變之善者也。”

어떤 경우를 변하여 나쁘게 되었다고 하는가? 예를 들어 丙火가 寅月에 출생하면 본래 편인격(偏印格)이다. 그런데 甲木이 투출하지 않고 지지에 午, 戌이 있어 寅午戌火局을 이루면 인수격이 겁재격으로 변한다. 丙火 일간이 申月에 출생하면 본래는 편재격인데 庚金은 투출하지 않고 壬水가 투출하였거나 지지에 子나 辰이 있어 申子辰水局을 이루면 편재격이 변하여 칠살격으로 된다. 이와 같은 경우들도 아주 많은데 이런 경우 격이 변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⁵⁷⁾

또 변화 하여도 본래의 격국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辛金이 寅월에 출생하였는데 丙火가 투간 되고 또 甲목이 투간이 되어 있으면 격은 정재격인데 정관격을 겸한 것에 불과하다. 乙木이 申월에 출생하고 천간에 인수 壬水가 투출하면 인수격으로 변하는데 천간에 戊토가 투출하면 인수를 정재가 극하게 되니 인수격이 파하는데 정재가 비록 월지에 통근했다고 하더라도 정관격이 되고 재격을 겸할 뿐이다. 癸水가 寅월에 출생하고 천간에 丙火가 투출하였으면 정재격이 되지만 다시 월지 본기 甲木이 천간에 투출하였으면 원래의 상관격이 된다. 고로 戊土가 투출하면 상관견관(傷官見官)이 되어서 좋지 않게 된다. 丙火가 寅월에 출생하고 지지에서 寅午戌火局을 이루면 편인격이 겁재격으로 변하는데 편관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여 겁재를 극제하거나 월지 본기 甲木이 투출하였으면 다시 편인격이 된다. 丙火가 申월에 출생하였는데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면 편재격이 변하여 칠살격이 되는데 이때 천간에 戊土가 투출하면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니 다시 편재격이 되고 부귀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아주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두 변화를 하여도 원래의 격국이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하므로 사주는 용신〔격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용신〔격국〕은 변화를 살펴보지 않고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런 변화를 세밀히 살펴보아야한다.⁵⁸⁾

57) 박영창譯(2007), 심효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55. “何謂變之而不善. 如丙生寅月, 本爲印綬, 甲不透干而會午會戌, 則化爲劫. 丙生申月, 本屬偏財, 藏庚透壬, 會子會辰, 則化爲煞. 如此之類亦多, 皆變之不善者也.”

58) 박영창譯(2007), 심효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58~159. 又有變之而不失本格者. 如辛生寅月, 透丙化官, 而又透甲, 格成正財, 正官乃其兼格也. 乙生申月, 透壬化印, 而又透戊, 卽財能生官, 印逢財而退位, 雖通月令, 格成正官, 而印爲兼格. 癸生寅月, 透丙化財, 而又透甲, 格成傷官, 而戊官忌見. 丙生寅月, 午戌會劫, 而又或透甲, 或透壬, 卽仍爲印而格不破. 丙生申月, 逢壬化煞, 而又透戊, 則食神能制煞生財, 仍爲財格, 不失富貴. 如此之類甚多, 是皆變而不失本格者也. 是故八字非用神不立, 用神非變化不靈, 善觀命者, 必於此細詳之.

격이 변하여 좋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時 日 月 年

乙 己 丁 壬

亥 卯 未 寅

甲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未月에 출생하여 천간에 丁火가 투출하여 편인격이 된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천간에서도 丁壬合木이 되고 년지도 寅木이고 시간(時干)에서도 乙木이 투출하여 사주의 모든 세력을 木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己土 일간이 칠살에 종(從)하는데 사주에 金 오행이 없으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종살격(從殺格)으로 변화였다.⁵⁹⁾

時 日 月 年

乙 壬 壬 丙

巳 申 辰 子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戌 亥 子 丑 寅 卯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辰月에 출생하여 일간 水의 묘지(墓地)가 된다. 월지의 본기 戊土가 칠살이 되지만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하고 비견과 상관인 壬水와 乙木이 투출하고 지지에 申子辰 水局을 이루니 비견격이 된다. 그런데 봄의 乙木이 월지 辰土에 여기(餘氣)가 있어 약하지 않으므로 강한 일간을 설기하는 상신이 되니 편관격이 변하여 상관생재격이 되었다.⁶⁰⁾

59)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56.

60)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156.

넷째, ‘상신(相神)의 중요성을 논함’에 다음과 같이 용신 [격국]을 보필하여 격의 성격(成格)과 파격(破格) 여부를 결정짓는 상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월령에서 용신 [격국]을 잡으면 반드시 사주의 다른 곳에는 상신(相神)이 있게 된다. 이는 임금이 재상이 있어 보필을 받는 것과 같으니 상신이란 사주의 용신 [격국]을 보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관격인데 재성의 생조가 있으면 정관은 용신 [격국]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격이 재왕생관이 되면 재성은 용신 [격국]이 되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칠살격에 식신이 있어서 식신제살을 하면 칠살은 용신 [격국]이 되고 식신은 상신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단한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볼 때는 통변의 묘가 없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어느 한 글자에 의해서 사주 전체가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글자가 상신(相神)이 되는 것이다.⁶¹⁾

용신이 심하게 상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예를 들어 甲木 일간이 酉金 정관을 용신 [격국]으로 삼는데 이 때 상관인 丁火가 투출하면 파격이 되는데 다시 壬水가 투출하여 丁壬합이 되면 丁火 상관이 합겨 되어 酉金 정관이 지켜지므로 다시 정관격이 성격(成格)이 된다. 이 경우는 오로지 壬水가 정관을 보필하니 壬水가 상신이다. 戊土 일간이 子水를 써서 재격이 된 경우 甲木과 己土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己土 겁재가 甲木 칠살을 합겨하고 재성만 남으므로 정재격으로 성격(成格)한다. 이 경우는 오로지 己土의 조력으로 정재격이 성격이 된 것으로 따라서 己土가 상신이 된다. 乙木 일간이 酉金을 써서 칠살격이 되는 경우, 년간에 식신 丁火가 투출하여 식신제살을 하는데 월간에 癸水가 투출하면 편인도식이 되어 파격이 되는데 이럴 때 만약 시간에 戊土가 투출하여 戊癸합을 하면 癸水가 戊土와 합을 하느라 丁火를 극하지 않게 되므로 식신이 酉金칠살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 이 경우 칠살격이 성격(成格)이 되는 것은 오직 戊土 때문이다. 그러므로 戊土가 상신(相神)이 된다.⁶²⁾

61) 이을로(2009), 『자평진전강해』, 동학사, pp. 200~201. “月令既得用神, 則別位亦必有相. 若君之有相, 補我用神者是也. 如官逢財生, 則官爲用, 財爲相. 財旺生官, 則財爲用, 官爲相. 煞逢食制, 則煞爲用, 食爲相. 然此乃一定之法, 非通變之妙. 要而言之, 凡全局之格, 賴此一字而成者, 均謂之相也.”

62) 박영창譯(2007), 심효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200~201. “傷用神甚於傷身, 傷相甚於傷用. 如甲用酉官, 逢丁逢壬, 則合傷存官以成格者, 全賴壬之相. 戊用子財, 透甲並己, 則合煞存財以成格者, 全賴己之相. 乙用酉煞, 年丁月癸, 時上逢戊, 則合去癸卯以使丁得制煞者, 全賴戊之相.”

癸水가 亥月에 출생하였는데 丙火가 투출하였다면 재성이 월지 겹재에 극을 당하는데 이때 지지에서 亥卯未 木局을 이루면 亥水 겹재가 木으로 변하여 식상이 되어 오히려 丙火를 생하게 된다. 이 경우는 卯와 未의 상신에 힘입어 성격(成格)이 되는 것이다. 庚金이 申月에 태어나서 癸水가 투출하면 설기를 하는데 그러나 癸水가 월지에 통하지 못하여 설기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데 이때 지지에서 子辰 水局을 이루면 金이 水로 변하여 金水가 서로 받아들여 젖으므로 좋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子와 辰이 상신이 되어 사주가 쓸모가 있게 된 것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상신이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⁶³⁾

상신이 깨져 상하지 않았으면 귀격이 되고 상신이 파괴되었다면 파격이 된다. 예를 들어 甲木 일간이 酉金을 써서 정관격이 되는데 천간에 丁火와 정인 癸水가 있다면 상관을 극제하여 정관을 보호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戊土가 천간에 투출하면 戊癸합으로 상신 癸水가 丁火를 제압하지 못하니 상신 癸水가 파괴된 것이다. 丁火 일간이 酉월에 재격인데 천간에 癸水가 있고 己土가 있으면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고 재를 생하니 성격이 된다. 그런데 또 甲木까지 천간에 투출하면 甲己합이 되어 癸水を 제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신 己土가 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유정(有情)이 무정(無情)하게 된 것이며 유용(有用)이 변하여 무용(無用)이 된 격들이다.⁶⁴⁾

무릇 팔자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사주의 격국과 용신과 상신을 살펴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가려야 하는데 사주마다 상황이 다르니 쉽게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를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는가.⁶⁵⁾

상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63) 김정혜·서소옥·안명순역(2011), 심효침저, 『자평진전:원전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 95. “癸生亥月，透丙爲財，財逢月劫，而卯未來會，則化水爲木而轉劫以生財者，全賴於卯未之相。庚生申月，透癸洩氣，不通月令而金氣不甚靈，子辰會局，則化金爲水而成金水相涵者，全賴於子辰之相。如此之類，皆相神之緊要也。”

64) 박영창譯(2007), 심효침,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203. “相神無破，貴格已成，相神有傷，立敗其格。如甲用酉官，透丁逢癸卯，制傷以護官矣。而又逢戊，癸合戊而不制丁，癸水之相傷矣。丁用酉財，透癸逢己，食制煞以生財矣。而又透甲，己合甲而不制癸，己土之相傷矣。是皆有情而化無情，有用而成無用之格也。”

65) 박영창譯(2007), 심효침,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204. “凡八字排定，必有一種議論，一種作用，一種棄取。隨地換形，難以虛擬，學命者豈可忽諸。”

時 日 月 年

戊 己 甲 戊

辰 巳 子 戊

庚 己 戊 丁 丙 乙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편재격이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지만 11월에 출생하여 물은 차갑고 흙은 얼었으니 조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지 巳火의 지장간 가운데 있는 丙火가 조후용신이 된다. 그러나 이 사주는 재격의 사주가 비겁이 중중하여 재성을 분탈(分奪)하는 게 문제이니 정관 甲木을 상신으로 비겁을 제압하여 成格을 시켜야 한다. 甲木은 비겁을 제압하며 조후용신인 丙火를 생조하니 일석이조의 작용력이 있다. 대운이 木火로 향하여 甲木 상신을 도우니 부귀를 겸하였다.⁶⁶⁾

이상 『자평진전』의 원문을 중심으로 중요 이론들을 고찰해 보았는데 순역용신론을 사용하는 『자평진전』 용신론 [격국론]의 궁극적 특징은 격을 4길격과 4흉격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용신 [격국]과 상신 [용신]을 정하는 원칙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관(正官), 재성(財星), 정인(正印), 식신(食神)은 4길신으로 분류하고 칠살(七殺), 상관(傷官), 양인(陽刃), 편인(偏印)은 4흉신으로 분류하여 4길신은 순용(順用)하고 4흉신은 역용(逆用)하는 원리가 『자평진전』의 핵심이론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상신 [용신]을 순역용신(順逆用神)이라고 하며 현대적 명리학용어로 달리 말하면 격국용신(格局用神)이라고도 부른다. 자평진전에서는 월령의 본기(本氣)를 위주로 격을 설정하는데 월령의 지장간(支藏干) 중에서 투출(透出)된 여기나 중기, 지지의 합국(合局) 등은 격을 구성하는 보조적인 요소로 본다.

격국의 순용이란 오행의 관계에서 상생하는 것으로 상신을 쓰는 것이고 역용이란 오행의 관계에서 상극하는 것을 상신으로 쓰는 것이다. 4길신의 격이 순용 되거나 4흉신의 격이 역용되면 성격이 되고 그 반대가 되면 파격이 된다. 순용과 역용을 주장하고 있는 자평진전에서는 성격과 파격의 이론이 중요하다.

66) 박영창譯(2007), 심효첨著,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 205.

4. 『궁통보감』의 연원 및 중요이론

1) 『궁통보감』의 연원

『궁통보감』은 일명『조화원약(造化元鑰)』, 『난강망(欄江網)』이라고도 하는데 저자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저서의 내용 중 인용된 예문들이 주로 명(明)나라의 유력 인사들의 사주가 많은 것을 보아 명대(明代)에 만들어진 저서로 추측을 하는데 청나라 초 강희제(康熙帝, 1661~1722) 때 일관(日官)이 『난강망』의 이름을 『조화원약』으로 바꾸었고 청나라 말 광서제(光緒帝, 1871~1908) 때 여춘대(余春臺)가 『조화원약』을 다시 『궁통보감』으로 바꾸어 간행을 했다. 이 책의 서문에 “오행생극의 이론이 한나라의 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나라의 이허중에 이르러 천간지지를 팔자에 배정하고 오로지 재관인(財官印)을 취해 사주의 득실을 논했다. 그 후에 여러 선현들이 천관(天官), 자미(紫微), 신금(神禽) 등의 책을 지어 서로 참용(參用)하였다. (중략) 아는 이가 『난강망』 선본(繕本, 귀중본)을 가져와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의론(議論)이 정확하고 자세하여 취사(取捨)가 합당하고 오행생극과 팔괘 착종(錯綜)의 묘(妙)가 있었고 (중략) 편집을 할 때 그 번잡한 것은 줄이고 너무 간단한 것은 늘렸으며 (중략) 이 책은 진정한 명학(命學)의指南(指南)이고 자평의 모범이라서 그 이름을 궁통보감이라고쳐 군자가 명을 아는 학문을 넓히도록 하였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여춘대가 『난강망』의 원문을 임의로 고쳐 『궁통보감』이라 출간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⁷⁾ 여춘대의 『궁통보감』은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데 대만의 서락오가 1937년에 이를 다시 『궁통보감평주(窮通寶鑑評註)』로 출간 유포시켰다. 그 후 서락오는 『궁통보감』의 내용에 근대 중국인들의 사주를 예문으로 들어 자세하게 해설한 내용을 수록하여 『조화원약평주(造化元鑰評註)』를 1941년에 발간하였다. 서락오가 『궁통보감』을 평주하면서 방간목각(坊間木刻), 평도당건상본일종(宏道堂巾廂本一種), 연석인일종(鉛石印一種) 등 3개의 판본을 비교하고 교정을 보았다는 기록을 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궁통보감』의 판본이 다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⁶⁸⁾

67)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4. 『궁통보감』(1986), 대만 평업서국, p. 4.

68)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 39.

2) 『궁통보감』의 중요이론

『궁통보감』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밝혀놓은 명리학의 기본서로 열 개의 일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필요한 오행을 배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열 개의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나면 어떠한 성정을 가지는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하여 일간의 성정이 뜨거우면 식혀주고 반대로 차가우면 따듯하게 해주는 조후(調候)의 방법론을 제시하므로 조후론의 기본서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일간별로 기후의 배합에 따른 득실을 따지는데 열 개의 일간을 월지별로 회신과 용신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조후용신의 근본이 되는데 월별 회용신을 설명하기에 앞서 십간에 해당하는 오행의 기본과 희기(喜忌), 춘하추동 계절별로 정리한 오행의 계절별 총론, 실제 사주풀이 등으로 엮여져 있다. 이전의 다른 명리서에서는 복잡한 논리와 길흉신을 이용하여 사주를 판단하지만 『궁통보감』에서는 오직 일간과 월령을 대조하여 각 십간 별로 음양의 상태와 성정, 월령에 따른 조후의 배합 등으로 용신의 여부를 살피고 격국의 고저를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⁶⁹⁾ 하지만 명리학계 일부에서는 이는 명리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의 기질론에 합당하지 않고 물상론으로 설명하여 정통 명리학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아래에 『궁통보감』의 핵심 이론을 이을로(2007)의 『궁통보감강해(窮通寶鑑講解)』 및 정지호(2003)의 『造化元鑰評註(造化元鑰評註)』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궁통보감』에서는 갑목(甲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木이 봄에 태어나면 반드시 丙火의 기(氣)가 있어야 한다. 여명(女命)에 木이 旺한 데 金으로 다듬으면 성품이 높고 우아하며 덕성이 있으니 귀명(貴命)이 된다. 목(木)은 土가 있으면 뿌리를 보호하며 자라게 하나 土가 적으면 뿌리가 위험하여 가지가 무성하지 않다. 목(木)의 뿌리는 水로 적셔주어야 하나, 태과(太過)하면 뿌리가 상해 부목(浮木)이 된다. 따라서 인수(印授)가 많으면 부모운은 좋으나 자식운이 막힌다. 生木이 火를 만나면 수려하며 화려하나 여름에는 무성하여 힘들다. 甲木을 건축재에 비유하면 변하여 사목(死木)이 된다. 火氣가 지나치면 불에 타버리니 이때 金을 만나면 유용한 재목이 되고 길하다. 그런데 반대로 金이 태과(太過)하면 火로 제(制)해야 귀격(貴格)이 된다.⁷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69)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 38.

70)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p. 149~150.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時 日 月 年
丙 甲 甲 癸
寅 戌 寅 丑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時干에 丙火가 투출하고 또한 년간에 癸水를 투출하였는데 丙火와 癸水가 멀리 있어 서로 장애가 되지 아니하니 더욱 좋은 구조이다. 이 경우가 春月 甲木의 상격(上格)이라 할 것인데 혹 丙火는 천간에 투출하였으나 癸水가 지지에 있어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時 日 月 年
己 甲 丙 甲
巳 戌 寅 子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조후가 아름다운데 지지에 子水가 있어서 천간 丙火와 서로 장애됨이 없이 子水가 甲木의 뿌리를 윤택하게 하니 더욱 길하다. 寅月의 甲木이 丙火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나 혹 丙火 대신 丁火가 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寅月 甲木의 용신으로서 큰 차이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식신 丙火에 비해 상관 丁火는 다소 집요하며 거칠고 사나운 편이다.

둘째, 『궁통보감』에서는 을목(乙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甲木은 진기(進氣)이고 乙木은 퇴기(退氣)이다. 그러기에 乙木은 쇠퇴하는 성질이

동학사. pp. 53-54. 김정혜 · 서소옥 · 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28-29.

있어 癸水로 생부(生扶)해주어야 한다. 水로 뿌리를 자윤(滋潤)하고, 丙火로 꽃을 피우면 영화로움이 따른다. 봄의 乙木은 지란(芝蘭)이나 화초의 상(象)이니 丙火를 만나면 꽃잎이 하늘을 향하여 만물이 회춘한다. 여기에 癸水가 뿌리를 자윤(滋潤)하며 극제화합(剋制化合)하면 부귀한 명이 된다. 그러나 乙木이 水를 필요로 해도 水氣가 태과(太過)하면 음습해진다. 을목은 태양을 보아야만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⁷¹⁾ 다음과 같은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丙 乙 壬 丁
子 卯 寅 巳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시주에 丙子가 있어 丙火로 조후하고 子水로 뿌리를 윤택하게 하니 아름답다. 丁壬이 합하여 木氣를 돕고 시지의 丙火와 子수가 水火가 서로 거리낌이 없으니 상서벼슬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셋째, 『궁통보감』에서는 병화(丙火)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丙火는 태양이니 강력하고 매우 뜨겁고 더워 진화(眞火)라 한다 火는 南方이라 밝고 木이 없으면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丙火는 水로 조후용신(調候用神) 하는데 丙火는 태양이고 壬水는 바다이니 임수를 보면 더욱 빛난다. 水가 없으면 火가 너무 뜨거워 만물이 상하기 때문에 병화는 壬水를 만나야 길하다. 壬水 대신 癸水를 만나면 구름과 안개가 태양을 가린 것과 같아 반감지 않은 물이 된다. 그러므로 丙火가 壬水를 보면 귀격(貴格)을 이루나 癸水를 보면 귀격(貴格)을 이루지 못한다.⁷²⁾ 다음과 같

71)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동학사. pp. 160~161.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238.

72)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313.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동학사. pp. 248~249.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115~119.

은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庚 丙 壬 乙
寅 辰 午 巳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子 丑 寅 卯 辰 巳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午月에 출생하여 壬水를 조후용신(調候用神)으로 삼는데 時干에서 庚金을 보아 대귀할 수 있는 명이다. 그러나 辛巳, 庚辰 대운을 지나 己卯, 戊寅 대운에 土가 水를 극제하고 木이 水를 설기하여 火勢를 더하니 크게 빛을 보지 못하다가 丁丑 대운을 맞이하여 丁壬合木으로 壬水를 합거시키니 일거에 몰락한 명이다. 그러니 사주 원명이 조화로움이 물론 더 중요하지만 대운의 도움이 없이는 대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丙子 대운을 기약하여 보나 결국에 모든 것은 자기 선택에 따르게 된다.

넷째, 『궁통보감』에서는 정화(丁火)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丁火는 등촉 불이고 퇴기(退氣)하는 火이기 때문에 火勢가 아무리 강해도 열화(烈火)라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밝아도 안으로는 쇠갈(衰竭)하다. 따라서 반드시 인수인 甲木이 있어야 된다. 甲木이 있다면 가을 겨울생이라도 쇠절(衰絶)할 걱정이 없다. 그러나 壬, 癸水가 태과(太過)하면 관살이 혼잡되어 불이 꺼질 수도 있다. 이때 인성 甲木이 도와야 한다. 丁火는 등불이고 甲木은 땀감이니 丁日生이 甲木이 있으면 부귀공명(富貴功名)을 이룬다.⁷³⁾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丙 丁 甲 己
午 卯 戌 亥

73)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400.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丁火 일간이 戊月에 출생하여 지지에 득록하고 천간에 甲木이 투출하여 대부격을 이루었다. 상관이 득령하였으나 甲木으로 제화하여 인정(引丁)하는 명이다. 고서에 나오는 명이다.

時 日 月 年

丙 丁 癸 壬

午 卯 丑 午

己 戊 丁 丙 乙 甲 대운

未 午 巳 辰 卯 寅

위 사주는 丁火 일간이 丑月에 출생하였는데 壬, 癸水가 투간하여 관살이 혼잡하다. 사주에 丁火를 끌어줄 甲木이 없어 귀할 수 없다. 고독한 팔자의 여명이다.

다섯째, 『궁통보감』에서는 무토(戊土)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土는 중앙으로 동 서 남 북 사방에 미치니 춘하추동 4계절의 기(氣)를 포함한다. 목화금수(木火金水)의 사행(四行)은 모두 왕(旺)하기 때문에 土로 잘 배합해야 한다. 土는 아무리 강해도 火로 생(生)해야 한다. 만일 火가 없으면 토왕(土旺)해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 土는 재(財)를 만나면 좋으나 水氣가 태왕하면 오히려 土가 허물어질 염려가 있다. 土는 봄여름에 왕(旺)하며 실(實)하고 가을 겨울에는 약해져 허왕(虛旺)하다. 土는 중후할수록 좋다. 土가 왕지(旺地)에 들어있어도 사주에 식재관(食財官)이 없으면 생의(生意)가 없다. 따라서 土가 많으면 막히기 때문에 난관이 많고 土가 흩어지면 가볍게 움직인다.⁷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을 수 있다.

74)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동학사, pp. 416~418.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189~194.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467.

時 日 月 年
庚 戌 庚 丙
申 辰 寅 寅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조화원약평주』에 나오는 사주로 戊土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였다. 申辰 合水하여 무토가 냉하니 丙火가 조후용신이다. 丙火가 寅木에 장생(張生)하여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되고 칠살을 庚金이 식신제살(食神制殺)도 하니 그 역량이 탁월하다.

여섯째, 『궁통보감』에서는 기토(己土)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土는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戊己土는 甲乙丙丁과 庚辛壬癸의 중앙에 위치한다. 己土는 전왕지(專旺地)가 없으니 사계절의 氣에 따라 왕쇠(旺衰)를 취하는데, 土가 때를 잡으면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토가 기신(忌神)일 때는 오히려 土가 때를 잡으면 크게 흉하다. 이때는 금목수화(金木水火)의 배합에 의지해야 한다. 戊土는 마르고 높은 산이니 조토(燥土)라 하고 己土는 부드러운 흙이니 습토(濕土)라 하여 용신(用神)을 취하는 방법이 서로 크게 다르다.⁷⁵⁾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甲 己 丙 甲
子 丑 寅 子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였다. 甲木과 丙火가 투출하니 살인상생(殺印相生)이 된다. 寅月에 지지에 水氣가 냉하니 丙火로 조후용신 하는데 甲木과 丙火가

75)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532.

동궁에서 상생하여 유정(有情), 유력(有力)하고 지지의 子丑寅으로 정(精)과 신(神)이 강하다. 『조화원약평주』에 나오는 사주로 재상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다.

일곱째, 『궁통보감』에서는 경금(庚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고 있다.

庚金은 건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오행과는 다르다. 겉으로는 음(陰)이나 속으로는 양(陽)의 기질이 내포되어 있다. 庚金이 丁火를 보면 큰 그릇이 되고 壬水를 보면 금기(金氣)를 설(洩)하여 금수쌍청(金水雙淸)이 된다. 십간중 甲, 丙, 戊, 壬은 모두 양(陽)으로 제(制)하면 길하다. 甲木은 庚金으로, 丙火는 壬水, 戊土는 甲木으로, 壬水는 戊土로 제(制)하면 길하다. 그러나 庚金만은 다른 양간과 다르게 丁火로 제(制)해야 길하다. 乙木은 유약하나 乙庚이 합하면 강금(剛金)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庚金이 봄여름에 태어나면 휴수(休囚)하는 때이니 丑, 辰등 濕土가 있으면 좋으나 戌, 未등 燥土가 있으면 취약하게 된다.⁷⁶⁾ 아래와 같은 예를 들을 수 있다.

時 日 月 年
丙 庚 甲 癸
戌 午 寅 卯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지지에 寅午戌 火局을 이루고 시간(時干)에 丙火가 투출하여 화기(火氣)가 치열하다. 조화원약에 나오는 사주로 년간의 癸水는 뿌리가 없고 水生木으로 설기되니 조후를 이루지 못하여 평생 잔병치레를 한 사람이다.

여덟째, 『궁통보감』에서는 신금(辛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辛金은 습윤(濕潤)하며 부드럽다. 辛金은 숙살의 기가 쇠하여 다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에 의해 화(化)하면 유약하여 강건하지 않고 한기(寒氣)가 심하지 않으며 조열

76)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p. 586~587.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동학사. pp. 552~554.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245~249.

(操烈)함도 심하지 않아 청(淸)하게 된다. 적천수에서 辛金은 土가 많으면 흥하고 水가 많으면 길하다고 했다. 이것은 더우면 서늘함을 좋아하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辛金은 계절을 불문하고 壬水로 조후용신을 삼아야 한다. 金, 水가 청(淸)하면 청고(淸高)한 命이 된다.⁷⁷⁾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己 辛 庚 丙

丑 酉 寅 辰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辛金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시상의 己土가 상생을 하고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주며 庚金이 甲木을 제화하니 격국이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능한 수재로 형제는 많았으나 자식은 적고 다만 똑똑한 선비에 불과했다. 조화원약에 나오는 사주로 壬水가 없기 때문에 辛金이 수기(秀氣)를 발현하지 못한 예이다.

아홉째, 『궁통보감』에서는 임수(壬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壬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윤하(潤下)라고 한다. 물은 서북방(西北方)을 근원으로 삼으니 壬水가 신금이 있으면 장생(長生)이 되고 亥水를 만나면 건록을 이룬다. 물은 순류(順流)하면 부드러운 성질이 있고 역류(逆流)하면 노도와 같은 성질이 있다. 순류(順流)는 서에서 북으로 흐르거나 북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동에서 남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고 역류(逆流)는 이와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水는 근원인 金을 만나면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水가 범람하면 土로 극제해야 한다. 그러나 土가 많으면 물이 막히고 火가 많으면 고갈되고 木이 많으면 죽고 수원(水源)인 金이 쇠하면 기세가 쇠약하여 신약(身弱) 사주가 된다. 따라서 壬일주는 水가 유통되어야 좋다.⁷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7)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 660.

78)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pp. 317-321.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p. 736~737.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時 日 月 年

辛 壬 庚 丙

亥 寅 寅 子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고 시주(時柱)에 亥水 祿(祿)을 두어 년간의 丙火 재성이 조후용신이다. 녹왕한 壬水가 인수와 재를 만나 청년에 급제하고 관직에 올라 도독을 지낸 사람으로 『조화원약평주』에 나오는 사주이다.

끝으로 『궁통보감』에서는 계수(癸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癸水는 기후에 따라 빗물이나 눈과 서리 등으로 모양이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겨울생은 매우 춥고 차가우니 丙火를 만나면 만물을 윤택하게 하지만 기세가 산만해 귀숙(歸宿)하지 않는다. 水氣가 태과(太過)하면 범람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지나치게 적으면 고갈된다. 만일 水氣가 왕(旺)한데 또 水가 있으면 이때는 土로 극제해야 한다. 癸水는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으나 안으로는 강하며 웅장하다. 癸水가 壬水를 만나면 壬水와 같아진다. 癸水는 매우 연약한 물이기 때문에 메마른 戊土를 만나면 극되어 본성을 잃게 된다. 癸水는 막히고 엉킨 것을 흐르게 하고 火가 왕(旺)하면 火에 종(從)하고 土가 왕하면 土에 종하니 시류를 따라 흘러간다. 만일 본성을 잃지 않으면 조화하여 윤택함을 드러낸다.⁷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時 日 月 年

丙 癸 壬 壬

辰 卯 寅 子

동학사, pp. 719~721.

79) 정지호(2003), 『造化元鑰評註』, 삼한출판사. pp. 805~806.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申 未 午 巳 辰 卯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고 지지에 寅卯辰 방국(方局)을 이루어 식상이 태왕하다. 시간(時干)에 丙火 편재가 투출하여 식상생재를 이루었으나 천간에서 비겁이 쟁재(爭財)를 한다. 사주에 庚申金이 없어 木을 제하고 癸水를 생하여 귀격(貴格)을 이루기 어려운 사주이다. 이 명주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으나 아들을 두지 못했고 형제간에 재산다툼이 많았다.

Ⅲ.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의 비교

분석

용신이란 사주에서 중화(中和)의 요체가 되며 운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가장 필요하며 쓰임새가 있는 오행(五行)이나 십성(十星)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주 전체의 생극제화(生剋制化)의 과정을 가장 적절하고 조화롭게 해주어 사주의 주인공에게 안정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사주의 강약을 구분하여 용신을 정해야 하며 그 용신의 상태와 흐름을 세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신을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각 사주마다 음양오행의 구성이 각기 다르고 합이나 충에 의한 작용으로 오행의 기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용신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사주팔자 중 어느 한 글자가 용신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오행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사주 구조에 따른 격국 자체가 용신이 되는 수도 있다. 용신이란 하나의 사주에서 일간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일간을 떠나서는 용신이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떠한 사주도 용신이 없는 사주는 없으므로 필히 사주 내에서 용신을 설정하여야 한다.

용신은 일주 및 격국과 함께 사주의 3요소가 되니 사주를 감명할 시에는 이 세 가지 용신론 모두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주를 주택에 비유하면 일주는 집주인이며 격국은 그 집의 건물유형이고 용신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용신이 좋으면 쉽고 편안하게 내 집을 출입할 수 있으나 용신이 부실하면 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용신은 일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길흉판단의 요체는 바로 용신이 된다.⁸⁰⁾

이러한 용신을 중심으로 운명을 추론하는 이론이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이 각각 다르다. 『적천수』에서는 변격(變格)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용신론에서 중화론(中和論)을 위주로 오행의 변화를 논하였고 『자평진전』에서는 용신론과 정격(定格)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격국용신(格局用神)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⁸¹⁾ 『궁통보

80)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pp. 63~64.

감』에서는 계절과 기후가 중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용신론에서 조후론(調候論)을 주장하였다.⁸²⁾ 이처럼 사주명리학은 통변방법에서 용신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는데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서는 각기 독창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이론과 용신법을 주장하고 있다. 사주해석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이론들은 각기 나름의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면에 상호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 중에서 사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용신론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적천수』 용신이론

『적천수』의 용신론은 억부(抑扶), 조후(調候), 통관(通關), 병약(病藥), 전왕(專旺)의 법칙을 두루 사용하고 있다. 『적천수』의 중심사상은 중화(中和)에 있는데 운명의 부귀빈천(富貴貧賤)과 길흉수요(吉凶壽夭)는 중화에서 오는 것이니 중화는 『적천수』의 핵심사상이다. 궁극적으로 사주가 중화를 이루면 부귀하고 순탄한데 중화를 잃으면 곤궁하고 빈천하다는 것이며 인체의 질병도 오행의 태과(太過)나 불급(不及)으로 인한 중화의 실조(失調)에 있다고 본다.⁸³⁾ 이와 같이 중화는 사주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 대상과 원리는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나 한난조습(寒暖燥濕)의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음양오행 간에 강한 것은 덜어내고 약한 것은 더해주니 억부이며 사주가 조열(燥熱)하거나 한습(寒濕)하면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조후이고 또한 만약 사주에서 水와 火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을 때는 木으로 이를 소통시키니 통관이며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이 태과하여 병이 될 때는 이를 극제하여 다스리는 오행이 약이 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화인 것이다.

하지만 『적천수』 용신론의 또 다른 핵심은 강중적과(強衆敵寡)에 있다. 이는 강한

81) 심효침원저, 서락오평주, 박영창역(2006), 『子平眞詮坪註』, 청학출판사, p. 10.

82) 송유성(2012), 「四柱命理學의 調候論 適用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24.

83) 박헌구(2012),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8.

것이 태과하여 미력하고 약한 것을 극제 할 때에는 차라리 약한 것을 포기하고 강한 것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이 지나치게 왕(旺)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중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그 왕한 오행의 기세를 따라 순응하는 방법이 있으니 종(從)함으로써 오히려 화평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⁸⁴⁾ 그러므로 일반적인 중화의 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강한 것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적천수』에 예시된 사주는 대부분 종격사주로 보고 전왕(專旺)용신을 잡고 있다. 특히 4종격에서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용신을 정하고 있는데 4종격과 그에 따르는 용신정법(用神定法)은 아래와 같다.

사주가 모두 비견겁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종왕격(從旺格)이 되는데, 이 때 관살의 제화 없이 인성만 있어서 그 왕성함이 극에 달하면 그 왕(旺)한 오행을 용신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겁과 인성이 용신이 된다.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가득하고 일간이 당령(當令)하였는데 재와 관이 사주에 전혀 없을 때는 종강격(從強格)이 되는데 이 때는 인수와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 종기격(從氣格)은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막론하고 사주의 전체적인 기세가 木, 火나 金, 水에 치우쳐 있을 때는 그 치우쳐 있는 오행을 따라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런 경우 용신은 치우친 오행인 木, 火나 金, 水가 된다. 그리고 일간이 뿌리가 없고 사주에 식상, 재성, 관성만 아울러 왕성하면 그 식재관의 기운을 따라 가는 것을 종세격(從勢格)이라 하는데, 이 경우 식재관의 기운이 서로 상전(相戰)하지 않아야 되므로 관살과 식상 사이를 통관하는 재성이 용신이 된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오행만 유달리 강왕할 경우는 그 오행이 종왕(從旺)용신이 된다.

그런데 『적천수』 용신론 중에는 왕자의설불의극(旺者宜洩不宜剋)의 원리가 있는데 이는 신왕한 사주는 관살로 극제하기 보다는 식상으로 설기(洩氣)하여주는 좋다는 것으로 왕(旺)한 것은 설기해야지 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신강한 사주는 우선적으로 관살로 극제 하였던 『연해자평』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인데 『적천수』의 이 이론은 사주명리학의 용신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앞장의 격국용신 변천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알아봤듯이 예를 들어 서자평(徐子平)의 『낙록자삼명소식부주』⁸⁵⁾에는 녹마동향(祿馬同鄉), 삼기위귀(三奇爲貴), 장성부

84) 박헌구(2012),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8~49.

85) 『낙록자삼명소식부주』의 원저자는 낙록자(珞璣子)인데 여기에 1135년 서자평이 주석을 달아

덕(將星扶德), 구진득위(句陳得位), 음양상합(陰陽相合), 진무당권(眞武當權), 음양불합(陰陽不合), 불견지형(不見之形), 수화기제(水火既濟), 생시좌록(生時坐祿), 하초조상(夏草早霜), 동봉염열(冬逢炎熱), 무합유합(無合有合), 문희불희(聞喜不喜), 녹유삼회(祿有三會), 당우불우(當憂不憂), 배록불빈(背祿不貧), 재명유기(財命有氣), 건록불부(建祿不富), 귀왕신쇠(鬼旺身衰), 신왕귀절(身旺鬼絕), 비천녹마(飛天祿馬), 금목성기(金木成器), 생월대록(生月帶祿), 금화량정(金火兩停), 거지위복(去之爲福), 목토비화(木土比和), 마렬재미(馬劣財微), 반안천록(攀鞍天祿) 등의 다양한 격국의 명칭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격국법은 사주 전체의 기세를 살펴 격국과 용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의 단편적인 특징을 잡아 분석하는 단식판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낙록자삼명소식부주』에서도 용신은 일주의 강약을 따져 중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고 보았다. 일간의 강약은 득령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지장간(支藏干)과 월령용사(月令用事)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억부용신론(抑扶用神論)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주구조에 따라 용신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용신의 명칭도 붙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고전에 격국과 용신의 명칭이 세분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적으로는 『적천수』의 이론에 기반하여 분류되어 있는 용신의 종류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 및 종왕(從旺)용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격국과 용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주의 기본적 스타일과 성공의 핵심 키포인트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사주에서 용신과 격국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격국이란 일간과 월지와의 생극비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후와 관여되면서 사주의 근본적인 체질이 결정되는데 그 사주가 갖는 음양오행의 체질로부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음양과 오행이 바로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격국과 용신을 통하여 하나의 사주로부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에 비유한다면 격은 그 집의 기본적 유형과 스타일이며 용신은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볼 수 있으니 격국과 용신은 절대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육친과 십성은 그 집의 여러 가지 환경요소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주를 판단하는데는 일간과 격국용신의 합리적 연계성을 필요로 하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연계성의 결과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귀와 빈천 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적천수의 용신론 중에서

놓은 것이다.

내격(內格)⁸⁶⁾ 용신의 구체적 설정방법을 정리한다.

첫째, 억부용신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간의 강약(強弱)을 구분해야 한다. 신강(身強)한 사주는 관살, 식상, 재성으로 일간의 기(氣)를 억제하거나 유출시키고 신약한 사주는 인성과 비겁으로 일간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① 인성이 많아서 신강하면 일단 재성을 먼저 용신으로 쓰는데 만약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관성을 용신한다. 그런데 관성도 없으면 끝으로 식상을 용신으로 한다. ② 비겁이 많아서 신강하면 관성을 먼저 용신으로 쓰고, 만약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식상을 용신 한다. 그런데 식상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재성을 용신한다. ③ 식상이 많아서 신약하면 인성을 먼저 용신으로 정하고, 인성이 없으면 비겁으로 용신을 정한다. ④ 재성이 많아서 신약하면 비겁을 먼저 용신으로 정하고 다음으로 인성을 용신으로 정한다. ⑤ 관성이 많아서 신약하면 인성을 먼저 용신으로 정하고 다음으로 비겁으로 용신을 정하며 재성이 없을 경우에는 식상으로 제살한다.

<표 Ⅲ-1 억부 용신 정법 우선순위 도표>⁸⁷⁾

신강사주	인수(印綬)가 많아 신강할 때	①재성(財星) ②관살(官殺) ③식상(食傷) ④중강격(從強格)
	비겁(比劫)이 많아 신강할 때	①관살(官殺) ②식상(食傷) ③재성(財星) ④중왕격(從旺格)
신약사주	식상(食傷)이 많아 신약할 때	①인수(印綬) ②견겁(肩劫) ③관살(食居先殺居後格) ④종아격(從兒格)
	재성(財星)이 많아 신약할 때	①견겁(肩劫) ②인수(印綬) ③종재격(從財格)
	관살(官殺)이 많아 신약할 때	①인수(印綬) ②견겁(肩劫) ③식상(食傷制殺格) ④종살격(從殺格)

다음은 비겁이 강하여 관살을 용신하는 경우이다.

86) 연구자 주, 내격은 하나의 사주에서 격을 잡을 때 오로지 월령에 의해서 구하는 것으로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여 생극관계에 따라 격명이 구분된다.

87)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p. 67.

時 日 月 年
丙 甲 戊 庚
寅 戌 寅 子

壬 癸 甲 乙 丙 丁 대운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득령하였고 또 시지 寅木까지 득세하여 비견으로 太強하여 억제가 필요한 사주이다. 년간에 庚金이 戌土에 통근하여 강왕한 일주를 극제하는 억부용신이다.

時 日 月 年
庚 庚 丙 丙
辰 午 申 申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寅 卯 辰 巳 午 未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申月에 출생하였는데 시상(時上)에 庚金이 투출(透出)하여 매우 신강한 비견격(比肩格)이다. 午火에 통근한 월간 丙火 편관(偏官)을 억부용신 한다. 가난한 생활 속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결국 국회의원이 된 노00씨의 사주로 용신인 편관이 건왕하다.

다음은 재살이 강하여 인성을 용신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丙 丙 甲 丁
申 子 辰 酉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戊 亥 子 丑 寅 卯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辰月에 출생하였으나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어 재살(財殺)이 태왕한 신약사주이다 월간의 甲木 편인이 진토에 통근하고 水生木, 木生火로 일간을 도우니 억부용신으로 삼는다.

時 日 月 年

壬 丙 庚 丙

辰 寅 子 申

甲 乙 丙 丁 戊 己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였는데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어 관살(官殺)이 태왕한 신약사주가 되었다. 일간을 돕는 寅木을 억부용신으로 水를 설기(洩氣)하여 살인상생(殺印相生)을 시킨다.

다음은 재성이 강하여 비겁을 용신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壬 癸 癸 丙

子 巳 巳 午

丁 戊 己 庚 辛 壬 대운

亥 子 丑 寅 卯 辰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巳月에 출생하여 사주에 재성인 火가 강하다. 월령에서 재성이 투출하여 火氣가 강왕(强旺)하므로 壬水 비겁을 억부용신으로 하고 金의 운을 기

다려야 한다.

時 日 月 年

己 壬 丙 丁

酉 寅 午 亥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子 丑 寅 卯 辰 巳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午월에 출생하였는데 사주에 재성인 火가 강한데 寅午합으로 火가 더욱 치열해져 년지의 亥水 비겁(比劫)으로 억부용신으로 하고 酉金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다음은 비겁이 강한데 상관을 용신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庚 庚 庚 癸

辰 寅 申 卯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子 丑 寅 卯 辰 巳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申월에 득령하고 득세하여 신강하다. 시지 辰土 중에 癸水가 년간으로 투출되어 일간을 설기하니 억부용신이 된다.

時 日 月 年

乙 壬 壬 丙

巳 申 辰 子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戊 亥 子 丑 寅 卯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辰월에 실령(失令) 하였으나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고 월간에 壬水가 투출(透出)하여 비겁으로 신강하다. 辰 중에 乙木 여기(餘氣)가 시간으로 투출하여 상관격(傷官格)이며 왕한 壬水 일간을 설기하여 生財하는 용신이 된다. 동남방 운을 만나야 발복한다.

다음은 인성이 강한데 재성을 용신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壬 乙 戊 乙

午 未 子 亥

壬 癸 甲 乙 丙 丁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乙 일간이 子월에 출생하고 시간에 壬水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印星이 강한 신강사주다. 일지 未土에 뿌리를 두고 午화의 생을 받는 월간의 戊土 재성이 억부용신이다.

時 日 月 年

庚 丙 乙 戊

寅 辰 卯 子

己 庚 辛 壬 癸 甲 대운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卯월에 출생하였는데 지지에 寅卯辰 方局을 이루어서 인성

으로 신강한 사주이다. 일지 辰土의 생을 받고 있는 시간(時干)의 庚金 재성으로 억부 용신 한다. 그러나 뿌리 없는 財가 旺한 인수를 극제할 능력이 부족하니 부(父)와 처(妻)의 덕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억부용신은 일간의 신강, 신약을 분별하여 정하는 것이니 일간이 신강하면 관살로 극제하거나 식상으로 설기시키거나 재성으로 일간의 힘을 분산시켜 용신으로 잡는다. 또한 일간이 신약하면 비겁이나 인성으로 일간을 도와주어 용신을 삼는다. 그리고 관살이 태강하여 신약한 중 인성이 없고 식상만 있을 때는 식상으로 용신한다.

둘째, 사주를 보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조후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조후용신은 사주가 한랭하면 木, 火로 따듯하게 해주는 것이고 사주가 조열하면 金, 水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음(陰)이 강하면 양(陽)을 보충하고 양이 강하면 음을 보충해 음양의 중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고로 계절의 기후를 조절하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사주에 따라서는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조후용신과 억부용신이 상반될 때는 일반적으로 억부용신이 우선하나 조후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면 억부용신보다 조후용신이 우선한다.

다음은 한랭한 사주에서 木, 火를 조후용신 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庚 丙 辛 壬

寅 午 亥 子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亥月에 출생하여 천간의 金은 차갑고 물은 냉하여 사주가 뽕뽕 얼어붙었다. 신약하기도 하지만 조후가 급한 사주이다. 일지에 午火가 있고 지지

에 寅木이 생해주니 냉기를 녹여줄 수 있어 木, 火를 조후용신으로 삼는다. 이 경우는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丙 庚 壬 壬
子 寅 子 申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子月 子時에 출생하고 사주 전체가 金水로 한랭하여 조후가
급하다. 時干의 丙火가 일지 寅木에 장생하여 따뜻하게 해주니 丙火가 조후용신이 된
다. 이런 경우를 재자약살격(財慈弱殺格)이라고도 하고 식거선살거후격(食居先殺居後
格)이라고도 한다.

다음은 조열한 사주에서 金, 水를 조후용신 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癸 辛 丙 壬
巳 未 午 申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辛金 일간이 午月에 출생하여 巳午未로 조열하니 조후가 시급하다. 年干
의 壬水가 年支 申金의 생을 받아 火를 억제하고 시간의 식신 癸水로 火를 제할 수 있
다. 식상제살(食傷制殺)의 명이다.

時 日 月 年

己 甲 丙 壬

巳 子 午 寅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丙午월에 출생하여 뜨거운데 年支의 寅木과 時支 巳火로 木火가 치열하니 조후가 필요하다. 년간의 壬水가 일지 子水에 뿌리를 두고 火氣를 식혀 주니 조후용신이다.

다음은 조후용신과 억부용신이 상반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억부용신이 우선하고 조후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면 억부용신보다 조후용신이 우선시 된다.

時 日 月 年

癸 乙 丁 甲

未 丑 丑 申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未 午 巳 辰 卯 寅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한랭한 계절인 丑월에 출생하여 時上으로 癸水가 투출되어 겨울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조후용신으로 丁火를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조후가 시급하지 않고 乙木이 財多로 신약하니 먼저 겁재 甲木을 억부용신 삼아 왕한 재를 다스려야 한다. 월간의 丁火가 도와 조후를 해결해주니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셋째, 사주에서 지나치게 태과하거나 또는 없는 것만 못한 오행은 병이 된다. 이것을 제거시켜 주는 것을 병약용신(病藥用神)이라고 한다. 가령 木 일주가 水가 왕한 亥子월에 출생하여 부목(浮木)이 되면 水가 병인데 이때 土가 水를 극제하여 병약용신

이 된다. 또한 사주에서 꼭 필요한 용신을 충, 극하여 괴롭히는 오행은 병이 되니 이때 병이 되는 오행을 극제하여 주는 오행은 약신(藥神)이 된다. 대세운에서도 용신을 충극하는 행운(行運)을 만나면 병이 된다. 병이 되는 오행을 제거하는 오행이 약신이며 사주의 병을 제거해주는 행운은 약운(藥運)이 되니 길하다.

다음은 강한 火가 병이고 水가 약(藥)인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戊 丙 丁 丁
子 申 未 巳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丙火가 未월에 출생하였는데 사주 천간에 丁, 丁과 년지의 巳火로 火氣가 태왕하여 병이 되었다. 그런데 시지의 子和 일지의 申이 申子습을 하여 火를 극제해주고 있으니 水가 병약용신이다. 그러나 용신 水를 극하는 용신지병이 되는 戌土를 제할 약신인 木이 사주에 없어 문제가 된다.

다음은 강한 土가 병이고 그 토를 극제하는 木이 약이 되는 사주이다.

時 日 月 年
甲 甲 戊 己
子 戌 辰 丑

甲 癸 壬 辛 庚 己 대운
戌 酉 申 未 午 巳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辰월에 출생하고 년주는 己丑, 일지 戌土까지 土가 많아서

병이 되고 있다. 시주의 甲木으로 병이 되는 왕한 土를 극제 해줄 수 있으니 비견 甲木이 병약용신이다. 재다신약(財多身弱)의 사주로 득비이재(得比理財)의 명이니 재물 복은 타고난 부자이다

넷째, 사주내의 오행들이 서로 심하게 상전(相戰)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서 통관시켜주는 오행이 통관용신이 된다. 金과 木이 서로 상전하고 있을 때는 水로 통관시켜주고 水와 火가 상전하고 있을 때는 木으로 木과 土의 상전은 火로 火와 金의 상전은 土로서 서로 상생관계를 이루도록 통관시켜 주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 통관용신이 사주내에 없으면 대운에서 올 때 발전하고 안정이 되며 또 사주에서 기신과 희신이 상전하고 있다면 통관운이 올 때 발복한다.

다음은 水와 火가 상전하고 있을 때 木이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丙 丙 壬 壬
申 寅 子 子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壬子년, 子월에 출생하여 水氣가 태왕하다. 사주 내에서 水와 火가 상전하니 木으로서 水生木, 木生火로 통관시켜야 한다. 왕한 관살 水기운을 통관시켜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일지의 寅木이 통관용신이 된다. 이런 경우를 살인상생격(殺印相生格)이라고 한다.

다음은 木과 土가 상전할 때 火가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甲 戊 乙 癸
寅 午 卯 卯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酉 申 未 午 巳 辰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卯월에 출생하고 년, 월, 시에 卯, 卯, 甲寅으로 木局을 이루었다. 木이 태과하여 戊土가 심하게 극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일지 午火가 寅午 火局을 이루고 木生火, 火生土를하여 일간 戊土를 보호하고 있다. 木과 土의 상전(相戰)을 통관시켜 주는 午火가 통관용신이 된다. 이러한 사주를 살중용인격(殺重用印格)이라고 한다.

다음은 火와 金이 상전 할 때 土가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己 丁 丙 丁
酉 酉 午 巳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丁火 일간이 午월에 출생하여 년, 월에 丙, 丁이 투간하여 신강하다. 지지에 酉金이 둘로 火金이 상전하고 있으니 時干의 己土로 통관시킨다.

다음은 土와 水가 상전하고 있을 때 金이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癸 己 己 戊
酉 亥 未 戌

乙 甲 癸 壬 辛 庚 대운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未月에 출생하고 비겁이 중중(重重)하여 매우 신강한데 일지의 亥水와 시간의 癸水를 旺한 土가 극하고 있다. 시지의 酉金이 土生金, 金生水로 상생시키는 통관용신이다.

다음은 金과 木이 상전 할 때 水가 통관용신이 되는 경우이다.

時 日 月 年

辛 癸 壬 甲

酉 酉 申 寅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寅 丑 子 亥 戌 酉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申월에 득령하고 일지 酉金, 년지 申金, 辛酉시의 생조로 신강해졌다. 金이 旺하여 金木이 상전하는 유형으로 월간 壬水가 金과 木을 통관시키니 통관용신이다.

이상은 억부, 조후, 병약, 통관용신에 대한 설명과 사례로 『적천수』의 중심사상인 중화원리에 기준하여 용신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중화는 사주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그 대상과 원리는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이나 한난조습의 균형을 맞추어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음양오행간에 강한 것은 덜어내고 약한 것은 더해주는 억부용신, 조열(燥熱)하거나 한습(寒濕)하면 중화를 잃으니 이를 조화롭게 하는 조후용신, 오행 간에 서로 대치하여 다투고 있을 때 이를 소통시켜주는 통관용신, 사주의 태과한 오행이 병이 될 때 이를 다스리는 병약용신과 같이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적천수』 용신론의 핵심인 중화로 거의 대부분 내격의 사주에서 취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논하였듯이 『적천수』 용신론의 또 다른 핵심은 강중적과(强衆敵寡)에 있으니 사주에서 어느 한 오행이 지나치게 왕(旺)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중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 왕한 오행의 기세를 따라 순응하여 종(從)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외격(外格)⁸⁸⁾의 사주에서 용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외격은 내격이 변하여 격을 이루었으므로 변격(變格)이라고도 하며 내격과는 달리 사주에서 가장 강왕한 오행의 기를 따른다. 즉 사주내의 오행이 일간을 중심으로 한 가지 오행의 기로 편중되어 구성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일간이 木이며 타간지가 모두 木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곡직격(曲直格) 등으로 명칭이 되며 왕한 木을 기준으로 순기(順氣)하는 오행을 따라 水, 木, 火가 길신이고 木과 상극되는 金, 土가 흉신이 된다. 또한 일간 자체가 아예 무근, 무기하고 타 육신 한 가지로 태왕(太旺)하여 그 세력을 쫓아 격과 용신을 이룰 때를 종격이라 하며 종하는 오행운이나 종한 오행을 생조하는 운이 길하다. 외격에서는 용·회·기·구·한신을 구별하기보다는 주로 길신과 흉신으로 구별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격들은 사주의 기가 모두 편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월지의 기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지를 충(沖)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며 흉하다."⁸⁹⁾ 외격의 종류에는 우선 종아격, 종재격, 종살격, 종강격, 종왕격, 종세격 등의 종격이 있으며 그 다음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혁격, 윤하격 등의 일행득기격이 있고 갑기합화토격, 을경합화금격, 병신합화수격, 정임합화목격, 무계합화화격 등의 화기격과 양신성상격 및 신살양정격 등이 있다.

외격의 성격 요건을 살펴보면 종강격은 인성이 태과하고 식상이나 재성이 없어야 하며 관성도 없으면 좋다. 종왕격은 사주에 관살이 없어야 하는데 인성이 있는 것은 상관이다. 종왕격은 오행에 따라 곡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혁격, 윤하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아격은 사주에 인성이 없고 비겁도 없어야 한다. 종재격은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없어야 한다. 종살격은 사주에 식상이나 인성이 없어야 한다. 종세격(從勢格)은 식상, 재성, 관성이 모두 힘이 있고 균정(均正)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종아격, 종재격, 종살격, 종세격은 일간의 뿌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기격은 종격보다 더 드문 경우로 일간이 타간(他干)과 합화하여 자신의 성질을 버리는 것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성격(成格)이 된다. 우선 일간의 합이 있어야

88) 연구자 주, 외격은 하나의 사주에서 격을 정할 때 월령에 의해서 격을 구하는 내격과 달리 월지 밖에서 태강한 오행이나 화기오행 등에 따라 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89)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pp. 344~345.

하는데 합화된 오행이 월지를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지지에 합화된 오행이 삼합국(三合局), 방국(方局) 혹은 전체세력으로 되어 있으며 천간으로 화기된 오행이 투출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없어야 하며 일간은 뿌리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합화된 오행이 합, 형, 충이 되면 안 된다.

중격이나 화기격에서는 중(從)되거나 화(化)되는 오행의 운이 오면 가장 좋은데 중이 되거나 화기되는 운을 생조하는 운이나 설기하는 운도 괜찮다. 반면에 중(從)이 되거나 화기되는 오행을 극하는 운은 나쁘다. 결론적으로 중격이든 화격이든 이루어진 오행이 격국용신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각 중격의 사주별로 종왕용신(從旺用神)의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종아격(從兒格)의 용신은 식상(食傷)이며 식상과 재성운이 길하고 인수와 관살의 운은 흉하다. 종아격은 반드시 월지가 식신, 상관이라야 하며 식상국을 이루게 되면 성립된다. 다른 중격과는 달리 종아격은 비겁이 있어도 식상을 생하여 문제가 없고, 재성이 없고 식상만 왕할 경우보다는 재성이 있어 식상생재가 되면 더 부귀하게 된다. 종아격은 문예, 교육, 육영사업 등에 길하지만 여자는 남편운, 남자는 자식운이 불리하다. 다음은 종아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乙 癸 丁 甲
卯 卯 卯 寅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卯月에 출생하여 사주가 거의 식상인 木으로 이루어지고 癸水를 생하는 인성과 비겁이 없으니 일간은 식상에 중(種)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종아격이 되며 월간의 丁火 편재가 식상을 꽃피우니 좋은 경우이다. 木, 火운이 길하고 土, 金운이 흉하다. 비겁 水運은 식상을 생하니 흉하지는 않다.

둘째, 종재격(從財格)은 일간이 무근하고 사주가 대부분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간이 재의 세력을 따라 종할 때 종재격(從財格)이라 한다. 식, 재, 관 운이 길하며 인수와 비겁운은 흉하다. 사주가 재성과 재를 생하는 식상이 강하면 최상이고 식상이 약하고 재, 관이 강하면 그 다음이다. 대운에 따라 식, 재, 관의 활용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종재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己 甲 己 戊
巳 戌 未 午

乙 甲 癸 壬 辛 庚 대운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未月에 출생하여 실령한 중에 사주가 모두다 재성 土로 이루어져 종재격이 성립된다. 火, 土, 金운이 길하고 水, 木운은 흉하다. 이 사주는 갑기합 화토격도 된다.

셋째, 종살격(從殺格)은 일간이 신약하여 강한 관살(官殺)을 따라 종하니 관살을 생하는 재성이 길운이며 인수와 비겁운은 흉하다. 관살이 태왕하면 좋고 관살을 극하는 식상(食傷)이 없어야 종살격이 성립한다. 관살이 태왕해도 인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관살을 설하여 일간을 도우므로 종(從)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살중용인격(殺重用印格)이 된다. 종살격이 성립되면 인성은 기신(忌神)이 된다. 다음은 종살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乙 己 乙 癸
亥 未 卯 亥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酉 申 未 午 巳 辰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卯月에 출생하고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고 천간으로 乙木 칠살이 강하게 투출하여 종살격이 되었다. 水, 木운은 길하며 火, 土, 金운은 흉하다. 대운의 흐름이 좋지를 못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결혼 후 화장품장사를 하는 시어머니와 갈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자의 사주이다.

넷째, 종왕격(從旺格)은 사주가 대부분 비겁으로 이루어져 극신강한 경우를 말하며 용신은 비겁이 되며 인수와 식상운이 길운이고 일간을 극하는 관살은 매우 흉하고 아울러 재성은 관성을 생조(生助)하므로 꺼린다. 다음은 종왕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庚 癸 辛 壬
申 亥 亥 子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亥월에 출생하여 득령, 득지하고 지지 亥중 壬水가 투출하였으며 庚辛金이 일간 癸水를 생하고 있다. 사주에 水를 거역하는 오행이 전혀 없으니 종왕격이다. 金, 水운은 길하고 火, 土운은 흉하다.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건축회사를 물려받아 주로 교량건설을 하고 있다.

다섯째, 종강격(從強格)은 사주의 대부분이 인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용신은 인수이며 비견과 인수는 길운이고 食財官운은 흉운이다. 인수와 비견은 일간을 생해주고 신강하게 해주어 길운이 되나 재성과 관살은 일간을 극하므로 흉운이 된다. 따라서 인성운에는 대길하며 식상운은 인성의 극제를 당하므로 불길하다. 다음은 종강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庚 庚 己 戊
辰 辰 未 午

乙 甲 癸 壬 辛 庚 대운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未월에 출생하고 사주 전체가 인성으로 이루어져 종강격을 이루었다. 초년에 庚申 辛酉대운의 흐름이 좋아 어머니가 화장품장사로 크게 부를 일으켰으나 이후 27세 壬 大운부터 운이 좋지 못하여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주이다. 土, 金운이 길하고 水, 木, 火운이 흉하다.

여섯째, 종세격(從勢格)이란 사주에 일간을 생조하는 인성과 비겁이 없고 식상, 재성, 관성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중에 식신과 관성의 사이에서 재성이 통관시키고 있는 유형의 사주격을 말하며 그 세력에 따른다 하여 종세격(從勢格)이라고 한다. 식, 재, 관 중에서 월지를 득한 것을 왕자(旺者)로 보며 또 재성을 용신으로 기준 삼아 재를 생하는 식상이 강하면 식, 재로 관성이 강하면 재관으로 용신을 정하며 식, 재, 관이 모두 길신이나 결과는 모두 좋게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운에 따라 식재운에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재관운에는 공관직으로 진출하여 변화가 많이 따른다. 다음은 종세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庚 丁 己 辛
戌 未 亥 亥

乙 甲 癸 壬 辛 庚 대운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丁火 일간이 亥월에 출생하였으나 인성과 비겁이 없고 戌土와 未土 식상

이 있고 戊土에 통근한 庚金과 辛金 재성이 왕(旺)한 중에 년지, 월지에 亥水가 있어 식, 재, 관의 기세가 고른 종세격을 이루었다. 식, 재, 관운은 길하고 인성, 비겁운은 흉하다.

이상 종격의 여러 경우에 따른 용신론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 일행득기격(一行得氣格)의 예를 살펴본다. 일행득기격은 『연해자평』에서 취급한 격국중의 일부이다. 위의 『적천수』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의 종격중에서 대부분 비겁으로 이루어진 종왕격(從旺格)과 같은 구조이기에 별도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오행이 일기(一氣)로 이루어진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일행득기격의 이론을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첫째, 곡직격(曲直格)은 곡직인수격이라고도 하며 나무가 자라는 특성을 따 곡직격이라 하였다. 木일간이 곡직격을 이루려면 甲, 乙일생이 亥, 子, 寅, 卯월에 출생하고 지지가 亥卯未 木局 및 寅卯辰 방국을 이루거나 寅卯亥子로 구성되어 있고 천간에서도 甲, 乙木을 만나 주중에 木이 태왕하여 타 오행이 그 기세를 거스를 수 없으면 그냥 木에 종(從)하게 된다. 사주 가운데 金이 있으면 곡직격이 못되고 운에서 土, 金을 만나는 것을 크게 꺼린다. 인수, 비겁, 식상운을 만나면 길하고 財殺운을 만나면 흉하다. 다음은 곡직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乙 甲 乙 甲
亥 寅 亥 寅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甲木 일간이 亥월에 출생하여 지지가 寅亥合 木局을 이루었는데 木氣를 극하는 金氣가 없으므로 순수한 곡직격이 되었다. 강한 木을 따라 水, 木, 火운이 길하고 격을 극하는 土, 金운은 흉하다.

둘째, 염상격(炎上格)은 火가 용신이며 木, 火, 土가 길신이고 水가 흉신이다. 즉 丙, 丁일생이 사주에 火氣가 태왕하여 火에 중하는 사주를 염상격이라 한다. 염상격이 되려면 丙, 丁일생이 지지에 寅午戌이나 巳午未가 대부분이고 천간에도 木, 火가 많으며 火를 극하는 水오행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丙, 丁일에 火가 태왕하더라도 壬, 癸, 亥, 子가 사주에 있으면 염상격이 될 수 없다. 다음은 염상격 사주의 예다.

時 日 月 年
甲 丁 丙 丁
午 未 午 巳

壬 辛 庚 己 戊 丁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丁火 일간이 午월에 출생하여 지지에 巳午未 火局이며 년, 월간이 丙, 丁으로 이루어져 염상격이다. 火氣를 거역할 수 없어 따를 수밖에 없으니 木, 火, 土운이 길하고 金, 水운은 흉하다.

셋째, 종혁격(從革格)은 庚, 辛일생이 巳酉丑과 申酉戌 金局을 이루고, 土와 金이 합세하거나 庚申, 辛酉가 사주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주가 태왕해지면 종혁격이 된다. 이 격도 종왕격과 마찬가지로 용신 金을 극하는 관살 火가 없어야 하며 지지에 관살이 암장된 경우는 격은 성립되어도 병이 있는 사주가 된다. 종혁격은 土, 金, 水가 길운이고 木, 火가 흉운이 된다. 다음은 종혁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戊 辛 庚 庚
戌 酉 辰 申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戌 酉 申 未 午 巳

위 사주는 辛金 일간이 庚辰월에 지지가 申, 酉金局을 이루어 왕한테 시간의 戊戌까지 金을 도우므로 金 세력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종혁격이 된다. 격의 기세에 순응하는 土, 金, 水운이 길하고 木, 火운은 흉하다.

넷째, 윤하격(潤下格)이 되려면 壬, 癸일생이 지지에 申子辰이나 亥子丑으로 水局을 이루고 천간도 金, 水로 이루어져야 한다. 丑土는 亥子를 만나면 亥子丑으로 水局을 이루고 辰土는 申子를 만나면 申子辰으로 水局을 이루므로 윤하격이 되므로 무방하다. 윤하격은 金, 水, 木운이 길운이고 火, 土운은 흉운이다. 다음은 윤하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壬 壬 壬 壬
子 辰 子 子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子월에 출생하고 지지에 子辰 水국을 이루었으며 사주 전체가 水로 이루어져 윤하격이다. 金, 水, 木운이 길하고 火, 土운이 흉하다.

다섯째, 가색격(稼穡格)은 土가 용신이며 火, 土, 金운은 길하고 水, 木운은 흉하다. 일간이 戊, 己土로서 지지가 辰, 戌, 丑, 未土로 이루어지고 사주에 토를 극하는 木이 없어야 한다. 가색이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로 사주에 土가 극히 많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다음은 가색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己 戊 戊 己
未 午 辰 未

甲 癸 壬 辛 庚 己 대운

戊 酉 申 未 午 巳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辰월에 출생하여 지지가 모두 火, 土이며 사주 전체가 土로 이루어져 가색격이다. 火, 土, 金운은 길하고 水, 木운은 흉하다.

이상 종격사주에 이어 일행득기격 사주의 용신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외격사주에서 또 하나의 격으로 취급되는 화기격(化氣格) 사주의 용신론에 대하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기격이란 천간의 오행이 합을 하여 金, 水, 木, 火, 土의 다섯 가지 오행으로 변하여 이루어지는 격이다. 일주가 힘이 없고 월간(月干) 또는 시간(時干)과 합이 되며 화신(化神)이 지지에 국을 이루고 있을 때 화기격이 성립된다. 화기격이 성립되면 역시 합화한 오행을 기준으로 길신과 흉신이 정해지며 합화하는 오행을 방해하는 오행이 있으면 가화격(假化格)이 되거나 또는 화기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므로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종격은 종하여 따르는 오행이 용신이지만 화기격은 합화하는 오행을 생하면 길하고 극하면 흉하다. 화기격도 종격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힘센 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일반적인 종격과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종격은 혼자서 남을 따라가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화기격은 남과 합하여 따라가는 것이니 일반 종격보다 종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합화(合化)의 기준은 우선 일간이 지지에 뿌리인 비겁과 인성이 없어야 한다. 천간에 비겁이나 인수가 있다 하여도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합화할 수 있다. 또한 화신(化神)이 월령에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확실하게 합화한다. 화기 오행이 왕성하면 화기 오행을 설기하는 오행이 용신이고 화신이 약하면 화신을 생하는 오행이 용신이다. 예를 들어 甲己合土일 때 土가 강하면 土, 金이 길하고 土가 약하면 火, 土가 길하며 土를 거스르는 오행인 木과 水는 흉하다.⁹⁰⁾ 다음에 화기격의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째, 갑기합화토격(甲己合化土格)은 甲일간이 己를 만나거나 己일간에 甲이 있으면 甲己합을 해서 土가 되는데 土의 절기인 辰, 戌, 丑, 未월에 출생했고 사주의 구성에 辰, 戌, 丑, 未의 土가 많으면 갑기합화토격이 된다. 다음은 갑기합화토격 사주의

90) 소재학(2009),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4』, 도서출판 하원정, pp. 126~127.

예이다.

時 日 月 年
甲 己 戊 丙
戊 未 戊 午

壬 癸 甲 乙 丙 丁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己土 일간이 戊월에 출생하여 시간의 甲木과 갑기합을 하고 戊戌월에 지지에 戊未 土가 있고 丙午火가 火生土를 하며 土를 거스르는 木과 水가 사주에 없으므로 갑기합화토격이 성립 된다. 火, 土 운은 길하고 水, 木운은 흉하며 金운은 사주의 구성에 따라 길, 흉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을경합화금격(乙庚合化金格)은 庚일생이나 乙일생이 사주의 천간에서 乙이나 庚을 만나 을경합을 하여 金으로 化하는 격을 말한다. 월지가 申, 酉, 戌월에 출생하고 지지에 巳酉丑이나 申酉戌 金局을 이루고 사주가 대부분 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주에 金을 극하는 丙, 丁, 巳, 午가 없으면 화기격이 되어 金을 용신으로 삼는다. 土, 金운은 길하며 木, 火운은 흉하다. 사주에서 水는 水生木으로 乙木의 기운을 생하여 합화에 방해가 되며 만일 亥水가 있어 乙木의根이 된다면 합이불화(合而不化)로 가화기격(假化氣格)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을경합화금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乙 庚 辛 戊
酉 戌 酉 申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卯 寅 丑 子 亥 戌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酉월에 출생하여 시간의 乙木과 을경합을 하였는데 酉월에 당령하고 년, 월, 일지가 申酉戌 金局에 월간에 辛金이 투출하여 을경합화금격이 되었다. 土, 金, 水운이 길하며 木, 火운이 흉하다.

셋째, 병신합화수격(丙辛合化水格)은 丙일생이나 辛일생이 사주의 천간에서 辛이나 丙을 만나 합하여 水로 변화 되는 격을 말한다. 亥, 子월에 출생하고 壬, 癸, 亥, 子의 水가 많으면 성립된다. 水로 용신을 삼아 金, 水운으로 가면 길하고 火, 土운은 불길하다. 木운은 사주의 환경조건에 따라 수기(水氣)할 경우는吉하고 丙火의 뿌리가 되거나 생을 해주는 역할이 될 경우는 불리하다. 다음은 병신합화수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丙 辛 壬 壬
申 亥 子 辰

戊 丁 丙 乙 甲 癸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위 사주는 辛金 일간이 子월에 출생하여 지지에 申子辰合 水局을 이루고 시상의 丙火와 병신합(丙辛合)으로 화하니 병신합화수격이 된다. 金水운은 길하고 火土 운은 흉하다.

넷째, 정임합화목격(丁壬合化木格)은 丁일생이나 壬일생이 사주의 천간에서 壬이나 丁을 만나 합하여 木으로 변화되는 격을 말한다. 寅, 卯월에 출생하고 甲, 乙, 寅, 卯가 많으면 정임합화목격이 된다. 단 木을 극하는 庚, 申, 辛, 酉 등의 金이 없어야 한다. 水오행은 천간으로 투간하여 丁火를 극할 경우 파격이 되어 크게 흉할 수도 있다. 다음은 정임합화목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丁 壬 乙 癸

未 寅 卯 亥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酉 申 未 午 巳 辰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卯월에 출생하여 월간에 정기 乙木이 투출하고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니 정임합화목격이 되었다. 水, 木, 火운은 길하고 土, 金운은 흉하다.

다섯째, 무계합화화격(戊癸合化火格)은 戊일생이나 癸일생이 癸나 戊를 만나 합하여 火가 되는 격을 말한다. 이 경우 巳, 午월에 출생하고 다른 곳에 水가 없고 丙, 丁, 巳, 午의 火가 많으면 화격이 성립된다. 주의할 것은 水가 투간하였거나 癸水의 뿌리가 되었을 경우 합이불화(合而不化)로 흉한 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己土가 투간하여 癸水를 극하면 과격이 되어 불길하다. 다음은 무계합화화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丁 戊 癸 丙

巳 戌 巳 戌

己 戊 丁 丙 乙 甲 대운

亥 戌 酉 申 未 午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巳월에 출생하고 지지에 火, 土가 왕성하니 戊癸合化 火格이 성립된다. 木, 火, 土운이 길하고 金, 水운이 대흉하다.

여섯째, 양신성상격(兩神成象格)이란 서로 상생하는 두 개의 오행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즉 木火, 火土, 土金, 金水, 水木 등과 같이 상생되는 양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말한다. 사주 전체에 두 가지 오행으로 구성되어 양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火金, 木土, 水火, 土水, 金木과 같이 상극되어 이루어지면 양신성상격이 성립되지 않으며 억부법(抑扶法)의 용신법에 따라 용신을 정해야 한다. 즉 양신성상격이란 두 가

지 오행이 상생하여 이루어질 때만 성립된다. 다음은 양신성상격 사주의 예이다.

時 日 月 年
戊 戊 戊 戊
午 午 午 午

甲 癸 壬 辛 庚 己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午月에 출생하여 土와 火로만 이루어져 화토양신성상격이 되었다. 戊土 일간이 종왕격이다. 사주에 양신을 방해하는 水와 木이 없으니 순수한 양신성상격이다. 火, 土운은 길하고 水, 木운은 흉하다.

時 日 月 年
庚 戊 庚 戊
申 辰 申 戊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寅 丑 子 亥 戌 酉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申月에 출생하여 土와 金 두 가지 오행으로 반반씩 양신으로 구성되어 양신성상격이 되었다. 戊土 일간을 수기하는 庚金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다. 수기하는 土, 金, 水운이 길하며 木, 火운은 대흉하다.

일곱째, 신살양정격(身殺兩停格)은 양신성상격과 같이 사주 내에 두개의 오행이 있으나 상생이 아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것은 양신성상격의 용신법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때는 일주의 강약을 구별하여 억부용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時 日 月 年

癸 戊 癸 戊
亥 戌 亥 戌

己 戊 丁 丙 乙 甲 대운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亥月에 출생하는데 두개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서로 대립하고 있어 신살양정격이다. 신강신약을 구별하여 내격법으로 취용해야 한다. 일간과 水가 상전을 하고 있는데 신약하므로 火, 土운이 길하고 金, 水, 木운은 흉하다.

2. 『자평진전』 용신이론

『자평진전』의 용신론은 격국론에 종속(從屬)된다. 순용(順用)할 것은 순용하고 역용(逆用)할 것은 역용하면 그것이 용신이 되는데 특히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라는 개념과 격국이라는 개념이 같은 것이 특징이다. 격이 곧 용신인 것이다. 희신(喜神)과 기신(忌神)으로 사주의 길흉과 성패를 판단하는데 행운을 보는 방법 또한 매우 정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자평진전』에 마치 공식과 같이 정리된 행운을 보는 방법을 익히면 성패길흉의 분석이 매우 세밀하게 될 수 있다.

『자평진전』에서는 고서의 여러 잡격(雜格)들을 배척하고 8정격만을 논하였는데, 4길격과 4흉격의 구분은 연해자평에서 논한 육신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평진전』 용신론의 가장 핵심은 격국의 순용과 역용에 있다.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은 오로지 월령(月令)에서 구한다.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여 생극관계를 판단하여 격국을 정한다. 인수와 식신, 재성과 정관은 길신들이니 순용(順用)해야 하고 겁재나 양인, 칠살과 상관은 흉신들이니 역용(逆用)해야 한다. 길신을 순용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재격이 식신의 상생을 얻는 것 ② 정관이 겁재로부터 재격을 보호하는 것 ③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격을 생해주는 것 ④ 인성이 식상으로부터 정관격을 보호하는 것 ⑤ 인수격이 관살의 생조를 좋아하는데 겁재가 인성을 보호하는 것 ⑥ 신왕한테 재성이 편인을 극제하여 식신격이 보호되는 것 등을 말한다. 반면에 흉신을 역용한다는 것

은 다음과 같다. ① 칠살격(七殺格)을 식신으로 제살하는 것 ② 상관격(傷官格)을 정인이 극제하는 것. ③ 상관격이 재를 생하는 것 ④ 양인격(羊刃格)을 관살이 제복하는 것 ⑤ 음일간의 월령이 겁재로 월겁격인데 이 때 정관으로 겁재를 극제하는 것 ⑥ 식신이 투출하여 월령 겁재를 설기하여 재성을 생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용신론에서는 격국의 성패(成敗)와 구응(救應)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격국의 성패란 하나의 사주가 격을 이루어서 성격(成格)이 되는 것과 격이 파괴되어 파격(破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격의 조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월령이 정관일 때 재성과 인성을 만나고 형충파해가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된다 ② 월령이 재성일 때 재왕생관이 되거나 식신이 투출하여 재를 생하면 재격이 성격된다 ③ 월령이 인수일 때 인수가 약한데 관살이 인수를 생해 주거나, 관성과 인성이 쌍전(雙全)하거나, 인성과 비겁이 모두 왕성한데 식상으로 설기하거나 인수가 너무 많은데 재성으로 제화하면 인수격이 성격된다 ④ 월령이 식신일 때 식신이 재성을 생하거나 또는 식신이 태왕하여 약한 칠살을 과하게 극제할 때 식신을 버리고 칠살을 취하면 식신격이 성격된다 ⑤ 월령이 칠살일 때 사주가 신왕하고 식신으로 제살하면 편관격이 성격된다 ⑥ 월령이 상관일 때 재성이 있거나 상관이 왕성할 때 상관패인(傷官佩印)이 되거나 상관이 왕성한데 칠살과 인수가 모두 투출하거나 상관격에 칠살은 있는데 재가 없을 때는 상관격이 성격된다 ⑦ 월지가 양인일 때 관살이 투출하여 양인을 제압하거나 식상이 양인을 설기하여 생재하면 양인격이 성격된다 ⑧ 월지가 건록일 때 정관이 투출하고 재성과 인수가 있거나, 식상이 투출하고 재성이 있거나, 칠살이 투출하고 식신으로 제복되면 건록격이 성격된다 ⑨ 살상효인(殺傷梟刃)의 4흉신도 성격이 될 수 있는데 편인격이 약할 때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면 성격이 되고 비겁이 재성을 극제할 때 상관이 통관시키면 재격이 성격이 된다. 또한 식신대살(食神帶殺)한 사주에 신약하여 편인이 쓰임새가 있을 경우에는 편인으로 성격이 된다. 그리고 신약한 재격이 칠살이 있는데 양인이 적살(敵殺)하면 성격이 된다.

반면에 파격의 조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관격이 상관으로 충극을 당하거나 형이나 충을 맞으면 파격이 된다 ② 약한 재격이 비겁이 많거나, 칠살이 투출하여 있으면 재격이 파격이 된다 ③ 인수격이 인성이 약한데 재성으로부터 충극을 당하거나, 인수가 태과하여 신강한데 칠살이 투출하면 파격이 된다 ④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 도식이 되거나, 식신격에 재성과 칠살이 모두 있으면 식신격이 파격이 된다 ⑤ 칠살격

이 재성을 만났는데 식신의 제복이 없으면 파격이 된다 ⑥ 금수상관격 이외에 상관격이 정관을 보았거나, 상관격에 재성이 있는데 칠살까지 있거나, 상관격이 미약한데 인수가 태과하여 신강하면 파격이 된다 ⑦ 월령 건록이나 양인격이 사주에 재관이 없거나 칠살과 인수가 투출하면 파격이 된다 ⑧ 재관인식(財官印食)의 4길신도 파격이 될 수 있다. 식신대살격(食神帶殺格)에 재성이 투출하여 있으면 파격이 된다. 木일간이 봄에 태어나 火를 쓰는데 정관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식신제살격(食神制殺格)에 정인이 있으면 오히려 파격이 된다. 재생관(財生官)된 사주에 식신이 투출하면 파격이 되고 정관격에 식신이 투출하면 파격이 된다.

또한 『자평진전』 용신론에서는 격국 [용신] 이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이 되고 파격이 되었던 사주가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격이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이 되는 성중유패(成中有敗)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면 성격이 되는데 이 때 상관이 투출하여 정관을 파극하거나, 정관이 합거(合去)되면 파격이 된다 ② 인수격이 식신이 투출하였는데 재까지 투출한 경우, 인수격이 칠살이 투출하였는데 다시 재성까지 투출하여 인수를 파극하는 경우는 파격이 된다 ③ 식신격 사주에 칠살과 인성이 있는데 더하여 재성까지 있는 경우, 식신이 칠살을 제복 하는데 사주에 인성이 있어 식신을 극하면 파격이 된다 ④ 상관격이 재성을 보아 성격이 되려는데 재성이 합거 된 경우는 파격이 된다 ⑤ 양인격에 정관이 투출하였는데 상관이 있어 정관이 파괴된 경우 양인격이 파격이다 ⑥ 월지 건록격이나 양인격에 정관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려는데 상관이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거나 정관과 칠살이 함께 투출한 경우는 파격이 된다 ⑦ 辛金이 亥月생인데 亥卯未木局이 되면 상관격이 재격으로 변한다. 이 때 만약 천간에 칠살 丁火가 투출하였다면 재격이 파격이 된다. ⑧ 인수격에 칠살이 투출하면 성격이 되는데 만일 이때 인성이 태과하다면 재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데 중간에 칠살이 있으면 오히려 파격이 된다.

반면에 격이 파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패중유성(敗中有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격에 상관이 있어 파격이 되려는데 중간에 정인이 있어 상관을 제화하거나, 정관과 칠살이 사주에 혼잡하여 있는데 합살을 하여 청해졌거나 정관격이 형충을 당했는데 합을 하여 형충을 해소해주면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된다 ② 재격이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를 설기하거나 정관이 겁재를 제압하거나, 재격이 칠살을 보아 파격이 되려할 때 식신이 투출하여 제살을 해주거나 칠살을 합거 시키면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된다 ③ 인수격이 재성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겹재가 있어 이를 해소하거나 재성을 합거 시키면 패중유성(敗中有成)이 된다 ④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 파격이 되는데 칠살이 투출하여 살인상생 하거나 재성이 편인을 극제 해주면 다시 성격이 된다 ⑤ 식신제살격에 인수가 있어서 인수가 칠살을 보호할 때 재가 있어서 인성을 극하여 식신을 보호하면 다시 성격이 된다 ⑥ 상관생재격에 칠살이 투출했으나 칠살이 합거 되면 다시 성격이 된다 ⑦ 양인격에 관살이 투출했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할 때 인수가 식상을 극해주면 다시 성격이 된다 ⑧ 월령이 건록, 양인인데 정관이 상관을 만나 파격이 되었을 때 상관이 합거되면 다시 성격이 된다 ⑨ 재를 쓰는데 칠살이 있어 파격이 될 경우에 칠살이 합거되면 다시 성격이 된다.

그리고 자평진전에서는 용신 [격국] 의 고저(高低)에 따라 사주의 귀천(貴賤)과 길흉을 달리 보았는데 격국의 귀천을 정하는 기준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으로 보았다.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는 기신이 있어도 그 기신이 합거(合去) 되거나 제화되어 오히려 일간을 도우면 유정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甲木일간이 酉月생인데 辛金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상관 丁火가 있으면 파격이 되나 壬水가 투출하여 丁壬합으로 상관을 합거하면 성격이 된다. 丁壬합木하여 일간과 유정하여진 것이다. ② 재격은 비겁이나 七殺이 투출하면 파격이 되는데 이 때 비겁과 칠살이 서로 합을 하면 오히려 비겁이 유정해진다. 예를 들어 甲木일간이 辰月에 출생하여 천간으로 戊土가 투출하면 편재격이 되는데 이 때 庚金 칠살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그러나 이 때 乙木 겹재가 있으면 乙庚합으로 七殺을 합거(合去)하니 두 기신이 한꺼번에 제거되어 좋아진다. ③ 癸水가 辰月에 출생하고 戊土가 투출하여 정관격이 되는데 지지에서 申子辰水局이 되면 나쁠 것 같지만 정관이 겹재를 극제 하니 문제가 없다. 무정이 유정하게 된 것이다 ④ 丙火일간이 辰月에 출생하고 戊土가 투출하여 식신격이 되는데 壬水 칠살도 함께 투출하였다면 서로 상극하니 무정해 보이지만 식신이 제살하므로 좋다. 이런 경우가 무정한 것이 유정하게 된 것이다 ⑤ 乙木이 酉月생인데 辛金이 투출하고 丁火 식신도 투출하였는데 신왕하고 식신도 강하다면 삼자를 모두 갖추었으니 대귀하다. 이런 경우를 유력하다고 한다 ⑥ 丙火 일간이 子月에 癸水가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천간으로 庚金이 투출하고 지지에 寅午가 있으면 삼자를 모두 갖추었으니 대귀하다. 유력하기 때문이다 ⑦ 甲木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였는데 천간에 丁火와 壬水가 함께 있으면 丁壬합으로 정관격이 성격된다. 이때 壬

水가 뿌리가 튼튼하면 유정하고 유력한 것이다 ⑧ 乙木 일간이 酉月에 辛金이 투출하면 칠살격인데 이 때 丁火가 투출하여 식신제살을 하면 성격이 된다. 이 때 丁火가 酉月에 장생(長生)이 되므로 유력하고 유정해진 것이다.

반면에 무정과 무력한 사주는 회신이 있어도 합거(合去) 되거나 파극(破剋)을 당하면 무정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甲木 일간이 酉月생인데 천간에 丁火 상관이 투출하였을 때 정인 癸水가 함께 투출하여 丁火를 극제하면 정관이 보호 되는데 이 경우는 壬水가 투출하여 丁火를 합하는 경우보다는 못하다. 이는 무정하기 때문이다 ② 乙木 일간이 酉月출생하였을 때 丁火가 투출하여 辛金을 제압하고 있을 경우에 칠살은 강한데 식신이 약하거나, 칠살은 약한데 식신이 강하거나, 칠살과 식신은 강한데 일간이 약할 경우는 무력한 것이다 ③ 인수격에 칠살이 투출하면 인수를 생하여 귀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왕하고 인수도 왕성하면 오히려 칠살이 투출하는 것을 꺼린다. 이 경우는 무정하게 된 것이다 ④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은 원래는 귀격이다. 그러나 신왕하고 상관은 약한데 인성이 태강(太強)하면 도식(倒食)이 되어 귀하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무정하게 된 것이다 ⑤ 사주에 칠살이나 식신이 모두 왕성한데 일간이 신약하고 뿌리가 약하면 극설교가(剋洩交加)가 되니 좋지 않고, 신강한 사주가 비겁이 왕한데 재성이 약하면 이 경우도 무력한 것이다 ⑥ 甲木이 辰月에 나서 편인 壬水를 보았는데 다시 丙火 식신을 보면 편인격이 식상으로 설기되어 좋은 것 같지만 丙火가 辰중의 戊土를 생하므로 인수격이 청(淸)하지 못하다. 이는 유정했던 것이 무정하게 변한 것이다 ⑦ 甲木 일주가 辰月에 출생하고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였는데 지지에 戊土가 있으면 진술충이 되어 辰土에 내린 壬水의 뿌리가 흔들리니 인수격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도 유정했던 것이 무정하게 바뀐 것이다.

또한 자평진전의 용신론 중에서 비록 미약하게 다루었지만 사주의 용신 [격국]은 조후(調候)를 따져야 하니 이는 영웅호걸도 시기를 잘 만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공을 하지만 시기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성공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격국과 조후문제를 논한 부분도 있다.

끝으로 자평진전의 용신론 중에는 辰, 戌, 丑, 未의 형충(刑沖)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辰, 戌, 丑, 未에 재성과 관성이 입묘(入墓)하면 형충을 하여야 발달하고 형충을 하지 못하면 발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잡기(雜氣, 辰戌丑未)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삼합국이 되면 쓸 수 있다. 오히려 형충이 있으면 파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출생하고 壬水가 천간에 투출하면 편인격이 되는데 지지에서 辰戌沖이 된다면 辰土에 내린 壬水의 뿌리가 흔들리니 결국 인성이 손상되므로 형충은 나쁜 것이다. 辰戌丑未의 충은 친구끼리 싸우는 것과 같은 붕충(朋沖)으로 土는 손상이 없으니 土가 재성이나 관성이라면 충으로 발동하니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외 고(庫)에 들어 있는 것들은 충(沖)으로 인하여 뿌리가 뽑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이론은 버려야 한다. 하지만 충으로 인해 발달하는 경우도 있다. 癸水 일주가 辰월에 출생하고 戊土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지지에서 辰戌충이 되더라도 파격이 되지 않는다. 정관격이니 辰戌沖으로 土가 발달하여 좋은 것이다. 土가 재관일 경우 충이 되어도 나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은 좋지 않다.

이상 『자평진전』의 용신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는데 『자평진전』 용신론의 궁극적 특징은 순역용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4길신과 4흉신으로 격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원칙을 달리하고 있다. 정관, 재성, 정인, 식신은 4길신으로 분류하고 칠살, 상관, 양인, 편인은 4흉신으로 분류하여 4길신은 순용하고 4흉신은 역용하는 원리가 『자평진전』 용신론의 핵심이론으로 이러한 원칙을 따져서 정하는 용신을 순역용신(順逆用神)이라고 한다. 자평진전에서는 월지 정기(正氣)를 위주로 격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투출된 월지의 지장간이나 지지의 합국(合局) 등은 격을 구성하는 보조적인 요소로 보는데 4길신의 격이 순용되거나 4흉신의 격이 역용되면 성격을 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이면 파격을 하는 것이다. 순용과 역용을 주장하고 있는 『자평진전』에서는 성격과 파격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성격과 파격의 조건을 정리하면 <표Ⅲ-2> ~ <표Ⅲ-5>와 같다.

<표Ⅲ-2. 1차成格表>⁹¹⁾

正官格	①財星이나 印星이 있을 때 ②傷官, 劫財, 七殺, 刑沖 등이 없을 때
財格	①正官이 있을 때 ②食傷이 있을 때(傷官이 있을 때는 평범)
印綬格 (偏印格)	①印綬와 正官이 兩全할 때 ②印綬가 輕한데 七殺이 있을 때 ③편인이 태과할 시 재성을 만났을 때 ④편인투식(偏印透食: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이 되었을 때
食神格	①食神生財 할 때 ②食神帶殺시 無財일 때
七殺格	①食神制殺 할 때 ②殺印相生 할 때 ③身殺兩停을 이룰 때
傷官格	①傷官生財 할 때 ②傷官佩印(傷官旺한데 印綬有根)이 되었을 때 ③상관이旺하고 신약할 때 칠살 투출하고 인성도 있을 때 ④傷官帶殺시 財가 없을 때
羊刃格	①官殺 투출 시 傷官이 없을 때 ②食傷 투출 시 財星을 만났을 때
建祿格	①正官이 투출하였을 때 ②食傷 투출 시 財星을 만났을 때

<표Ⅲ-3. 2차成格表>⁹²⁾

正官格	①傷官이 있을 때 財星이나 印綬 투출하면 ②七殺이 있을 때 合殺하면
財格	①比劫 있을 때 食傷이 투출하면 ②比劫 있을 때 正官이 比劫을 제압하면 ③七殺이 있을 때 食神으로 七殺을 제압하면 ④七殺이 있을 때 羊刃이 합살하면
印綬格 (偏印格)	①財가 있을 때 比劫이 財를 제압하면 ②財가 있을 때 財星을 合去하면
食神格	①偏印이 있을 때 財星이 투출하면 ②棄食取殺에 印星이 투출하면
傷官格	①財가 있는데 七殺이 투출하였을 시 七殺을 合去하면
羊刃格	①官星이 용신일 때 食傷이 있다면 印綬가 있을 시
建祿格	①正官 용신인데 傷官을 만났을 때 상관을 合去하면 ②財가 용신에 七殺이 있을 때 七殺을 合去하면

91)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5.

92)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p. 20.

<표Ⅲ-4. 1차敗格表>⁹³⁾

正官格	①傷官을 만나면 ②七殺을 만나 혼잡 되면 ③正官이 刑沖이 되면
財格	①財가 輕한데 비겁이 重하면 ②七殺이 투출하여 財生殺이 되면
印綬格 (偏印格)	①印綬가 輕한데 財가 투출하면 ②신왕한데 七殺이 천간으로 투출하면
食神格	①印綬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②財星이 있는데 칠살이 투출하면
七殺格	①칠살이 용신인데 身印兩旺한 것 ②財를 만나고 七殺을 제압하지 못하면
傷官格	①金水傷官格이 아닌데 正官이 투출하면 ②傷官生財가 되었는데 七殺이 투출하면 ③傷官佩印에 상관이 輕하고 身이 太旺하면
羊刃格 建祿格	①사주에 官星이 없을 때 ②財星이 있을 때 食傷이 투출하지 않으면

<표Ⅲ-5. 2차敗格表>⁹⁴⁾

正官格	①財가 있는데 傷官까지 투출 하였을 때 ②正官이 투출했지만 正官이 合去 되었을 때
財格	①正官이 투출 하였는데 상관까지 투출 하였을 때
印綬格 (偏印格)	①食傷이 투출하면서 財까지 투출하였을 때 ②七殺이 투출하였는데 재까지 투출하였을 때
食神格	①食神帶殺 시 재성이 투출 하였을 때 ②印星이 있는데 七殺을 만났을 때
七殺格	①食神으로 제복하는데 印星이 투출하였을 때
傷官格	①傷官生財인데 財星이 合去 되었을 때 ②傷官佩印인데 印綬가 沖去되거나 合去되면
羊刃格 建祿格	①正官이 투출했는데 傷官을 만났을 때 ②七殺이 투출했는데 七殺이 合去 되었을 때 ③신약 할 때 財가 투출했는데 또 七殺을 만났을 때

93)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p. 21.

94) 이용준(2004),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論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6.

3. 『궁통보감』 용신이론

『궁통보감』에서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에서 조후에 필요한 오행을 용신으로 설정하고 있다. 열 개의 일간이 태어난 계절에 따라 뜨거우면 식혀주고 차가우면 따듯하게 해주는 방법론을 조후용신(調候用神)이라고 한다. 그 중추적 내용은 일간별로 계절의 배합에 따른 희기(喜忌)를 따지는데 열 개의 천간별로 월에 따라 용신과 희신을 구분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후용신의 근본이 된다. 다른 명리이론서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논리로 용신을 설정하지만 『궁통보감』에서는 오직 일간과 월지를 대조하여 각 십간 별로 음양의 상태와 성정, 월령에 따른 조후의 배합 등으로 용신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궁통보감』에서는 열 개의 천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일간별로 기후의 배합에 따른 득실을 따져 필요한 오행을 배정하여 용신을 설정한다. 12개의 지지별로 조후 용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로 甲木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은 이른 봄이므로 찬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 丙火로 조후하고 癸水로 윤택하게 하고 庚金과 丁火가 함께 있으면 더욱 좋다. 卯月은 木기운이 강하므로 庚金으로 극제해야 하며 戊土로 庚금을 보호해야 하는데 丁火가 투출하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이 되어 더욱 좋다. 辰月은 木기운이 약하다. 우선 庚金을 쓰며 다음으로 壬水를 써서 庚金의 기운을 통관하여 일간 甲木을 돕는다. 巳月은 火氣가 세력을 얻으므로 癸水로 조후하고 丁火로 보좌하여 목화통명을 이루고 庚金으로 보좌한다. 午月은 水의 기운이 허하고 뜨거운 계절이므로 癸水를 먼저 쓰고 丁火는 庚金이 강할 때 보좌하여 쓰며 庚金은 水의 근원으로 삼는다. 未月은 午月과 같이 水기운이 허하고 뜨거운 계절이므로 午月과 같은 이치로 본다. 未月은 삼복(三伏) 중에 찬 기운이 생기므로 丁火를 먼저 쓰고 庚金과 癸水로 보좌한다. 申月은 金水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丁火로 金을 제련하고 庚金으로 甲木을 다듬는데 丁火가 없는 경우는 壬水로 살인상생(殺印相生)을 시킨다. 酉月은 金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火의 제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丁火로 金을 제련하고 丙火로 조후하며 그 다음 庚金을 쓴다. 戌月은 木기운이 사라지는 계절이다. 丁火로 관살을 극제하고 癸水로 윤택하게 하며 戊土와 庚金으로 보좌한다. 亥月은 壬水가 건록지(建祿地)에 있어 甲木이 부목(浮木)될 우려가 있다. 庚金으로 甲木을 다듬고 丁火로 庚金을 제련하며 丙火로 조후하고 戊土로 제방을 쌓아 水기운을 막는다. 子月은 매우 추운 시기이므로 丁火를 먼저 쓰고

庚金으로 甲木을 쪼갬다. 그리고 丙火로 조후한다. 丑月은 만물이 살 수 없는 추운 계절이므로 庚金을 사용해서 甲木을 쪼개고 丁火를 끌어다 쓰며 丙火로 따뜻하게 조후한다.⁹⁵⁾

둘째, 월별로 乙木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乙木은 아직 찬 기운이 있는 상태이므로 丙火로 따뜻하게 해주고 癸水로 자양한다. 卯月의 乙木은 丙火를 써서 빼어난 기운이 있게 하고 癸水로 나무를 자라게 한다. 辰月은 양기가 점점 강해지는 계절이므로 癸水로 乙木을 자유했고 丙火로 빼어난 기운을 발휘하게 한다. 巳月은 火氣가 세력을 얻고 水가 절지(絶地)에 들므로 癸水로 조후하고 丙火로 보조하며 庚金은 사주구조에 따라 쓴다. 午月은 열기가 뜨거우니 하지(夏至) 전에는 癸水로 조후하고 하지 후에는 삼복(三伏) 중에 음기(陰氣)가 생겨나니 丙火와 癸水를 같이 쓴다. 庚金은 사주구조에 따라 사용한다. 未月은 火氣가 물러가고 나무가 시드는 계절이므로 癸水로 乙木을 생하고 丙火는 사주에 金水가 많은 경우에만 쓰며 庚金은 사주구조에 따라 겸용한다. 申月은 金기운이 사령하므로 丙火로 조후하고 제살하며 癸水로 관인상생을 시키고 己土로 보좌한다. 酉月은 추분 전 상반기에는 癸水로 생을 해주고 丙火로 조후하고 제살한다. 壬水는 癸水가 없을 때만 쓴다. 그리고 추분 후 하반기에는 햇빛을 보아야 하니 丙火로 조후하고 제살하며 癸水로 관인상생을 해주고 壬水는 癸水가 없는 경우에 쓴다. 戌月에는 나무가 뿌리가 마르고 잎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癸水로 乙木을 자양해주고 辛金으로 癸水의 근원을 삼는다. 亥月은 壬水가 사령하여 조후가 시급하므로 丙火로 양기를 주고 戊土로 부목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子月은 나무와 꽃이 얼어붙는 시기이므로 丙火를 긴히 사용하여 조후를 맞춰주고 戊土로 물을 막고 己土로 보좌해준다. 丑月은 한기가 몹시 강하므로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준다.⁹⁶⁾

셋째, 월별로 丙火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丙火는 월에서 장생지를 얻어 火氣가 점점 강해진다. 그러므로 壬水로 火氣를 제어하고 庚金으로 水를 생하여 보좌한다. 卯月은 양기가 점점 상승하므로 오로지 壬水를 사용한다. 己土는 壬水가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辰月은 열기가 강해지는 달이니 壬水를 사용하여 열기를 식혀

95)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18~19.

96)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0~21.

주고 壬水가 없는 경우에는 甲木을 사용한다. 사주에 甲木이 없는 경우에는 庚金 편재로 土를 설기하여 壬水를 돕는다. 巳月은 火氣가 강하므로 壬水를 써서 火氣를 다스려 수화기제(水火既濟)를 이루고 庚金으로 水氣를 생해준다. 壬水가 없을 때는 癸水를 쓴다. 午月은 월령이 양인이라 매우 염열(炎熱)하므로 壬水로 열기를 식히고 庚金으로 水氣를 생해준다. 未月은 화염토조(火炎土燥)하므로 壬水로 자운하고 庚金으로 壬水를 생해준다. 申月은 양기가 쇠약해지는 달이다. 壬水를 써서 빛이 퍼지도록 하고 壬水가 많을 때는 戊土로 제화한다. 酉月의 丙火는 황혼의 태양이니 호수에만 작은 빛이 있다. 壬水는 신왕한 경우에 사용하고 癸水는 壬水가 없을 때 사용한다. 戌月은 불기운이 약해지므로 甲木을 써서 火氣를 복돋워주고 壬癸水로 자운해 준다. 亥月은 丙火가 월령을 못 얻었으므로 사주구조에 따라 용신을 정한다. 甲木으로 강한 관살을 설기하여 약한 丙火를 돕고 戊土로 관살을 제화한다. 庚金은 木기운이 강할 때 쓰고 壬水는 비겁으로 火氣가 강할 때 쓴다. 子月은 陽기운이 시작하지만 용신은 亥月과 같다. 甲木으로 강한 水의 기운을 설기하여 일간을 돕고 戊土로 관살을 제화한다. 庚金은 木기운이 강할 때 쓰고 壬水는 비겁이 왕할 때 사용한다. 丑月은 기운이 陽氣를 향해 가므로 추위를 겁내지 않는다. 甲木으로 식상을 제화하여 설기를 막고 壬水로 귀함을 얻는다.⁹⁷⁾

넷째, 월별로 丁火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丁火는 정인이 사령하여 木이 강하다. 庚金으로 甲木을 쪼개고 甲木으로 丁火를 이끈다. 卯月은 습목으로 丁火를 태우지 못한다. 庚金으로 먼저 甲木을 쪼개고 甲木으로 丁火를 인도한다. 辰月은 월령의 戊土가 丁火를 설기하여 약하게 만든다. 甲木으로 土기운을 조절하고 庚金으로 甲木을 쪼개 丁火를 도와준다. 巳月은 丁火가 계절의 도움을 얻어 왕성하다. 그러므로 壬水로 왕성한 火氣를 조절 해주고 甲木으로 보좌해 준다. 庚金은 甲木을 쪼개어 목화통명을 만들어준다. 午月은 丁火의 건록지로 火기운이 강하므로 壬水로 火氣를 다스려주고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준다. 庚金으로는 甲木을 쪼개며 壬水를 도와준다. 未月은 丁火가 약해지고 찬 기운이 서서히 시작된다. 그러므로 甲木으로 약한 丁火를 생해주고 壬水로 甲木을 도와주며 庚金으로 甲木을 쪼개어 준다. 申酉戌월에는 火기운이 물러나므로 丁火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甲木으로 丁火를 돕는데 甲木이 없으면 乙

97)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2~23.

木으로 도와주고 庚金으로는 甲木을 쪼개어 丁火를 도와주며 丙火로 金기운을 조절하여 甲木을 도와준다. 申月에는 甲木과 丙火를 위주로 하고 酉月에는 甲木과 丙火와 庚金을 모두 쓰며 戌月에는 甲木으로 戌土를 제화해 준다. 亥子丑 겨울에는 계절이 추운 때이므로 丁火가 약하다. 甲木으로 목화통명을 이루고 庚金으로 보좌해 준다. 癸水와 戌土는 사주구조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⁹⁸⁾

다섯째, 월별로 戊土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戊土는 관살이 강하므로 우선 丙火로 따뜻하게 살인상생을 시키고 다음 甲木으로 토를 해치며 癸水로 자운(滋潤)해준다. 卯月의 戊土도 관살의 기운이 강하므로 丙火를 써서 따뜻하게 해주고 다음 甲木으로 토를 해쳐주며 癸水로 자운해 준다. 辰月은 월령에서 戊土가 사령한다. 그러므로 우선 甲木으로 토를 제화하고 다음에 丙火로 따뜻하게 해주며 癸水로 자운(滋潤)해 준다. 巳月에는 양기가 상승하니 甲木으로 강한 戊土를 극제하고 丙火와 癸水로 보좌해 준다. 午月은 火의 기운이 매우 강한 달이므로 壬水를 써서 火氣를 제화한다. 甲木은 壬水가 있을 때만 쓰고 丙火와 辛金은 사주구조에 따라 사용한다. 未月의 戊土는 여름의 흙이라 메마르다 그러므로 먼저 癸水를 써서 자운해 주고 癸水가 있을 때는 丙火로 수화기제를 이루며 甲木으로 토를 제화한다. 申月에는 양기가 들어가고 음기가 나오니 먼저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주고 癸水로 운택하게 해주며 甲木으로 소토를 한다. 酉月의 戊土는 설기를 당하여 약하고 차므로 우선 丙火로 일간을 도와주고 조후를 해결하며 壬癸水를 사용하여 자운(滋潤)하게 한다. 戌月에는 戊土가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甲木으로 강토(強土)를 극제하고 癸水로 甲木을 도와주며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준다. 亥月에는 甲木으로 戊土를 신령스럽게 해주고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준다. 子月의 戊土는 매우 차고 얼어붙어 있다. 그러므로 丙火로 조후해주고 甲木으로 보좌 해준다. 丑月에는 토가 매우 차고 얼어붙는다. 그러므로 丙火로 조후해주고 甲木으로 丙火를 보좌해준다.⁹⁹⁾

여섯째, 월별로 己土의 용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에는 아직 丑月의 기운이 남아있어 눈발이 얼어붙어 있다. 그러므로 丙火로 조후해준다. 卯月의 己土는 甲木

98)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4~25.

99)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6~27.

과 癸水와 丙火가 있어야 한다. 甲木으로 소토하고 癸水로 윤택하게 하고 丙火로 따뜻하게 해준다. 辰月은 곡식을 가꾸는 시기이다. 丙火로 먼저 태양을 비추어 주고 癸水로 땅을 윤택하게 해주며 甲木으로 水와 火를 소통 시켜준다. 巳午未 여름의 己土는 癸水로 마른 땅을 적셔주고 丙火로 햇볕을 비춰 곡식을 자라게 하며 辛金으로 癸水を 보좌해 준다. 申酉戌月은 겉은 비고 안은 채워지며 찬 기운이 일어나는 때이다. 그러므로 가을의 己土는 癸水로 金기운을 설기하며 땅을 윤택하게 해주며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따뜻하게 해주고 辛金으로 癸水を 생해주며 甲木으로 丙火를 보좌해 준다. 亥子丑 겨울의 己土는 흙이 얼어붙고 축축하다. 그러므로 丙火로 따뜻하게 조후를 맞추어주고 甲木으로 丙火를 도와주며 丁火와 戊土로 보조해 준다.¹⁰⁰⁾

일곱째, 월별로 庚金의 용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庚金은 丙火를 써서 庚金을 따뜻하게 해주고 甲木으로 보좌해준다. 丁火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卯月에는 지장간의 乙木과 庚金이 합하여 강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丁火로 庚金을 제련하며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주고 庚金으로 甲木을 쪼개어 준다. 丙火는 丁火가 없는 경우에 쓴다. 辰月에는 지장간의 戊土로 庚金이 묻힐 수 있으므로 甲木으로 소토해주고 丁火로 보좌해준다. 巳月에는 火氣는 건록지이고 庚金은 장생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壬水를 써서 중화를 이루고 戊土와 丙火로 보좌한다. 단 선후를 따지지 말고 사주 구조에 따라 적절히 써야 한다. 午月에는 火氣가 강하여 庚金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壬水로 火氣를 조절하고 癸水로 壬水를 도와준다. 未月의 庚金은 찬 기운이 생기고 土의 기운이 생해주니 강하다. 丁火를 먼저 쓰고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준다. 申月의 庚金은 매우 강하고 예리한 기운이 있다. 그러므로 丁火로 제련하고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준다. 酉月의 庚金은 양인의 기운으로 매우 강하다. 丁火로 金을 제련하고 甲木으로 丁火를 생해주며 丙火를 겸해서 사용한다. 戌月은 戊土가 사령하여 土기운이 강하다. 그러므로 우선 甲木으로 소토하고 壬水로 甲木을 도우며 庚金을 씻어내어 빛나게 한다. 亥月은 기운이 차고 한랭하다. 그러므로 우선 丁火로 庚金을 제련하고 丙火로 조후를 도와준다. 子月은 차고 냉한 계절이다. 그러므로 丁火로 庚金을 제련하고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주며 丙火로 따뜻하게 조후를 맞추어 준다. 丑月은 차고 냉한 동토(凍土)의 달이다. 그러므로 丙火로 먼저 조후하고 丁火로 庚金을 제련하며 甲木으로 불기

100)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8.

운을 돕는다.¹⁰¹⁾

여덟째, 월별로 辛金의 용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어 辛金을 돕지 못한다. 巳土로 辛金을 돕고 壬水로 辛金을 씻어주며 庚金으로 월에 있는 甲木을 조절한다. 卯月은 陽氣가 일어나므로 壬水로 辛金을 씻어주고 甲木으로 土를 조절한다. 辰月의 辛金은 월령의 戊土가 일간을 도우니 강하다. 壬水로 金을 드러나게 하고 甲木으로 월령의 戊土를 소토한다. 巳月은 뜨거우니 壬水로 열기를 식혀주고 癸水로 보조하며 甲木으로 물을 막는 土를 조절한다. 午月은 丁火가 사령하니 辛金이 매우 약하다. 壬水로 조후하고 巳土로 약한 辛金을 도우며 癸水로 壬水를 도와준다. 未月은 지장간의 巳土가 辛金의 빛을 가릴 수 있다. 壬水로 辛金을 윤택하게 하고 庚金으로 壬水를 보좌한다. 申月은 庚金이 사령하여 金의 기운이 왕성하므로 壬水로 왕성한 金氣運을 설기해준다. 甲木과 戊土는 사주구조를 참고하여 사용한다. 酉月은 월령에 辛金이 사령하여 일간이 매우 왕하다. 그러므로 오로지 壬水로 辛金을 씻어주고 유통시킨다. 戌月은 戊土가 사령하여 일간이 왕성하다. 그러므로 壬水로 왕성한 金기운을 설기시키고 甲木으로 戊土를 소토한다. 亥月은 차가운데 陽氣가 있다. 그러므로 壬水로 辛金을 씻어 드러내주고 丙火로 조후를 맞추어 준다. 子月은 癸水가 사령하여 차고 냉하다. 그러므로 丙火로 조후를 맞추고 壬水로 辛金을 빛나게 하며 甲木과 戊土로 보좌해준다. 丑月은 매우 차고 냉하다. 그러므로 우선 丙火로 조후를 해결하고 壬水로 壬水로 辛金을 드러내고 戊土와 巳土로 水의 기운을 조절한다.¹⁰²⁾

아홉째, 월별로 壬水의 용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은 壬水가 병궁(病宮)에 들어 약하니 庚金으로 생해주고 丙火로 조후하며 戊土로 물을 막아준다. 卯月은 더운 기운 속에 찬 기운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戊土로 壬水를 제화하고 辛金으로 水의 근원을 삼으며 庚金으로 木의 기운을 조절한다. 辰月은 지장간의 戊土가 壬水를 막을 수 있으므로 甲木으로 소토하고 庚金으로 壬水를 보좌한다. 巳月의 壬水는 丙火가 사령하니 약하다. 그러므로 壬水 비견으로 일간을 돕고 辛金으로 水의 원천을 삼고 庚金으로 보조해준다. 午月은 丁火가 사령하니 壬水는 약하다. 그러므로 겁재 癸水로 丁火를 극

101)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29~30.

102)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31~32.

제하고 庚金으로 일간을 도우며 辛金으로 보조한다. 未月은 己土가 사령하니 壬水는 역시 약하다. 그러므로 辛金을 壬水의 근원으로 삼고 甲木으로 土를 제극하며 癸水로 壬水를 도와준다. 申月은 壬水를 생하니 물이 넘칠 수 있다. 그러므로 戊土로 壬水를 막고 丁火를 써서 庚金을 제극 하며 戊土를 도와준다. 酉月에는 금백수청(金白水淸)이 된다. 그러므로 甲木으로 戊土를 극제하여 흙탕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庚金은 甲木이 없을 때만 쓴다. 술월은 水氣로 進氣하니 壬水의 성격이 너그럽다. 甲木으로 소토해주고 丙火로 조후한다. 亥月은 壬水가 사령하니 일간이 매우 왕하다. 그러므로 戊土로 壬水의 범람을 막고 丙火로 戊土를 도우며 庚金으로 甲木이 戊土를 해하는 것을 막아준다. 子月은 壬水의 양인이 되므로 매우 차고 왕하다. 그러므로 戊土로 물을 막고 丙火로 조후하며 戊土를 도와준다. 丑月은 한기가 극에 달했다가 약해지는 시기이다. 丙火로 조후하는데 甲木으로 丙火를 도우며 丁火로 丙火를 보좌 해준다.¹⁰³⁾

끝으로 癸水의 월별 용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寅月의 癸水는 빗물처럼 유약하니 辛金으로 생해주고 丙火로 따뜻하게 하며 庚金으로 보좌한다. 卯月은 乙木이 사령하니 癸水가 약하다. 그러므로 庚金으로 수원(水源)을 삼고 辛金으로 보조한다. 辰月은 곡우를 기점으로 전후로 나누어 본다. 상반기에는 火氣가 강하지 않으므로 오직 丙火를 쓰나 하반기에는 丙火를 쓰며 辛金과 甲木으로 보조한다. 巳月은 丙火가 사령하여 조열하므로 辛金으로 癸水를 생하며 庚金으로 보조해주고 壬水로 辛金을 극하는 丁火를 합거한다. 午月은 癸水가 뿌리가 전혀 없어 취약하므로 庚辛金으로 일간을 생해주고 壬癸水로 일간을 도와준다. 未月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금기운에 차이가 있으므로 용신이 조금 다르다. 전체적으로는 庚辛金으로 일간을 생해주고 壬癸水로 돕는데 상반기에는 火氣가 강하므로 비겁으로 火氣를 잡는 게 우선이고 하반기에는 금기운이 오니 비겁을 쓰지 않아도 된다. 申月에는 庚金이 사령하여 일간이 예리하고 강하다. 그러므로 丁火로 金을 제련하고 甲木으로 丁火를 도와준다. 酉月의 癸水는 금백수청(金白水淸)하다. 辛金으로 일간을 생해주고 丙火로 조후한다. 戌月에는 지장간의 戊土가 일간을 강하게 제극하니 辛金으로 수원(水源)을 삼고 甲木으로 소토하며 壬癸水로 甲木을 보좌한다. 亥月의 癸水는 강한데 亥 중의 甲木으로 인해 강하면서도 약하다. 그러므로 庚辛金으로 일간을 돕고 丁火로 金을 조절한다. 子月은 추운 계절이므로 우선 丙火로 조후하고 辛金으로 癸水를 도와준다. 丑月의 癸水는 냉기가 심하니 우선 丙火로 조후

103)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33~34.

하고 壬水로 水火가 어울려 태양을 빛나게 하며 戊土로 水의 기운을 조절해준다.¹⁰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통보감』은 일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조후상으로 필요한 오행에 기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열 개 일간의 계절에 따르는 특성을 살펴 보는데서 출발하여 일간의 성정이 뜨겁고 조열하면 식혀주고 차고 냉하면 따듯하게 데워주는 조후(調候)의 방법을 제시하며 일간별로 기후의 배합에 따른 득실을 따져 월지별로 희신과 용신을 정리함으로써 조후용신의 근본 바탕을 마련하였다.

『궁통보감』은 월별로 희용신을 설명하기에 앞서 십간의 기본과 희기(喜忌), 춘하추동 계절에 따른 오행의 계절별 총론, 실제 사주풀이 등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궁통보감』에서는 이전의 다른 명리이론들과 달리 오로지 일간과 월지를 대조하여 각 십간의 음양의 상태와 성정, 월령에 따른 조후의 배합 등으로 희용신이 있는지 살펴보고 격국의 고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면에서 보면 궁통보감의 이론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 사주의 전체적인 십성의 구조상태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간과 월지에 기준한 격국의 상태에 따르는 오행의 상제와 변화를 무시하고 있어 명리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의 기질론에 합당하지 않고 조후와 물상론으로만 용신을 설명하여 정통 명리학에 위배되는 일면도 있다. 열 개의 천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필요한 용신과 보조오행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Ⅲ-6>과 같다.

104) 이을로(2007), 『窮通寶鑑講解』, 동학사, pp. 35~36.

<표Ⅲ-6 십간의 월별 조후용신표>¹⁰⁵⁾

일 간	월지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甲	용신	丙	庚	庚	癸	癸	癸	庚	庚	庚	庚	丁	丁
	보조	癸	丙戊 丁巳	丁壬	丁庚	丁庚	庚丁	丁壬	丁丙	甲壬 丁癸	丁戊 丙	庚丙	庚丙
乙	용신	丙	丙	癸	癸	癸	癸	丙	癸	癸	丙	丙	丙
	보조	癸	癸	丙戊		丙	丙	癸己	丙丁	辛	戊	戊己	
丙	용신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甲	甲	壬	壬
	보조	庚	己	甲	庚癸	庚	庚	戊	癸	壬	戊庚 壬	戊己	甲
丁	용신	甲	庚	甲	壬	壬	甲	甲	甲	甲	甲	甲	甲
	보조	庚	甲	庚	甲庚	甲庚	子	庚丙 戊	庚丙 戊	庚戊	庚	庚	庚
戊	용신	丙	丙	甲	甲	壬	癸	丙	丙	甲	甲	丙	丙
	보조	甲癸	甲癸	丙癸	丙癸	甲丙	丙甲	癸甲	癸	丙癸	丙	甲	甲
己	용신	丙	甲	丙	癸	癸	癸	丙	丙	甲	丙	丙	丙
	보조	庚甲	癸丙	癸甲	丙	丙	丙	癸	癸	丙癸	甲戊	甲戊	甲戊
庚	용신	丙	丁	甲	壬	壬	丁	丁	丁	甲	丁	丁	丙
	보조	甲丙 壬丁	甲丙 庚	丁壬 癸	戊丙 丁		甲	甲	甲丙	壬	丙	甲丙	丁甲
辛	용신	己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壬	丙	丙
	보조	壬庚	甲	甲	甲癸	己癸	庚甲	甲戊	甲	甲	丙	戊壬 甲	壬戊 己
壬	용신	庚	戊	甲	壬	癸	辛	戊	甲	甲	戊	戊	丙
	보조	丙戊	辛庚	庚	辛庚	庚辛 癸	甲	丁	庚	丙	丙庚	丙	丁甲
癸	용신	辛	庚	丙	辛	庚	庚	丁	辛	辛	庚	丙	丙
	보조	丙	辛	辛甲		庚壬 癸	辛壬 癸		丙	甲壬 癸	辛戊 丁	辛	丁

105) 송유성(2012), 「사주명리학의 조후론 적용에 관한 연구:『궁통보감』의 조후론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1.

결론적으로 보면 『적천수』는 변격(變格)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용신론에서 중화론(中和論), 즉 오행의 변화를 논하였고 『자평진전』은 용신론과 정격(定格)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격국용신(格局用神)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오행의 상괘를 논하였으며 『궁통보감』은 계절과 기후가 중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용신론에서 조후론(調候論)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주명리학은 통변방법에서 용신론(用神論)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이 있는데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이론들은 사주해석 방법에 있어서 각각 독자적 방식의 가치와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면에 상호간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4. 3대 용신론의 차이점 비교 분석

서락오는 『자평진전평주』 서문에서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격국과 용신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격국에는 정격(正格)과 변격(變格)이 있다. 정격은 오행(五行)의 상괘(常軌)를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것이며 변격은 오행의 편승(偏勝)을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오행의 이치에 귀속되는 것이다. [자평진전]은 정격(正格), 즉 오행의 상괘를 논한 책이고 [적천수(滴天髓)]는 변격(變格), 즉 오행의 변화를 논한 것이다. 오행의 상괘를 가지고 격국을 논하는 [자평진전]은 오로지 월령(月令)을 중히 여겨 격국을 정하니 재격(財格), 정관격(正官格), 식신격(食神格), 인격(印格), 칠살격(七殺格), 상관격(傷官格), 양인격(陽刃格), 건록격(建祿格)으로 격국을 나눈다. 정격에서는 용신(用神)을 논함에 있어서 일주(日主)를 억부(抑扶)하거나 월령을 억부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고 병약(病藥)의 원리를 가지고 용신을 정하기도 한다. 그 반면에 변격에서는 오행의 변화를 중히 여겨 기세(氣勢)를 중시하므로 일행득기격(一行得氣格), 양신성상격(兩神成象格), 종격(從格), 화격(化格)으로 격국을 분별하기에 그 왕(旺)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거나 순국(順局), 반국(反局)에 의해서 용신을 정하니 결국 변격에서는 성정(性情)과 기세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며 조후(調候)와 통관(通關)의 원칙에 의해서도 용신을 정하고 월령(月令)만을 위주로 하지는 않는다. [적천수]에서는 정팔격(正八格)의 상법(常法)을 논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만 관살혼잡(官殺混雜)과 상관견관(傷官見官)의 두 경우는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괘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자평진전]에서는 외격(外格)을 생략하고 한 두 가지만 논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주

지(主旨)가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격국의 높낮이(高低)를 논함에 있어서도 [자평진전]에서는 유력(有力)과 무력(無力),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을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서 [적천수]에서는 청탁(淸濁)과 진신(眞神) 가신(假神)으로 고저를 판별하였다. 하지만 말은 달라도 그 원리는 일치한다. 106)”

이렇듯이 각 저서별로 사주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용신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각기 다른 용신론을 비교 분석하여 이 이론들의 차이점과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명리학 용신론의 논리적 효용성을 체계화 하려는데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 대한 연원 및 중요이론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각 이론별로 용신론의 주지(主志)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적천수』의 억부론과 『자평진전』의 격국론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론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근본적 차이점을 인간 삶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선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부여받는 천부적 인권이 있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한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생존방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직업을 가지고 공존의 존재로서 사회활동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각 개인들은 사생활 및 재물에 대한 길흉의 차이와 사회생활 및 직업에 대한 성패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간다. 물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사회적 성공을 할수록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인간 삶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에 따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커다란 사회적 성공을 했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체감행복 지수가 떨어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그 개인의 체질과 성격에 따르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모습을 유형별로 간단하게 구분하여 보면 각 개인의 사생활 및 물질적인 길흉에 따라 그리고 각 개인의 사회생활 및 직업적 성패에 의해서 그리고 각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체감의 행불행(幸不幸) 상태에 따라서 여덟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재물이 많고 사회성도 높으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 ②재물이 많고 사회성도 높으나 불행한 사람 ③재물은 많고 사회성은 떨어지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 ④재물은

106) 박영창譯(2007), 심효첨, 서락오評註, 『자평진전평주』, 청학출판사, pp. 11~12.

많으나 사회성이 떨어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⑤재물은 없어도 사회성은 좋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⑥재물이 없어도 사회성은 좋으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 ⑦재물도 없고 사회성도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 ⑧재물도 없고 사회성도 없는데 불행하기 까지 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방법을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에서는 주로 생존의 존재로서 인간의 개인적 생존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억부용신은 개인이 원하는 것이나 사생활, 즉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나 재물 등 육친에 대한 대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한해의 길흉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에서는 공존의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적 공존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격국용신은 대외적으로 직장이나 사회적인 일, 그리고 사회활동 무대의 크기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주전체의 사회성과 직업적인 일에 관한 것과 사주그릇의 크기 등을 알 수 있으며 주로 대운의 성패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에서는 체감 행복지수와 심리적 안정감을 파악하여 인생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 조후용신은 개인의 출생계절에 따른 체질과 그로 인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희노애락의 감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 개인의 인생 전반에 대한 체감행복지수와 대·세운 기간 동안의 행불행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억부론은 일간을 중심으로 강약을 보는 것이고 격국론은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조후론은 일간 대비 월지의 기후에 따르는 체질을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억부용신과 격국용신과 조후용신은 분명 다르다. 본 「命理學의 滴天髓, 子平眞詮, 窮通寶鑑 用神論 比較 研究」의 연구결과 사주를 볼 때는 억부론과 격국론과 조후론을 참고하여 각기 따로 보아야 하고 또 그 구별을 정확히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자의 그동안의 내담객에 대한 상담결과 개인의 한 해의 세운에 대한 길흉은 주로 『적천수』의 억부용신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10년 대운기간 동안의 사회적인 성패는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상신]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개인인생의 전반적인 행복과 불행에 대한 만족여부는 주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으로 대,세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다. 억부용신에서는 세운의 길운이 들어오면 그 한 해가 좋을 것이며 격국용신에서는 대운의 길운이 들어오면 사회적인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조후용신에서는 대,세운에서 길운이 들어오면 그 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행복할 것이다. 사주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

분석은 격국용신으로 하고 길흉을 판단할 때는 억부용신을 대입하는데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이 같은 사주는 문제가 없으나 억부용신이 다른 사주는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이 모두 무난하고 좋으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판단하나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중증질환 또는 가정의 파탄과 이별 등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조후용신을 무시한 결과 일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억부용신과 격국용신과 조후용신은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잘 구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용신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주를 감명하여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과 인생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억부용신과 격국용신과 조후용신이 서로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기 다른 이유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에 그로 인해 각 저자들이 생활했던 사회적 배경과 도덕적 기준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억부론적 관점인 『적천수』의 저자 유백은은 원나라 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을 도와 전쟁터를 누비며 명나라를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생활상은 다분히 각 나라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으나 만약 힘의 균형이 깨어져 한나라가 강력한 지도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흡수 통일되는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갔던 유백은은 당연히 일간 위주의 억부론과 종화론(從化論)적인 가치기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격국용신론적 관점인 『자평진전』의 저자 심효첨은 중국 청나라 건륭 4년(1739)에 진사(進士)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한 인물이다. 청나라 건륭황제는 중국 최후의 강건성세(康乾盛世)¹⁰⁷⁾의 마지막을 장식한 황제로 이 시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흥하였기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명망과 직업적 성공 그리고 가문의 발전과 영광 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관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심효첨은 일간 위주의 개인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춘 억부용신론보다는 월지 위주의 공적인

107) 『위키백과』, 강건성세(康乾盛世) 또는 강옹건성세(康雍乾盛世)는 청나라의 최고 전성기로 제4대 황제 강희제가 삼번의 난을 평정한 1681년부터 시작하여 제5대 황제 옹정제를 거치고 제6대 황제 건륭제 치세의 중반부까지 이른다. 강건성세의 ‘강’과 ‘건’은 강희제와 건륭제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이 시기에 청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문화, 예술이 부흥하는 등 나라가 내외로 모두 안정되었다.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춘 격국용신론적인 가치기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궁통보감』의 원저자와 시대는 미상으로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추측하건대 조후용신론적 관점의 『궁통보감』의 저자는 유백온이나 심효첨처럼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한 귀족이 아니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유한 지방의 부호나 토호도 아니고 그저 춥고 배고픈 뛰어난 명리학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저서의 내용중 인용된 예문들이 주로 명(明)나라시대 유명 인사들의 사주가 많은 것으로 보아 명대(明代) 말에 만들어진 저서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기에 『궁통보감』의 원저자는 경제적, 사회적 성공같은 것보다는 일간과 월지대비 조후에 초점을 맞추어 안락하고 따듯하며 마음이 행복한 민초들의 삶에 가치기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이론서의 사상과 관점의 차이를 저자들의 활동시기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직업 등에서 추측해볼 수 있기에 연구자의 사견(私見)일지언정 『적천수』의 억부용신과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이 서로 사주의 길흉과 성패, 행불행을 바라보는 관점과 용신이론에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적천수』는 변격(變格)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용신론에서 중화론(中和論), 즉 오행의 변화를 논하였고 『자평진전』은 용신론과 정격(定格)의 이치를 논하였는데 격국용신(格局用神)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오행의 상괰를 논하였으며 『궁통보감』은 계절과 기후가 중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용신론에서 조후론(調侯論)을 주장하고 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론은 개인적이며 현실적인 관법으로 일간과 전체 사주구성을 대조하여 강약(強弱)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간중심이 되며 그러기에 억부용신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과 일간의 취미와 취향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이후 근대산업화시기의 춥고 배고픈 시절 개인적인 성공과 개개인의 길흉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환경으로 억부적 관법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면을 갖게 되었다.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일간을 사주 전체에 비교하여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해주는 방법으로 일간의 생존성을 측정하는 방법론이 된다.

『자평진전』의 격국용신론은 사회적이며 공익적인 관법으로 일간과 월령을 대조하여 성격과 파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즉 일간 중심이 아니고 월지 중심의

간명법이 되기에 격국용신은 다분히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사회적 성공여부를 가늠하는데 더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격국이란 일간의 외면적인 사회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간의 근본적 모양새와 직업적성 및 활동공간을 말하며 사주의 짜임새, 틀, 그릇의 크기 등의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 [용신]의 성패는 부귀빈천(富貴貧賤)의 고저(高低)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직업적 성향이나 성격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일간의 공존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 시대에 사주를 간명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다.

『궁통보감』의 조후용신론은 월지를 중심으로 때에 따른 한난조습(寒暖燥濕)을 살펴 일간의 환경과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조후가 중심이 된 『궁통보감』은 월지에 의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간의 작용을 중심으로 희기(喜忌)를 논한다. 때(時)에 따른 한난조습을 살펴 음양의 변화를 보는 것이니 사주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면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다. 사주에서 음양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하면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 관계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水는 木을 生하지만 子월의 甲木은 너무 한랭하여 水生木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子월의 냉기가 甲木을 상하게 하니 丙火가 없이는 생존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子월의 냉기를 丙火로 조절해주면 水生木으로 相生을 이루고 木生火로 相生하여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조후용신론의 이러한 시각은 사주 간명(看命)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평진전』의 용신론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비록 미약하게 다루었지만 격국은 조후(調候)를 보아야 하니 뛰어난 영웅호걸도 시기를 잘 만나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공을 하지만 시기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하여 조후(調候)를 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모두 정도의 차이와 시각적 관점은 다르지만 조후를 외면하고는 사주의 용신을 설정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사주 명조 사례 분석

그동안 본연구를 통하여 고전 3서의 연원, 시대적 배경 및 중요이론과 용신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 결과 연구자는 3대 고전서의 각기 다른 이론체계에 따라 사주를 보는 관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론은 일간과 전체 사주구성을 대조하여 강약(強弱)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 되며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간 중심이 되기에 억부용신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운명의 길흉(吉凶)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다.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일간을 사주전체에 비교하여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해 주는 방법으로 일간에게 개인적 생존방법론을 제시한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론은 일간과 월령을 대조하여 성격(成格)과 파격(破格)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 되며 월지 중심의 간명법이 되기에 격국용신은 다분히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사회적 성패(成敗)를 가늠하는데 더 유용한 면이 있다. 격국용신이란 일간의 외면적인 사회성을 말하는 것으로 일간의 기본적 모양새와 직업유형을 말하며 상신을 통하여 사회적 공존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론은 월지에 의한 계절변화에 따라 한난조습(寒暖燥濕)을 살피는 것이 기본이 되며 일간대비 월지 중심이 되어 일간의 체질과 심리 등을 파악하여 인생의 행복조건을 제시하기에 건강한 생활에 따른 인생의 희기(喜忌)를 논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다. 이는 계절에 따른 한난조습을 관찰하는 것이니 조후용신을 통하여 안정적 자기관리론을 제시한다.

이에 3대 고전서의 용신이론별로 실제 사주의 예를 들어 각 용신이론의 유용함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주관명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적천수』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예1) 큰 돈을 번 공인중개사(억부용신이 건왕한 사주)¹⁰⁸⁾

108)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p. 28~29.

時 日 月 年
壬 戌 癸 辛
戌 申 巳 丑

庚 己 戊 丁 丙 乙 甲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巳月에 출생하여 신강하니 년간의 辛金 상관으로 억부용신을 삼고 壬癸水로 희신을 삼는다. 지지에서 巳丑합으로 용신의 뿌리가 되니 용신이 건왕하여 능력 있는 사주가 된다. 그러나 이 사주를 자평진전의 관점에서 보면 편인격의 사주가 巳申습으로 인성이 합거되고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여 인수를 파극하니 파격이 된 사주이다. 이렇게 파격이 된 사주는 억부용신을 활용하게 되니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대운이 마침 희용신운인 金水운으로 순항하여 丁대운에 인수격이 성격이 되니 부동산 중계사를 취득하여 사회성을 얻게 되고 분당에 개업하여 酉대운 억부용신운에 큰 돈을 번 여자이다. 이렇게 억부용신이 건왕하여 식상생재가 되고 조후용신에 문제가 없는 사주는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예2) 상관견관 위화백단의 여명(억부와 격국 조후 모두 파격이 된 사주)¹⁰⁹⁾

時 日 月 年
庚 戌 辛 癸
申 寅 酉 卯

戊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위 사주는 戊土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여 사주에 상관이 태과한데 사주에 인성이 없

109) 양성모(2017), 『격국용신완전정복』, O.B.C.A. pp. 226~227.

어 파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억부용신을 써야 하는 매우 신약한 사주인데 사주에 일간을 도와줄 인성이 없으니 寅중의 丙火로 억부, 격국 및 조후용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지에서 卯酉충 寅申충으로 관성이 충극을 맞으니 상관견관(傷官見官) 위화백단(爲禍百端)으로 파격이 되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남의 농장에서 화분을 받아 배달 판매하는 화분가게를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억부, 격국, 조후에 모두 문제가 있는 사주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예3) 대운이 좋지 못하여 직업적 안정을 못 이루는 남자(용신이 유정한 사주)

時 日 月 年
己 辛 丙 丁
亥 亥 午 巳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대운
戊 亥 子 丑 寅 卯 辰 巳

위 사주는 辛金 일간이 午月에 출생하여 천간에 丙, 丁火로 관살이 혼잡하고 일, 시지에서 亥水로 상관이 태과하여 극설교가(剋泄交加)의 명이니 매우 신약하여 흉한 사주로 보인다. 그러나 억부용신 및 격국상신인 己土가 년, 월지의 巳, 午火에 통근하여 일간을 유정하게 돕고 있으므로 대운의 흐름만 좋다면 군인, 검찰, 경찰, 법관, 의약계 등의 직장생활로 성공 할 수도 있는 사주이다. 사주 내에서 관살을 돕는 木이 없고 왕한 살을 설기하여 일간을 돕는 己土 편인을 억부용신으로 쓰니 살중용인격(殺重用印格)이 되었다. 대운의 흐름이 좋지 못하여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6세~30세 사이에 사법고시에 낙방한 후 31세~34세 사이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 36세~37세 사이는 수확학원 사업에 실패 한 후 직업의 안정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사주가 이렇게 억부용신과 격국용신이 모두 충족되고 좋은 사주도 대운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예4) 편인격의 미대교수(희용신이 잘 발달한 사주)

時 日 月 年

庚 丙 壬 丁

寅 寅 寅 酉

乙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未 申 酉 戌 亥 子 丑

위 사주는 丙火 일간이 寅月에 출생하여 지지에 寅木 편인이 세 개다. 편인격의 사주가 인성이 태과하므로 시간의 庚金 편재를 억부용신 하고 희신인 壬水가 기신인 丁火를 丁壬합으로 합거시키니 사주가 매우 청해졌다. 이 사주는 편인격이므로 특이한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고 이해력이 빠르며 기질도 독특하고 사상도 그러하다. 이 사람은 통일교인으로 현직 미대교수이며 강렬한 빨간색을 사용한 종교적 상징성이 강한 그림을 많이 그린다. 이 사주는 천간의 丙, 丁火가 지지의 寅중의 丙火에 뿌리를 두어 강력한 신체지능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러므로 행위예술적인 면이 강하다. 庚金 편재를 용신하여 공간 활용이 크고 구도가 정확하고 확실하며 기미와 징후를 파악하는 데 빠르다. 대운이 일생 희용신운으로 흘러 안정적이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2. 『자평진전』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예1) 부동산으로 큰 부를 이룬 여류화가(성격이 잘 된 사주)¹¹⁰⁾

時 日 月 年

庚 乙 癸 壬

辰 巳 卯 寅

110)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 2.

丁 戊 己 庚 辛 壬 대운
酉 戌 亥 子 丑 寅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卯月에 출생하여 건록격의 신강한 사주이다. 건록격의 사주는 관성으로 제화하여 성격(成格) 하는데 時干의 정관 庚金이 일지 巳火에 통근하고 辰土의 생을 받아 격국용신이 건왕하고 일간과 유정하므로 성격(成格)이 잘 되었다, 년간 壬水로부터 시작하여 水, 木, 火, 土, 金으로 오행이 생생유통하니 아주 좋은 사주의 예이다. 戊戌 대운에 이르러 부동산을 운용하여 큰 부를 이루고 모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주의 예에서 보듯이 사주의 억부용신을 떠나 격국용신이 성격이 된 사주는 인생의 근본이 뚜렷하고 사회성이 좋으며 더하여 억부용신마저도 건왕한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 충족도와 인간관계에도 길함이 따르게 된다.

예2) 지방군수에 당선된 사람(패중유성이 된 사주)¹¹¹⁾

時 日 月 年
辛 壬 丁 戊
丑 子 巳 戊

癸 壬 辛 庚 己 戊 대운
亥 戌 酉 申 未 午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巳月에 출생하여 정재격 사주이다. 정재격이 편관을 보아 재생살이 되니 파격이다. 그러나 일간 壬水가 丁壬합으로 재성을 합하여 재생살을 못하도록 하고 시지 丑土에 통근한 辛金 인성이 살인상생 통관하니 구용신이 되어 패중유성이 되었다. 초년 土운에는 일간을 극제하는 관살운으로 어려웠으나 庚申대운부터 상신운을 흐르니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癸亥대운 庚寅년에 주변의 조력과 도움을 얻

111)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p. 2~3.

어 지방군수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패중유성이 된 사주는 만약 대운의 흐름이 좋지를 못하여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따르게 되는데 이 사주는 반대로 대운이 흐름이 좋아 스스로의 올바른 선택과 처세에 따르는 주변의 인덕과 도움으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경우이다.

예3) 고통과 어려움 속의 여자(일간과 상신이 무력하여 파격이 된 사주)¹¹²⁾

時 日 月 年
 丁 癸 壬 戊
 巳 丑 戌 午

丙 丁 戊 己 庚 辛 대운
 辰 巳 午 未 申 酉

위 사주는 癸水 일간이 戌月에 출생하여 정관격이 되나 중관(重官)의 명으로 관살이 혼잡한 중에 재생살이 되어 철저히 파격이 된 사주이다. 이 사주는 『적천수』의 관점으로 보면 종살격의 사주가 되어 대귀(大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주는 실령, 실지, 실세하여 극신약 한 중에 일간을 생조(生助)해주는 인성이 전무(全無)하고 억부용신인 비겁 壬水 또한 무근(無根)하고 희신의 도움이 없어 편중된 나쁜 사주의 전형적 예이다. 초년 辛酉, 庚申 상신(相神)운에는 억부용신까지 충족이 되니 비행기 조종사인 아버지 밑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유복하였으나 23세 己未 대운부터 아버지(재성)의 도박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고생하던 중에 33세 戊午대운 己丑년부터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빈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이다. 재생살이 된 극신약 사주에 비겁으로 억부용신하는 여명(女命)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적천수』 종격론과 『자평진전』의 격국론이 희용신이 상반되는 경우 실제 상담 현장에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데 가장 혼동이 생기게 된다.

예4)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파격이 된 종재격의 편고한 사주)¹¹³⁾

112)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p. 3~4.

時 日 月 年
庚 乙 庚 庚
辰 巳 辰 辰

甲 乙 丙 丁 戊 己 대운
戊 亥 子 丑 寅 卯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辰월에 출생하여 정관격의 사주가 되나 사주 전국(全局)에 관살이 태중하여 乙木은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비록 일간이 辰중의 乙木에 통근하였으나 水生木이 되지 않아 『적천수』의 억부용신론으로 보면 종재격의 사주이다. 그러나 『자평진전』의 격국용신론으로 보면 재생살로 파격이 되어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주이다. 종재격 사주의 특성대로 집안이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사주 오행이 土金으로 편중 편고하여 金剋木을 심하게 당하니 중추신경 이상과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아의 사주이다. 그런데 이 사주는 조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다. 이 사주의 경우처럼 억부용신으로 보는 개인의 경제적 길흉과 격국용신으로 보는 사회적 성패, 그리고 조후용신으로 보는 체감 행복지수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예5) 시각장애인의 사주 (재생살로 파격이 된 사주)¹¹⁴⁾

時 日 月 年
辛 乙 乙 庚
巳 未 酉 戌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卯 寅 丑 子 亥 戌

113)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 4.

114)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 5.

乙木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여 정편관이 투출한 중에 재생살이 되어 과격이 된 극신 약한 사주다. 이 사주 또한 『적천수』 관점으로 보면 종살격의 사주가 된다. 천간의 乙木이 둘이라도 强金을 대적할 힘이 없고 지지에서 일간을 생조할 일점 水氣가 없어 시지에 巳火 상관으로 제살을 하고 싶으나 巳酉合金으로 그 또한 불가하게 되었다. 위 사람은 丙戌 대운 성장기에 홍역을 앓고 金剋木으로 시신경에 손상을 입어 시각장애우가 되었다 丁亥, 戊子 대운에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맹인교육기관에서 침술과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이다.

예6) 방송국 감독(패중유성이 된 정관격의 사주)

時 日 月 年
己 壬 乙 癸
酉 申 丑 未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대운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위 사주는 壬水 일간이 丑月에 출생하여 己土가 투출하여 정관격인데 월간에 乙木 상관이 투간하여 과격이 되었다. 그러나 일지와 시지의 申酉金 인성이 상관을 제화해주니 패중유성이 된 경우이다. 丑月の 壬水 일주가 일지와 시지의 申酉金과 년간의 癸수로 한랭하며 신강하여 己土 정관으로 억부용신하는 사주이다. 이 사주는 정관격의 사주가 인성을 상신으로 하며 火운에 조후를 맞추어주고 재생관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주이다. 戊 대운에 우연히 방송국에 입사한 뒤 辛酉, 庚申, 己未 대운 동안 평생을 근무하였다. 戊午 대운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대운의 흐름이 좋아 그 능력을 인정받고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효도를 받고 있다. 이 사주의 경우처럼 비록 庚申, 辛酉대운에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은 안 맞아도 격국용신이 맞는 경우는 적당한 사회성을 유지하며 살다가 억부, 격국, 조후용신 모두가 맞아들어 가는 戊午, 丁巳 대운에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모두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3. 『궁통보감』 용신이론에 근거한 사주명조 분석

예1)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금수상관격이 조후를 갖춘 아름다운 사주)

時 日 月 年
癸 庚 辛 丁
未 申 亥 卯

戊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午 巳 辰 卯 寅 丑 子

위 사주는 세계적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사주이다. 庚金 일간이 辛亥월에 출생하였는데 시간에 癸水가 투출하여 상관격으로 신약하다. 억부상으로는 신약하니 시지의 未土 인수가 억부용신이고 상관격의 사주가 지지에 亥卯合木으로 상관생재가 되나 신약하고 한랭하여 未土 정인으로 상신하여 상관패인(傷官佩印)을 시키니 성격을 한다. 그런데 조후상으로는 亥月の 庚金이 금수상관으로 한랭하니 丁火 관성으로 조후용신을 한다. 초년의 壬子, 癸丑 대운은 상관운으로 관성인 丁火를 극합하여 남편과 6.25 동란 중 사별하였다. 상관패인격의 사주가 木火土 대운의 흐름으로 조후와 억부, 격국용신이 모두 맞으니 불후의 대작을 남기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예2) 식상태과의 폐해가 드러난 여명(금수상관격에 조후가 안 맞는 사주)¹¹⁵⁾

時 日 月 年
庚 辛 甲 癸
子 丑 子 巳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巳 午 未 申 酉 戌 亥

115)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p. 36~37.

위 사주는 辛金일주가 子月에 태어나 일단 식신격나 식신이 태과하여 상관과 같으니 월지 眞傷官格으로 볼 수 있다. 상관격의 사주가 甲木 정재를 보아 상관생재가 되니 일단 성격이 될 수 있는데 子월의 辛금이 子丑 수국이 되고 년간과 시간의 癸水와 庚金으로 금수한랭하여 필히 火 관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년지의 巳火가 水剋火를 심하게 당하여 沒하였으므로 관성이 실조하여 이 사주의 주인공은 자제력과 참을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火는 정신을 의미하는데 火가 沒했으니 우울하고 음침한 성격의 일면도 있겠다. 일단 이 사주는 식상이 태과하므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으나 항상 태과는 불급으로 오히려 성정이 웅렬하고 인색하며 법 없이 산다는 삶이 오버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예3) 성전환수술을 결심한 남자(申子 水局으로 체질이 바뀐 경우)¹¹⁶⁾

時 日 月 年
丙 庚 庚 甲
子 寅 午 戌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庚金 일간이 五月에 출생하고 지지에 寅午戌 火局을 이루고 시간에 丙火가 투출하여 칠살격이다. 그런데 칠살격의 사주가 甲木 재성이 투출하여 재생살이 되니 파격이 되었다. 칠살격은 식상제살(食傷制殺)을 하거나 살인상생(殺印相生)을 이루어야 成格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인성 戊土가 寅午戌 火局이 되어 살인상생을 못하고 또한 시지의 子水가 寅木에 설기되어 미력하므로 식상제살도 하지 못하여 파격이 된 사주이다. 역부상으로 일간의 뿌리가 없어지고 매우 신약하여 중화를 잃고 종살격이 될 수도 있으나 시지의 子水가 발목을 잡아 종살을 할 수도 없다. 조후상으로는 화기가

116)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 45.

중천하니 시지의 子水로 조후용신을 해야 한다. 강한 七殺은 일간에게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되고 인생의 형벌이 되어 고통을 주게 된다. 이 사주에서는 火局 즉 강력한 양의 기운인 火體를 띠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형벌이 되는 것이다. 壬申 대운을 거치며 천간에서는 丙壬沖으로 관성을 충하여 사회적 가치관에 변화를 보이게 되며 불의의 편관과 맞서 싸우고자 하니 경찰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운의 지지 申金이 일지의 인목을 寅申충을 하여 자기정체성에 변화가 오게 되고 시지의 子水와 申子합수로 강력한 陰의 에너지가 발생하여 체질이 변하게 되었다. 21세 癸酉 대운에 들어 陰기가 더욱 강하게 발현됨으로 체질적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성전환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후에 문제가 있는 사주는 체질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4) 동성애를 하는 여자(寅亥合 木과 亥卯 木局으로 체질이 바뀐 경우)¹¹⁷⁾

時 日 月 年

辛 乙 辛 癸

巳 亥 酉 卯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卯 寅 丑 子 亥 戌

위 사주는 乙木 일간이 酉月에 출생하고 辛金이 투출하여 편관격으로 신약하여 인성 癸水가 억부용신이고 살인상생으로 화살하여 성격을 시키니 인성 癸水가 격국의 상신이 된다. 하지만 乙辛沖과 卯酉沖, 巳亥沖으로 木과 火의 양에너지가 손상을 당하여 조후에 문제가 생기며 인체 호르몬계의 이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태과한 七殺과 상충살은 일간에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되고 인생의 굴레가 되어 고통을 주게 된다. 이 사주는 살인상생의 사주에 金水로 한랭하니 위 예 3)의 火局의 사주와는 반대현상으로 강한 陰體를 띠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굴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칠살로부터 일간과 비겁이 乙辛충과 卯酉충을 맞

117)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p. 46~48.

으면 자존감과 자아의 욕구가 좌절되고 남편과 불화를 하게 되며 상대를 버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巳亥沖으로 인성이 식상을 충족하니 남편의 사랑과 관심(亥水)이 오히려 나의 자유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상관 巳火)을 짓밟는 억압이 된다. 남편의 의처증의 압박과 폭력을 살인상생으로 감내하며 수용하는 생활을 해왔으나 43세 丙寅 대운을 맞이하며 천간으로 丙辛합을 하니 신체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지지로 寅亥合木으로 비겁이 강해지며 양체질로 변하니 시지의 巳火 상관이 木生火 살아나게 된다. 이 사주는 巳亥沖의 사이에 비겁(同姓)인 木이 통관을 시켜야만 비로소 상관 巳火가 소생을 하게 되니 동성애를 할 때만 즐거움과 쾌락 기쁨과 카타르시스를 느껴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되는 이치이다. 충족으로 잡혀있던 비겁과 식상이 丙寅, 丁卯 대운에서 살아나니 감정계가 살아나며 일상에서 벗어난 일탈의 행동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경우이다.

예5) 금수상관격의 불행한 여명(상관견관 위화백단의 사주)

時 日 月 年
戊 庚 甲 戊
寅 申 子 午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庚申 일간이 子月에 출생하여 상관격인데 금수상관격이 되니 조후용신으로 관성 火를 보아야 한다. 이 사주는 얼핏 보면 상관격의 사주가 편재가 투출하여 상관생재를 이루니 성격이 잘되어 보이고 또한 금수상관의 사주가 午火 정관으로 조후용신하고 甲木과 戊土로 용신을 보조하니 조후용신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子月에 庚金이 신약하니 戊土 편인으로 억부용신도 해결된 문제가 없는 사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甲庚沖, 子午沖, 寅申충으로 조후용신이 충극을 당하고 甲庚沖과 寅申충으로 재성이 충극이 되었고 甲戊剋으로 인성이 손상을 입으니 상관격의 사주에서 요구하는 상신이 모두 상하여 격국도 파격 되었으며 억부용신인 戊土도 甲戊剋으로 극

제를 당하여 무력하니 조후용신, 격국용신, 억부용신 무엇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철저히 파격이 된 상관견관 위화백단의 사주이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戊대운에 일찌감치 결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는데 남편의 무능력으로 별거하던 중 전남편과 이혼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壬辰년 새 남자를 만나 동거하여 癸巳년 癸亥월 癸卯일 丁巳시에 유복자를 또 낳았다. 동거남이 음료수 대리점을 운영했으나 사업부진과 사채의 늪에 빠져 庚申 대운 癸巳년 辛酉월 낚시터에서 음독자살을 했다. 현재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이다. 이 사주는 특히 辛酉, 庚申 대운에는 상관격의 사주가 파격이 되고 申子合水로 水氣가 강해지니 조후용신인 午火도 손상을 입게 되며 戊土의 기운을 설기하여 사주의 병(病)인 子水를 생하여주니 억부용신도 안 맞게 되어 억부용신을 통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격국용신을 통한 사회적 직업, 그리고 조후용신을 통한 체감행복지수 등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된다.

예6) 폐암으로 사망한 남자(火氣가 치열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주)

時 日 月 年
丙 甲 庚 甲
寅 午 午 午

丁 丙 乙 甲 癸 壬 辛 대운
丑 子 亥 戌 酉 申 未

위 사주는 甲木 일주가 午月에 출생하여 월지 상관격이다. 극신약한 상관격이 재성이 투출하지 않고 인성 水의 제화가 없어 파격이 된 사주이다. 조후용신으로 水가 필요하나 사주에 전혀 수기가 없어 월간의 庚金이 火剋金을 당하니 버틸 수가 없다. 초년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부모의 혜택을 못 받아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일찍 주물공장에 다니면서 기능공으로 일하다 壬申, 癸酉대운에 조후문제가 해결되니 20년만에 독립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주의 왕한 열기를 金水로 식혀주니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사주가 水剋火가 안 되고 火生土로 설기가 안되어 젊은 시절부터 폐, 기관지가 안 좋아 고생을 많이 했다. 甲戌 대운에 寅午戌 火局이 되니 旺한 火氣

로 인하여 辛巳년 폐암이 발병하여 壬午년 午月에 사망했다. 이렇게 사주가 조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주는 안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불행하게 된다.

사례7) 뇌혈관경색으로 사망한 여자

時 日 月 年
庚 癸 癸 甲
申 亥 酉 辰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대운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위 사주는 癸水일간이 酉月에 출생하여 편인격의 사주가 金水로 한랭하다. 甲木 상관을 억부용신과 격국의 상신으로 하여 어렵게 성격을 이루나 사주에 재성 火氣가 일점도 없으니 조후가 해결이 안 되어 甲木이 발영(醞榮)하지 못하니 결과와 결실이 없는 미력한 사주가 되었다. 金은 기신이 되고 土는 구신이 된다. 火氣가 없고 甲辰 백호로 木剋土하는 기세가 있어 土가 剋을 당하고 사주에 金氣가 태과하니 土의 기운이 설기되어 비, 위가 매우 약하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니 몸이 마르고 허약한 체질이 된다. 金水寒冷한 사주이니 필히 火運을 만나야 한다. 43세 戊辰대운은 仇神 운으로 최악의 흉운이다. 천간에서는 戊癸합을 하니 水生木이 안되고 지지에서는 辰酉합을 하니 金剋木이 되어 결국 甲木 두뇌가 손상되는 운이다. 편인격의 전문직종 프리랜서형의 사주로 부동산업을 하다가 뇌혈관경색으로 사망하였다. 金多水濁의 사주는 金의 혈전 찌꺼기에 의해 水 혈관이 탁해지고 막히는 체질이다. 이렇게 금수로 한랭하여 조후가 안 이루어진 사주도 안정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불행하게 된다.

4. 3대 용신법을 적용한 유명인 사주명조 분석

이상과 같이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이론에 적용하여 여러 사주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용신 이론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 사례에서는 주로 개인이 원하는 것이나 사생활, 즉 재물이나 가족관계 등 육친에 대한 길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억부용신이 좋은 사주는 억부용신 운에서 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비롯한 주변환경이 편안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사례에서는 주로 사주 주인공의 대외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활동반경의 크기 등을 판단하여 인생의 성패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상신이 좋아 성격이 잘된 사주나 상신운에는 주로 사회적 성공을 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사례에서는 출생 계절에 따른 체질과 그로 인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회노애락의 감정 등을 파악하여 각 개인의 인생전반에 대한 체감행복지수와 인생의 행불행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조후용신이 잘 갖춰진 사주나 조후용신운에는 체감행복지수가 높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반면에 조후가 맞지 않는 사주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용신의 상태에 따라 길흉과 성패, 행불행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 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사주 5개를 임의적으로 특정하여 각 용신론에 대입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성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한다. 유명인들의 사주는 그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드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학계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주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예1) 성공한 경제인 정주영 회장(격국, 억부, 조후용신이 모두 좋은 유력한 사주)

時 日 月 年

丁 庚 丁 乙

丑 申 亥 卯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대운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위 사주는 『적천수』의 억부용신 관점에서 보면 庚金 일간이 일지 申金과 시지 丑土에 뿌리를 두어 기세가 있으나 실령, 실세하여 신약사주로 인성 丑土를 억부용신하고 관성 火를 화신으로 한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관점에서 보면 이 사주는 庚金 일간이 亥月생으로 亥卯木局을 이루고 년간에 乙木이 투출하여 정재격(食神生財格)인데 丁火 정관을 보아 전형적인 식신생재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또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관점에서 보면 해월에 庚金이 丑時에 태어나 사주가 한랭하니 천간의 丁火를 조후용신으로 한다. 이 사주는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의 사주로 일간에 대입하여 월지가 식신을 이루고 식신은 다시 재성을 생하는 식신생재격으로 복록이 많고 총명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므로 사업경영 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이 탁월한 명이다. 월지 식신 亥水가 재성 乙木을 키우고 乙木은 재생관하여 丁火로 꽃을 피우니 사주가 아름답다. 중년에 火운으로 접어들며 크게 발전하였다. 시지의 丑土로부터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로 오행이 주류무체를 이루니 복록이 끝없이 많은 대부대귀한 사주이다. 고 정주영회장의 사주는 이렇게 억부, 격국, 조후용신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커다란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장수를 할 수 있었다.

예2) 불행한 정치인 박근혜 前 대통령(격국은 좋으나 억부, 조후가 불미한 사주)

時 日 月 年
甲 戊 辛 辛
寅 寅 丑 卯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대운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위 사주는 『적천수』의 억부용신 관점에서 보면 丑月의 戊土 일간이 실지, 실세하여 극신약 한 중에 관살이 태과하니 寅중의 丙火를 억부용신으로 한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관점에서 보면 戊土 일간이 辛丑월에 출생하여 상관격의 사주가 상관대살을 하고 있는데 극살이 교가되고 있으니 寅중의 丙火로 보조하여 성격이 된다. 또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관점에서 보면 戊土 일간이 丑月, 寅時에 출생하여 조후가 시급하니 丙火로 조후하고 甲木으로 보좌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주에 병화가 투간되지 않았으므로 寅중의 丙火로 조후용신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나를 극제하여 힘들게 하는 편관의 뿌리인 寅木이 일간 戊土의 장생지가 되며 용신의 장생지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사주는 18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주이다. 상관대살격의 사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로 출생하여 어린 시절부터 한나라 당의 대표를 거쳐 18대 대통령을 역임하기까지 사회적 권력과 매우 인연이 깊었는데 이는 사주의 격국이 주는 특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형제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였으며 풍문에 의하면 모든 자산관리는 최순실을 비롯한 최씨 일가에서 대행을 하였다고 하니 자신에게는 재물과는 인연이 없다고 본다. 이는 억부용신이 불미한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부모님 모두 흉탄에 쓰러졌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나 자녀출산 등의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한 적이 없으며 최태민과의 인연으로 주변으로부터 불편한 눈총을 받아오며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하여 왔는데 이는 조후용신이 불미한 탓이라 볼 수 있다. 대운의 흐름이 원만하여 사회적 성공과 성취를 이루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 왔으나 戊申대운 丙申년을 맞이하여 대세운에서 寅申沖으로 용신이 병살(併殺)당하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억부용신과 격국용신 조후용신에 따라 개인적 길흉, 사회적 성패, 인생의 행, 불행이 좌우됨을 확일 할 수 있다.

예3) 사회적 패륜범 이영학(격국, 억부, 조후용신이 모두 불미한 사주)

時 日 月 年
己 庚 丁 壬
卯 戌 未 戌

甲 癸 壬 辛 庚 己 戊 大운
寅 丑 子 亥 戌 酉 申

위 사주는 『적천수』의 억부용신 관점에서 보면 未月の 庚金 일간이 득령, 득지, 득세하여 신강한데 土가 많아 문제이므로 시지의 卯木으로 억부용신 한다. 그러나 억부용신이 卯戌합으로 기반되어 불미하며 정관과 식신이 합하여 서로 못쓰게 되어 신왕무의(身旺無意)의 불행한 사주가 되었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관점에서 보면 庚金 일간이 未월에 己土가 투간하여 인수격의 사주이므로 丁火 정관을 상신으로 성격이 잘될 뻔하였다. 그러나 년간의 壬水가 丁壬합으로 정관을 합거시키니 파격이 되고 또 지지에서 정편인이 혼잡하여 타격이 되고 태과한 인성을 극제해 줄 재성이 卯戌합으로 기반이 되어 아주 저급한 파격의 사주가 되었다. 또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관점에서 보면 未月の 庚金일주는 찬 기운이 생기고 土를 만나 강하다 그러므로 丁火 정관을 먼저 조후용신으로 쓰고 甲木 편재로 정관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丁壬합으로 정관이 합거되어 도덕성과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고 식신이 합거되어 사회적 교감능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卯戌합으로 정재가 합거되어 합리적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사주이다. 제화되지 않은 태과한 편인성은 극단적 가학주의를 가져오고 편향된 관념주의자를 만든다. 또한 제화되지 않은 태과한 편인성은 저장강박증과 몰래 훑쳐보는 관음증을 유발한다. 사주가 인성이 혼잡하고 태과하여 재성이 제화를 해주어야만 생각과 사고가 명석해지고 현실감을 가지게 되는데 지지에서 재성이 卯戌합으로 기반(羈絆)되어 비현실적 망상에 빠져버렸으며 사주에서 묘하게도 식재관이 모두 몰하여 기술도 돈도 직장도 없이 오로지 인성(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으로만 사는 이상한 팔자가 되었다. 사주 천간에 식신 정관 정인이 투간하여 남의 눈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원만한 사람으로 보이니 여러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억부, 격국, 조후용신이 모두 부실하면 개인의 사생활, 즉 가족관계나 재물 등 육친에 대한 복이 없으며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없고 주변이 편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영학은 주변 인간관계와 생활환경이 어머니, 양아버지, 부인, 희귀질병 등으로 모두 부실하고 잘못되어 있었다. 어린 딸의 친구를 농락하고 살해한 이영학의 사례를 통하여 사주가 불미하면 주변환경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4) 비운의 연예인 최진실(격국, 억부, 조후용신이 모두 불미한 사주)

時 日 月 年

癸 戊 甲 戊

丑 辰 子 申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午 未 申 酉 戌 亥

위 사주는 『적천수』의 역부용신 관점에서 보면 子月の 戊土 일간이 실령, 실세하여 신약한 사주인데 인성의 조력이 없으므로 년간의 戊土 비견으로 역부용신을 한다. 지지에서 일간과 용신의 뿌리가 합변하여 흥성이 되니 용신이 일간과 무정하고 무력하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관점에서 보면 戊土 일주가 子월에 출생하여 정재격이 되는데 편관 甲木이 투간하여 재생살이 되니 파격이 된 사주이다. 이러한 사주를 가진 여명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커다란 고생을 하여야 하고 시집살이에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게 되며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명리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또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관점에서 보면 戊土 일주가 子月, 丑時에 태어나 사주가 매우 한랭하고 한습하니 조후가 매우 시급하다. 丙火로 조후하고 甲木으로 丙火를 보좌하여 주어야 하는데 사주에 조후용신이 없다. 이러한 사주는 아무리 사회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더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인생을 살아가며 체감 행복지수가 높을 수 없다. 이 사주는 꽃다운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 최진실의 사주이다. 재생살이 되었으니 재생인 아버지가 흥성이 되어 출생하면서부터 부친의 덕이 없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다. 19세가 되는 戊대운에 비겁 용신운이 오니 탁월한 미모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24세부터 38세가 되는 辛酉, 庚대운을 지나며 식상으로 제살을 하며 식신생재를 하니 성격이 되어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역부용신과 조후용신이 맞지 않으니 개인의 사생활, 즉 가족관계나 재물 등 육친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없었고 주변이 편하지 못하였다.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스타 연예인으로서의 과로와 가정사, 남편과의 문제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다가 39세부터 申대운이 되니 41세가 되는 2008년 戊子년에 대운과 세운, 사주 원국에서 申子辰合水로 水氣가 태왕해져 재생살을 하니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

고 자살을 하였다. 이렇듯이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이론에 적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조후용신은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5) 영광스런 체육인 김연아(용신이 무정하고 평범하나 대운에서 발복한 사주)

時 日 月 年
乙 癸 甲 庚
卯 酉 申 午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寅 卯 辰 巳 午 未

위 사주는 『적천수』의 역부용신 관점에서 보면 申月의 癸水 일간이 득령, 득지, 득세하여 신강한 사주이다. 인성으로 신강하니 재성 午火를 역부용신으로 한다. 역부용신이 일간과 무정하니 대운의 도움이 있어야 발복할 수 있는 사주이다. 그리고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관점에서 보면 癸水 일간이 申月에 출생하여 정인격이다. 정인격의 사주는 관성을 보아야 성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관성을 보지 못하여 일단 성격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인격이 일지에 酉金 편인을 보고 인성이 태왕하여 실제로는 편인격의 성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성을 상신으로 하지 않고 재성인 午火를 상신하여 성격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 관점에서 보면 癸水 일간이 申月에 출생하여 지나치게 강하고 예리하니 丁火를 사용하여 庚金을 단련하고 甲木 상관으로 丁火를 도와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丁火 대신 년지의 午火가 있으니 이를 조후용신하고 甲, 乙 木으로 조후용신을 보좌해주어야 한다. 이 사주는 편인에 상관의 직업적성으로 예체능계에 소질을 드러내 피겨스케이팅을 하게 되었다. 사주의 역부, 격국, 조후용신이 년지의 午火로 용신이 일간과 무정하여 평범한 면이 있으나 재성을 용신하는 사주에 기신인 비겁이 없으며 식상생재를 이루니 대운의 조력이 있다면 발복하여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주이다. 2008년에서 2017년(19세~28세)까지의 壬午 대운에는 겁재와 편재대운으로 경쟁과 경합하는 환경 속에서 왕

성한 사회 활동성을 보이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큰 결실과 재물은 얻을 수 있는 대운이다. 19세부터의 壬대운은 사주 천간의 甲庚冲을 통관으로 해소해 주니 희신인 식상이 살아나 오히려 길하다. 지지에서는 용신인 午대운으로 억부, 격국, 조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운이니 가히 대발할 수 있었다. 2010년 庚寅년에 대운과 세운에서 寅午合火로 용신국을 이루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렇게 사주의 격과 용신이 크게 뚜렷하지 않아도 대운의 조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인생의 행복지수가 증만해질 수 있음을 이 사주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주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함을 배우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5. 용신론별 차이점 분석 및 소결논의

이상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이론에 근거한 현대인 사주명조의 비교분석 결과 각각의 용신 이론간에는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천수』의 억부용신에서는 주로 생존의 존재로서 인간의 개인적 생존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억부용신으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이나 사생활, 즉 재물이나 가족관계 등 육친에 대한 대처능력을 판단하여 주로 운명의 길흉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에서는 주로 공존의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적응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격국용신으로는 사주 주인공의 대외적인 직장생활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활동 반경의 크기 등을 판단하여 주로 인생의 성패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에서는 심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행복조건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후용신으로는 개인의 출생계절에 따른 체질과 그로 인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희노애락의 감정 등을 파악하여 각 개인의 인생전반에 대한 체감행복지수와 인생의 행복행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억부론은 일간을 중심으로 강약을 보는 것이고 격국론은 월지를 중심으로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조후론은 일간 대비 월지의 기후에 따르는 체질을 보는 것이다. 연구자의 그 동안의 내담객에 대한 상담결과 한 해의 세운에 대한 길흉은 주로 『적천수』의 억부용신을 보고 판

단할 수 있었으며 10년 대운기간 동안의 사회적인 성패는 『자평진전』의 격국용신 [상신] 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고 개인의 인생 전반적인 행복과 불행에 대한 체감지수는 주로 『궁통보감』의 조후용신으로 대,세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다. 역부용신에서는 세운의 길운이 들어오면 그 한 해가 좋을 것이며 격국용신에서는 대운의 길운이 들어오면 그 대운기간 동안 사회적인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조후용신에서는 대,세운에서 길운이 들어오면 그 시기에 안정적 자기관리로 행복할 것이다. 사주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분석은 격국용신론으로 하고 길흉을 판단할 때는 역부용신론을 대입하는데 격국용신과 역부용신이 같은 사주는 문제가 없으나 격국용신과 역부용신이 다른 사주는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부용신과 격국용신이 모두 무난하고 좋으면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판단하나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는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조후용신을 무시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3대 고전서의 중요이론을 고찰하고 각 용신론을 비교분석하며 현대인의 실제 사주의 예를 들어 각 용신론의 유용함과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격국과 용신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격국과 용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주의 기본적 모양새와 성공의 핵심 키포인트를 말한다. 격국이란 일간과 월지와 십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주의 근본적인 체질을 말하는 것이며 용신은 하나의 사주가 갖는 음양오행의 체질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음양오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국과 용신을 통하여 하나의 사주로부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가를 알 수 있다. 사주를 판단하는데는 일간과 격국용신의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격국용신의 결과에 따라 한 사람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귀빈천, 행불행 등을 판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 따라서 알맞은 용신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용신법은 역부용신, 조후용신, 병약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 순역용신이다. 격국은 사주의 전체적인 틀이고 용신은 그 격에 따라서 정해진다. 월지에서 가장 유력하게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육친오행으로 격국을 정하며 그에 따라 사주의 전체적인 틀과 환경을 판단하는데 이때 그 사주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일간에게 가장 이로운 작용

을 하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다. 그러므로 용신이란 사주 중화의 요체가 되며 길흉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그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길신이 된다. 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으로 사주의 상태를 분석하여 용신을 정해야 하며 그 용신의 상태와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용신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사주 중에 하나의 오행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글자가 용신이 될 수도 있으며 사주의 구조에 따른 격국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용신은 일주, 격국과 더불어 사주 감명의 삼요소가 되니 그 셋을 모두 대비하여 사주를 판단해야 한다. 사주를 주택에 비유하자면 일주는 집주인이며 격국은 그 집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냐의 건물유형이고 용신은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용신(열쇠)이 좋으면 쉽고 편안하게 내 집을 출입할 수 있으나 용신(열쇠)이 부실하면 내 집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용신은 사주 주인공인 일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듯 길흉판단의 요체는 바로 용신이 된다.

용신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용신에도 청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개가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용신은 통근이 뚜렷하고 건왕(健旺)해야 좋다. 용신이 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용신은 건왕해야 한다 ② 용신은 통근, 득지, 득국하면 좋다 ③ 용신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우선이다 ④ 용신은 年, 月보다 日, 時에 있어 일간과 가깝고 유정해야 좋다 ⑤ 용신을 생조(生助)하면 길하고 피상(被傷)하면 흉하다.

사주구조에 의해 용신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 명칭도 붙여지게 된다. 하지만 격국과 용신의 명칭 자체에 따라서만 사주의 귀천(貴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주 내에서 정해진 용신의 상태가 좋고 행운에서도 용신을 잘 도우면 성공적이며 부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반대로 용신이 충, 극을 당했거나 통근하지 못하고 약하거나 일간과 무정하다면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므로 성공적이며 부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

격국과 용신의 명칭은 세분화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신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하면 식, 재, 관으로 억제하고 약하면 인, 비로 부조한다 ② 조후용신은 사주가 한랭하면 木, 火로, 조열하면 金, 水로 조후용신 한다 ③ 병약용신은 사주에 편중되어 병이 되는 오행이 있으면 이를 극제하는 오행이 용신이다 ④ 통관용신은 오행이 서로 상전(相戰)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서 이를 통관시키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⑤ 전왕용신은 오행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그 세력에 따라 중하거나 합화하거나 하나의 오행으로 전왕한 경우 그 왕한 오행을 용신한다 ⑥ 격국용신은 격에는 격이 원하는 상신이 있으니 4길신격은 순용하고 4흉신격은 역용한다. 격국용신은 길흉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일간이 타고난 선천성대로 사회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한 요구조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를 통하여 사주를 분석함에는 격국과 용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의 길흉과 성패 그리고 회기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과 용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격이란 일간의 선천적인 기질로 타고난 성질이나 바탕을 말하며 일간의 대외적인 기질로 사회적인 목표와 사회활동의 수단과 도구를 말하고 일간의 활동공간으로 일터와 직장을 말한다. 격에는 성격과 파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격은 상격(上格), 중격(中格), 하격(下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러기에 격은 일간의 사회성을 관장한다. 용신이란 사주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역할로 사회적응 능력과 성공의 조건이다. 그리고 용신은 격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사주의 핵심 쓰임새이기에 용신을 통하여 일간에 대한 길흉과 성패를 가늠하며 일에 대한 대처능력과 수행능력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격국용신과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은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는 잘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용신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주를 감명하여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사주명리학에서 운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용신이다. 용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비로소 올바른 길흉판단이 가능하다. 명리학에는 용신을 중심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설명한 이론서는 대표적으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이 있다. 그런데 이 저서들에서는 각기 다르면서도 체계적인 이론과 용신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적천수』에서는 역부용신론을 논하고 있고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용신론을 논하고 있으며 『궁통보감』에서는 조후용신론을 논하고 있다. 각각의 주장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나름의 이치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 서로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용신론에 대한 비교분석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연구에서는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에 대한 연원 및 중요이론을 고찰하고 각 용신론을 비교 분석한 후 실제 사주감정 사례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사주감명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계승발전되어온 격국용신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사주명리학의 연원 및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그 다음 특히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과 중요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고전 3서의 중요이론중 용신론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들 용신론의 각기 다른 부분을 자세히 살폈으며 각 용신론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용신론을 통합 정리하여 개인생활의 미래예측 도구로서 명리학의 실용적 활용가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실제 감명한 현대인들의 다양한 사주명조를 제시하여 3대 고전 용신론의 상호연관성에 따른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시대적으로 적합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사주감명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첫 번째 과정으로 명리학의 역사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명리학의 격국용신론은 시대를 따라 여러 학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변화, 발전하여 왔는데 서자평은 과거 년주 위주의 고법사주학에서 일간 위주의 신법사주학을 창안한

후 『낙록자삼명소식부주』, 『옥조신응진경주』, 『명통부』 등을 저술하여 격국론을 주창하면서 격국에 따른 사주그릇의 크기와 운의 성패를 예단하였다. 그리고 『연해자평』에서는 서자평의 이론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사주의 실례를 넣고 격국론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다음 『명리정중』에서는 동정설, 개두설, 병약설 등 독창적인 학설이 주창되었다. 『삼명통회』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이론들을 집대성하여 사주학의 각종 이론과 비결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리고 『명리약언』에서는 명리이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격국용신론을 요약하면서 잡격을 배격하고 억부용신론만을 강조하였으며 『자평진전』에서는 사길신과 사흉신의 격을 구별하여 그에 따른 격국과 용신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적천수』에서는 잡격을 배격하고 억부용신을 중시하였는데 특징적으로 4종격을 주장하여 격국용신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궁통보감』에서는 열 개의 천간을 12개의 월지에 대입하여 일간별로 기후의 배합에 따른 득실을 따졌다. 『적천수』 이후 서락오는 『자평수언』에서 억부, 조후, 병약, 통관, 전왕의 다섯 가지 용신을 정하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별로 사회적 가치관과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용신론은 변화,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두번째 과정으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의 연원과 중요이론을 고찰한 후에 3대 고전서의 용신론을 집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3대 고전서의 각기 다른 이론체계에 따라 사주를 보는 관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용신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용신의 종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억부용신은 일간이 강하면 식상, 재성, 관성으로 억제하고 약하면 인성, 비겁으로 부조한다 ② 조후용신은 사주가 한랭하면 木, 火로, 조열하면 金, 水로 조후한다 ③ 병약용신은 사주에 편중되어 병이 되는 오행이 있으면 이를 극제하는 오행으로 용신을 삼는다 ④ 통관용신은 오행이 서로 상전(相戰)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서 이를 통관시키는 것으로 용신을 삼는다 ⑤ 전왕용신은 오행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그 세력에 따라 종(從)하거나 합화하거나 하나의 오행으로 전왕한 경우 그 왕한 오행을 용신한다 ⑥ 격국용신은 격에는 격이 원하는 상신이 있으니 4길신격은 순용하고 4흉신격은 역용한다.

이 중에 『적천수』의 억부용신론은 일간과 전체 사주구성을 대조하여 강약을 구분하며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간중심이 되기에 다분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운명의 길흉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다. 그러기에 억부용신은 일간을 사주전체에 비교하여

강하면 억제하고 약하면 부조해주는 방법으로 일간에게 개인적 생존방법론을 제시한다. 반면에 『자평진전』의 격국용신론은 일간과 월령을 대조하여 성격과 파격 여부를 구분하며 월지 중심의 간명법이 되기에 다분히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사회적 성패(成敗)를 파악하는데 더 유용한 면이 있다. 그러기에 격국용신은 일간의 기본적 스타일과 직업유형을 파악하여 상신을 통하여 사회적 공존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궁통보감』의 조후용신론은 월지에 의한 계절변화에 따라 한난조습을 살피며 일간 대비 월지 중심이 되어 일간의 체질과 심리 등을 파악하여 인생의 행복조건을 제시한다. 그러기에 조후용신은 건강한 생활에 따른 인생의 희기(喜忌)를 논하기에 유용한 면이 있다.

끝으로 용신의 이론별로 사주의 실례를 들어 각 용신론의 유용함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주간명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격국과 용신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주의 기본적 모양새와 성공의 핵심 키포인트를 말한다. 격국이란 일간과 월지와 십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주의 근본적인 체질을 말하는 것이며 용신은 하나의 사주가 갖는 음양오행의 체질로부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음양오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격국과 용신을 통하여 하나의 사주로부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하고 요구되는가를 알 수 있다. 사주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간과 격국용신의 상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격국용신의 상태에 따라 사주 주인공의 인생의 길흉과 성패, 행불행 등을 판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 따라서 이론에 적합한 용신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용신은 그 사주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정해진다. 월지에서 가장 유력하게 일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육친오행으로 격국을 정하며 그에 따라 사주의 전체적인 유형과 스타일을 판단하는데 이때 그 사주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일간에게 가장 이로운 작용을 하는 오행이 바로 용신이 된다. 그러므로 용신이란 사주 중화의 요체가 되며 길흉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그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길신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주의 상태를 분석하여 필히 용신을 정해야 하며 그 용신의 상태와 운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용신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사주 중에 하나의 오행이 용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글자가 용신이 될 수도 있으며 사주의 구조에 따른 격국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를 통하여 사주를 분석함에는 격국과 용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의 길흉과 성패, 그리고 희기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격이란 일간의 선천적인 기질로 타고난 성질이나 바탕을 말하며 일간의 대외적인 기질로 사회적인 목표와 사회활동의 수단과 도구를 말하고 일간의 활동공간으로 일터와 직장을 말한다. 격에는 성격과 파격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일간의 사회성이 좌우된다. 이러한 사주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것이 용신인데 이는 사회적응 방법과 성공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용신은 격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체이며 사주의 핵심 쓰임새이기에 용신을 통하여 일간에 대한 길흉과 성패, 행불행을 가늠하며 일에 대한 대처능력과 수행능력을 알 수 있다. 본연구의 결과 이와 같이 격국용신과 역부용신과 조후용신은 그 쓰임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잘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3대 고전서의 용신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주를 감명하여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이며 입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연구의 한계점은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을 고증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대부분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문헌들도 출처가 상당부분 모호하여 사료적 정확성을 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었다. 그리고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이론에 근거한 현대인의 사주 분석사례를 지면 관계상 22건 밖에 예시하지 못한 것도 본연구의 실증적 정확성과 유용성의 풍족함을 획득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명리학의 이론은 연구, 발전, 계승되어 왔다. 이러한 사주명리학에서 운명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용신(用神)이다. 용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올바른 운명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용신론은 부단히 연구 발전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19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사주명리학 관련 학위논문 수백 편이 발표되었지만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용신이론을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 논문이 처음이다. 향후 후속연구가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 명리학의 꽃에 비유할 수 있는 용신이론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오돈(1996), 『예기』, 서울 홍신문화사.
- 권오석(1994), 『목자』, 서울 홍신문화사.
- 권일찬(2010), 『동양과학개론』, 청주 충북대학교출판부.
- 구경희(2013), 『적천수강해』, 동학사.
- 김갑식(2002), 『명리요결』, 대구 무학운명철학연구소.
- 김근(1994), 『여씨춘추십이기』, 서울 민음사.
- 김근(1994), 『여씨춘추팔람』, 서울 민음사.
- 금경방·여소강(1996), 『상서·우하서신해』, 沈陽, 遼寧古籍出版社.
- 김기승(2003), 『명리학정론』, 도서출판 창해.
- 김기승(2007), 『격국용신정의』, 서울청학출판사.
- 김상연(2000), 『命』, 갑을당.
- 김선호(2006), 『자미두수입문』, 대유학당.
- 김석진(1993), 『대산주역강해상경, 하경』, 대유학당.
- 김수길역(2008), 『오행대의(上·下)』, 대유학당.
- 김수길·윤상철共著(2000), 『주역입문』, 대유학당.
- 김재식(2009), 『신살백과』, 청학출판사.
-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1), 심효침저, 『자평진전:원전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 김정혜·서소옥·안명순공역(2015), 『궁통보감:현토완역』, 한국학술정보(주).
- 김종수(2010), 『강독회남자』, 민속원.
- 김찬동(2008), 『적천수정설』, 삼한출판사.
- 남기현(2005), 『춘추번로』, 자유문고.
- 노영준(2006), 『역학사전』, 경덕출판사.
- 류래웅(2006), 『기문둔갑신수결』, 대유학당.
- 문선규(2009), 『춘추좌씨전(上·中·下)』, 明文堂.

민병삼(2016), 『유가의 풍수원리』, 명산출판사.

박기성·김성호(1998), 『음양오행통변보감』, 남산당.

박영창역(1998), 심효첨서, 서락오평주, 『자편진전평주』, 신지평.

박영창, 공주대학 정신과학연구소 편저(2005), 『정신과학-천문편』, 열매출판사.

박영창(2007), 『사주학 강의』, 삼하출판사.

박일우(2003), 『삼명통회』, 명문당.

박재완(1993), 『교정명리사전』, 너른터.

박재완(1999), 『명리요강』, 역문관서우회.

박주현(2002), 『적천수강의 1,2,3권』, 동학사.

백승현(1998), 『사주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출판시대.

백영관(1983), 『사주정설』, 명문당.

서락오(1998), 『궁통보감(난강망)』,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서락오평주(2000), 『자평진전평주』,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서락오(2010), 『조화원약평주』, 臺北:武陵出版有限公司.

소재학(2009),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1』, 도서출판 하원정.

소재학(2009),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2』, 도서출판 하원정.

소재학(2009),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3』, 도서출판 하원정.

소재학(2009),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4』, 도서출판 하원정.

소재학(2009),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도서출판 하원정.

신성생(1999), 『사주명리학대사전』, 갑을당.

손성연찬(1988), 『尙書令古文注疏(上)』, 北京, 中華書局.

신익수(2009), 『이수명리학』, 장서원도서.

심재열(2004), 『명리정중정해』, 명문당.

심재열(2004), 『연해자평정해』, 명문당.

양계초외김홍경역(1993),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양성모(2009), 『현대명리학강론』, 중산동양학연구소.

양성모(2010), 『사주실전통변론』, 중산동양학연구소.

양성모(2017), 『격국용신 완전정복』, O·B·C·A 출판사.

오청식(2008), 『연해자평역주』, 대유학당.

이병렬(1999), 『실증철학(上·中·下)』, 동양서적.

이석영(1969), 『사주첩경全六卷』, 한국역학교육학원.

이세열(1995), 『한서예문지』, 자유문고.

이용준역(2007), 『진소암원저, 위천리편저, 정선명리약언,』 청학출판사.

이을로(2007), 『궁통보감강해』, 동학사.

이을로(2009), 『자평진전강해』, 동학사.

임정환(2006), 『궁통보감(上·下卷)』, 원재역학연구원.

임정환(2006), 『적천수천미(1,2,3,4권)』, 원재역학연구원.

정규련(2006), 『오운육기핸드북』, 홍릉과학출판사.

정지호(2003), 『조화원약평주』, 삼한출판사.

정희국(1984), 『춘추(上·下)』, 서울한국협동출판공사.

정태중(1992), 『완역적천수해설』, 한림원.

천인석(1987), 『동서의학(음양오행설의 기원에 관한 일고)』, 우신출판사.

최봉수(1999), 『궁통보감정해』, 명문당.

포여명(1995), 『적천수 완전풀이』, 예예원.

풍우란(1934), 『중국철학사, 上冊』, 上海:商務印書館.

한동석(1982),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한중수(2003), 『당사주비전』, 동반인.

한중수(2003), 『사주학대강의』, 동반인.

[학위논문 및 학술지]

강홍서(2012), 「『적천수천미』의 명조간법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낙필(2005), 「연해자평 번역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희(2013), 「『적천수천미』에 나타난 용신 적용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승(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석(2015), 「신살의 연원 및 재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2005), 「격국을통해본 직업과의 상관성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섭(1995), 「회남자철학체계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우정(2005), 「『궁통보감』에 관한 번역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장숙(2012), 「명리학의 격국론에 관한 연구 : 『자평진전』의 투간회지론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중(2014), 「『자평삼명통변연원』의 격국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언(2014), 「명리학에 적용된 중화사상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 박사학위논문.
- 박병수(2015), 「『자평진전』 명리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희(2015), 「사주 용신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창(2011), 「진로지도에 있어서 명리학적 보완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경(2014), 「『궁통보감』에 나타난 사시회기의 관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구(2004), 「유기백온의 적천수원주 번역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구(2013), 「『적천수천미』의 중화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성민(2013), 「사주명리학의 월령의 역할 및 작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원(2013), 「명리학의 중화론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재학(2006), 「음양오행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소재학(2009),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유성(2012), 「사주명리학의 조후론 적용에 관한 연구:『궁통보감』의 조후론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수(2003), 「당·송대 명리적 삼재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주(2015), 「명리학의 중화적 해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규철(2002),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성모(2014), 「사주의 오행특성과 골질환의 관계 분석」.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재(2012), 「격국·용신과 전공 선택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순택 (2017), 「사주 용신과 직업의 상관성 연구 :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인호(2013), 「명리학의 격국·용신 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진(2009), 「명리학 용신 도출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달현(2015), 「사주명리학의 변격사주와 용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2013), 「명리학에 있어서 중화의 문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운(2014), 「유백은 명리사상의 철학적 조명」,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환(2007), 「자평진전의 격국 연구 : 내팔격 중심으로」,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선(2008), 「유백은의 명리학에 관한 연구 -적천수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2005), 「사주학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정(2017), 「사회경제적 성공자의 자기만족도에 관한 명리학적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향희(2014), 「『자평진전』의 행운 예측 이론과 임상에 관한 연구 : 격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대봉(2013), 「명리학에서 월지중심의 간명법과 격국운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호철(2015), 「격국의 성패에 관한 연구 :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원철(2009), 「명리학의 격국론 연구 : 정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Myeongri-hak
『Jeokcheonsoo』, 『JapyeongJinJeon』, 『Kungtonbogan』
focused on the Theory of Yongsin

Jae-bum Park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Major in Myungri Future
forecast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The theory of Myeong-Rihak has been researched, developed and inherited throughout thousands of years in history. Yongsin is the most essential factor of judging the destiny in Sajumyeong-rihak. It is possible to take right auspices only when exactly grasping the meaning of Yongsin. There are a wide variety of methods of judging the destiny in Myong-Ri Theory. Theoretical books that explain them typically include jeok-cheon-su, ja-pyeong-jin-jeon, gung-tong-bo-gam. Eog-bu-yong-sin has been discussed in jeog-cheon-su and gyeong-gug-yong-sin has been discussed in ja-pyeong-jin-jeon. Furthermore, jo-hu-yong-sin has been discussed in gung-tong-bo-gam. Respective argumen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one

another while they have their unique logic and usefulness as independent wa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compare and analyze Theory of Yongsin at current point. Based on this view, our research institute has contemplated deeply the origin and crucial theories regarding, jeog-cheon-su, ja-pyeong-jin-jeon, gung-tong-bo-gam.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respective Theories of Yongsin throughly, I have strived to suggest the most appropriate and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methods of, Saju(fate) suitable for modern society through actual interpretation cases of Saju(fat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search, At first, researcher have studied the origin and history of Saju Myong-Ri with as the central figure on process of transition of gyeong-gug-yong-sin. And then, after contemplating deeply the origin and crucial theories regarding jeog-cheon-su, ja-pyeong-jin-jeon, gung-tong-bo-gam, I, as the second course of the research, has carried out investigating the respective different aspects and merits and demerits of Theories of Yongsin based on centr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ories of Yongsin of respective three theories.

As a result, I could figure out the difference of view of translating Saju depending on respective Theories of Yongsin from three classics. Besides, I have consolidated and arranged Theories of Yongsin of jeog-cheon-su, ja-pyeong-jin-jeon, gung-tong-bo-gam, presenting various Saju Myeong-Jo of contemporary men that researcher actually has translated so as to secure practical utilization value of Myong-Ri Theory as a prediction tool in the future. In addition, I have suggested new and reasonable translation method Suitable for age of Saju by consolidating and analyzing the result stemming from mutual correlation of Theories of Yongsin of three classics. gyeonggug and Yongsin are key points of basic style and success of Saju as one system in one Saju. Gyeonggug means fundamental physical constitution of Saju referring to Sipseong realltion of

Ilgan and wolji. Yongsin indicates Yin and Yang Five elements Thought desperately needed from fundamental physical constitution of Saju. Therefore, we can learn exactly what requires to be needed through Yongsin in one Saju. We need to analyze the condition of gyeoggug and Yongsin in order to determine Saju. Good or ill luck , success or failure , and happiness or unhappiness of Saju character' s life are determined according to various and complicated state of Yongsin. There are essential differences among respective theories of jeog-cheon-su, Ja-pyeong-jin-jeon, and gung-tong-bo-gam. What individuals want, private life like relation of family, properties, and good or ill luck of your own flesh and blood such as grandparents, parents and sibilings can be grasped through eog-bu-yong-sin of jeog-cheon-su. Good Saju and luck of eog-bu-yong-sin consist of economic success and comfortable human relations associated with family and neighbor.

On the other hand, whether Saju character succeeds or fails in life ,judging from external work life, social problem and size of area of social life of Saju character, can be figured out through gyeoggug and Yongsin of ja-pyeong-jin-jeon. Saju character with great personality due to good Sang-Sin and good luck of Sang-Sin largely has social success. Happiness index and happiness or misfortune that each individual felt about the whole life can be apprehended by grasping emotions such as pleasure, sadness, anger and enjoyment and accepting the world caused by physical constitution of birth season through jo-hu-yong-sin of gung-tong-bo-gam. In Saju equipped with jo-hu-yong-sin and luck of jo-hu-yong-sin, people lead life with high happiness index . In contrast, people with unbalanced jo-hu lead unhealthy life physically and mentally. Thus, we have to distinguish them on account of varying use of eog-bu-yong-sin, gyeoggug Yongsin and jo-hu-yong-sin.

I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I could make out apprehensive and three

dimensional understanding about life of one person by translating Saju and applying these three theories of Yongsin complexly through this research. This paper was the first one that compared and analyzed directly Theories of Yongsin among, jeog-cheon-su, ja-pyeong-jin-jeon, and gung-tong-bo-gam. Therefore, I think that this paper may be likely to lack some parts involved. Hopefully, I will expect Theories of Yongsin, flower of Myong-Ri Theory to be systematized and developed if sequent researches are carried out deeply and variously in the near future.